사찰을 수익자로 지정이 가능한 Heungkuk 흥국생명
49재 보험 & 다비 보험
상담 문의 1522-1543

현대불교

구독 · 후원 상담
02-2004-8212
ARS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564호 HYUNBULNEWS.COM 2026년 1월 28일(음력 12월 10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산불 피해 사찰림 맞춤형 복구 필요”

조계종 사찰림연구소, 1월 22일
경북 산불 피해조사 최종보고회
장소마다 달랐던 ‘산불의 얼굴’
“사찰림 복구, 일률적 벗어나야”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산불로 지역 사찰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사찰별 피해 양상과 맞춤형 복구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사회부장 진성 스님)와 사찰림연구소(소장 오충현)는 1월 21일 의성 고운사 템플스테이관에서 ‘경북 산불에 따른 사찰림 피해 조사 및 복구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사찰림 복구가 더 이상 획일적인 조림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사를 진행한 오충현 사찰림연구소장은 사찰림의 산불 피해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사찰과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찰별 복구 방안을 발표했다.

사찰림연구소 보고에 따르면 고운사 사찰림 전체면적 247.50ha 가운데 97.71%에 해당하는 241.83ha가 산불 피해를 입었다. 의성 구인사는 87.78%, 옥련사는 32.99%, 운람사는 64.71%가 산불로 소실됐다. 또 안동 봉황사는 92.93%, 선찰사는 83.82%, 용담사는 89.95%를 잃었다. 청송 수정사는 91%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경북 사찰의 피해현황과 복구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동참자들은 사찰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 현황에 맞는 복구를 진행하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단순복구를 넘어 사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 유사 기후대 사찰림 복구·식재 시 참고 가능한 시범 사례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불 피해상황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으로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97.71%가 소실된 고운사 사찰림의 경우 경내 수목 피해는 적으나 전각 주변 소나무림은 고강도 피해로 교목·아교목 대부분이 소실된 상태다. 침엽수림 피해율이 98%를 넘었고 고강도 피해 비율도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찰림연구소 측은 전면 조림보다는 단계적 복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현장조사 결과 소나무림은 상층과 하층이 모두 전소된 지역이 많았고 일부 참나무림에서만 교목층 생존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문화유산과 경내를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주변 50m 이내 소실된 소나무 위험목을 제거하고 완충지대에는 동백나무 등 내화성 상록교목을 시범 도입해 기존 소나무림 대체하는 등 생태복원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 용담사 역시 피해 규모가 컸다. 사찰림 240ha 중 89.95%가 산불 피해를 입었으며, 침엽수림과 혼효림, 활엽수림이 고르게 영향을 받았다. 사찰림연구소는 경사가 급하고 토심이 매우 얕은 상황에서 초기 복원은 사면 안정화와 토양 유실 방지를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부 참나무림의 경우 시간 경과에 따라 상층 식생이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인위적 복구 계획 수립은 불필요하고 자연 복원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용담사에는 자연천이에 의한 회복 과정을 유지하면서 식생 발달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복원 전략이 제시됐다.

안동 봉황사와 선찰사의 피해 면적 비율은 각각 92.93%, 83.82%로 높았지만, 피해 강도는 상대적으로 저강도~중저강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불이 숲 전체를 훑고 지나갔지만, 수관 전소보다는 지표화 위주의 피해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본방향은 자연 복원을 유도하고 토양 유실 방지 등 최소한의 사면 안정화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분석했다.

의성 운람사와 구인사는 사찰림의 절반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사찰 뒤편 소나무림에서 고강도 피해가 집중됐다. 반면 참나무림 지역은 상당 부분 생존해 임상별 피해 격차가 뚜렷했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들 사찰의 복원 방향으로 소나무 고강도 피해지역은 피해가 경미한 굴참나무림 등 주변 잔존림에서 종자를 확보해 보완하고 혼효림 및 참나무 피해지역을 확대해 산불 저항성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옥련사는 전체 사찰림의 32.99%가 피해를 입었고, 대부분 저강도 피해에 그쳤다. 청송 대전사는 피해율이 1% 미만으로 사실상 산불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사찰이 위치한 지형과 식생 구조, 기존 숲의 다양성이 피해를 줄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사찰림연구소는 이날 보고된 내용을 토대로 보완작업을 거쳐 1월 중 최종보고서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1월 21일 서울 진관사 함월당에서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한걸음 고불식’이 봉행됐다. 이번 단기출가학교에는 여성 9명이 입교했다.

“부처님 되겠다” 서원 품은 7일 출가 여정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 개최
1월 21일 함월당서 고불식 봉행
‘한걸음, 나를 만나는 길’ 슬로건
6박 7일 동안 엄격한 청규 준수
진우 스님 “든든한 인연돼 줄 것”

“부처님 법 만나 마음을 돌이키고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 진리의 길, 수행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삼보에 귀의해 자비와 지혜를 키워 스스로를 이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겠습니다.”

출가자 급감의 현실을 극복하고 출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조계종(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권역별 단기출가학교 개설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에서는 진관사가 여성 수행자를 대상으로 출가학교의 첫발을 내디뎠다.

1월 21일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 함월당에서 봉행된 ‘진관사 제1기 단기출가학교-한걸음 고불식’에서 9명의 입교자들은 발원문을 통해 “6박 7일 짧은 시간이나마 세속의 일을 내려놓고 출가자의 옷을 입어 계율을 익히며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고 다짐했다.

출가는 현재 조계종의 가장 큰 화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최근 신년 기자회견에서 “출가는 고통의 집을 벗어나 가장 자유로운 삶을 디자인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며 출가 장려 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날 고불식에서 진우 스님은 포교부장 정무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스스로 주인이 돼 평화로 나아가길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6박 7일 일정은 실제 행자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는 엄격하고도 장엄한 수행의 시간”이라며 “예불, 발우공양, 선명상, 참선 수행은 망상을 줄이고 본래의 고요를 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정한 수행의 길을 걷고자 원력을 세울 시종단이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하기도 한 스님은 “출가는 개인의 해탈을 넘어 세상에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큰 원력”이라 강조하고 “오늘 내딛는 ‘한걸음’이 스스로의 존귀함을 깨닫고 삶의 주인이 되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진관사 주지 법해 스님은 ‘내 안의 부처님’을 강조했다. 스님은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의 정원’ 진관사에서 부처님 법향을 익힌다면 생각이 지혜로 바뀌고, 어둠이 밝음으로 바뀌고,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며 “날마다 부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부처님이 되겠다고 서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걸음, 나를 만나는 길’을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단기출가학교에는 다양한 연령대 여성 입교자 9명이 함께한다. 입교자들은 1월 26일까지 단순히 사찰에 머무는 템플스테이를 넘어 실제 출가자가 겪는 ‘행자 과정’을 그대로 수행한다. 6박 7일 동안 새벽예불, 108배, 발우공양, 묵언, 오후 불식 등 엄격한 청규를 준수하며 수행자의 일상을 온전히 살아내게 된다. 특히 진관사 특성을 살린 사찰음식 체험, 선명상, 자비수참 등을 23~25일 경험할 예정이다. 마지막 밤, 철야정진과 성도재일 정진을 이어갈 입교자들은 1월 26일 수계식과 함께 회향한다.

이날 출가학교 입교자들은 교무 선행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부처님 가르침을 진실히 따르고 한 생각, 한 생각마다 청정한 마음을 지니며 하루 하루를 도의 맑고 청정한 향기로 채우고자 하니 바른 길인 정법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고 게으름과 방일을 멀리하게 해달라”면서 “모든 도반들이 향기로운 법의 빛이 가득해 서로를 공경하고 함께 이끌어 주며 수행의 벗으로서 함께 정진하게 해달라”고 불보살 전에 서원했다.

진관사는 단기출가학교 프로그램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후관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출가 및 조계종 사미니 등록을 안내하는 한편 네이버 밴드 등 SNS를 개설해 동문회를 결성할 예정이다. 밴드에는 일주일에 2회 부처님 말씀을 게재해 신심이 증장되도록 하고 각자 작성한 수행 일기를 매주 한 번씩 법사 스님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진관사 일정과 행사, 다음 단기출가학교 등에서 자원봉사로 동참할 수 있도록 권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계종은 교구본사 단기출가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선(禪)출가학교를 처음 실시했으며 선운사는 11월 호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단기출가학교를 개설해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강원권에서 신흥사, 영남권에서는 범어사와 통도사 직지사에서 출가학교가 이어질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동방불교대학 2026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12.22~2026.02.05
동방불교대학 QR code

모집학과
불교학과
2년 과정
인터넷 강의
범패학과
2년 과정
주 1회 출석 강의

자격 및 서류
자격
만 18세 이상
학력제한 없음
서류전형
제출 서류
입학원서 1부
주민등록등본(선택발급)

원서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대학 홈페이지: http://dongbang.org/
원서 접수 기간
2025.12.22~2026.02.05
접수처 (우편,팩스,이메일)
팩스: 02-733-0728
이메일: dongbang2030@naver.com

입학문의
동방불교대학 교학처
02-745-2030
010-3224-3454
합격자 발표
2026.02.26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한국불교태고종 종립 동방불교대학
(우 03062)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 1층 TEL: 02-745-2030 FAX: 02-733-0728

태고종, 대규모 영산수륙방생대재 연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오는 10월 17일 한강 둔치서
수륙대재 더불어 방생도 함께
"전통의식 영산재 홍보에 역점"
고립 은둔 청년 돌봄사업 추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태고종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은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신년회견문을 발표하는 모습.

지난해 1만여 태고종도가 광화문 광장에서 만들어낸 법열(法悅)을 올해에는 한강 둔치에서 이어간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문화전승관 3층 법륜사 대웅보전에서 '2026년 신년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태고종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6대 핵심 주요종책을 발표했다.

먼저, 매년 고양시 일산문화광장에서 열리는 태고문화축제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시연과 다양한 전통·현대문화공연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게 태고종의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올해에는 태고문화축제 예산이 대폭 증액된 만큼 예산의 절반 정도를 태고종 전국 지역 사찰의 문화행사로 쓸 수 있게 하겠다. 태고문화축제를 대한민국의 축제로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서 1만 태고종도가 보여준 태고종의 저력과 역량이 올해에는 한강에서 재현된다. 태고종은 오는 10월 17일 한강 둔치에서 '영산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 국태민안과 사회통합을 기원한다.

상진 스님은 "지난해 종도와 국민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주신 덕분에 국제수계법회는 원만히 회향할 수 있었다. 올해 하반기에는 한강 둔치에서 영산수륙방생대재를 봉행하고자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가의 안녕을 기원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반목과 퇴보가 아닌 통합과 진보의 시대로 나아가는 데 일조하겠다"고 자신했다.

육조 혜능 대사, 석옥 청공 선사, 태고 보우 국사로 계승된 선맥(禪脈)을 재조명하는 세미나도 지속적으로 진행된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열리는 제9회 한·중 불교교류 세미나는 중국불교협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실무협의를 거쳐 일정이 결정될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사업도 대폭 강화한다. 태고종은 한국미혼모가족협회,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 유관단체들과 협력해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사업들을 전개하는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전우회와는 한국전쟁과 월남전 등으로 산화한 전몰군경의 넋을 기리는 불교 전통의 위령재를 봉행할 계획이다.

상진 스님은 "미혼모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인 만큼 권익을 보호하고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전몰군경 위령재를 통해서는 그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호국불교의 법등을 환히 밝혀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고립·은둔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삶의 활력을 찾아 사회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마음 건강 지원 상설 프로그램 '온(ON)'을 추진한다. 명상과 마음챙김, 심리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살피는 '온'을 민관협력형 청년 정신건강 모델로 만들어나가겠다는 게 태고종의 목표다.

포교 도서 〈사찰이 답하는 108번뇌〉 제작도 이뤄진다. 책은 태고종 소속 사찰 스님 108명이 일반인들이 겪는 다양한 갈등, 번뇌의 상황에 대한 108가지 질의를 답하는 형식으로 이뤄지며 향후 유튜브 쇼츠, 오디오북, 사찰 낭독회 등으로도 확장할 계획이다.

취임 3년차를 맞은 상진 스님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종단 발전에 힘쓰겠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스님은 "저는 총무원장 임기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잊지 않고 종단의 발전과 국가의 안녕을 위해 백척간두진일보의 정신으로 정진하겠다"며 "나아가 태고종은 한국불교의 뿌리이자 기둥으로 나라와 국민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서 차별 없는 세상을 구현하는데 앞장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 투표용지 '공개' 여부 두고 논란

1표 차로 성로 스님 선출
덕관 스님 "비밀투표 위반"
중선위, 1월 28일 소청 심사


산중총회에서 성로 스님이 투표함에 투표 용지를 넣고 있는 모습.

조계종 제10교구본사 은해사 주지후보 선거가 투표용지 공개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10교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본 스님)는 1월 16일 은해사 육화원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주지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기호 1번 성로 스님을 주지후보로 선출했다.

이날 산중총회에는 선거인단 114명 중 109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로 스님이 55표, 기호 2번 덕관 스님이 54표를 얻어 단 1표 차로 당선이 결정됐다. 문제는 당선증 수여 후 불거졌다. 투표 당시 성로 스님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었는데,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비밀투표 원칙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덕관 스님은 1월 19일 본사 주지후보 당선인 결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당선인 재결정을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덕관 스님은 "산중총회 투표 과정에서 후보자인 성로 스님이 기표한 투표지를 접지 않은 채 투표함에 넣어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성로 스님은 "당시 양측을 대변하는 참관인이 모두 배석했고, 중앙선관위와 교구선관위, 호법부 스님들도 전 과정을 지켜봤지만 문제제기는 없었다"며 "이의 여부를 물었을 때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 즉시 제지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 22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26차 회의를 열고 덕관 스님이 제기한 선거 소청을 오는 1월 28일 오후 2시에 심사하기로 했다. 중앙선관위는 심사 전날인 1월 27일까지 소청인인 덕관 스님과 피소청인인 성로 스님에게 각각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으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받기로 했다.

김내영 기자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뜻 새기자"

천태종,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4주년 봉축법요식



천태종 중창조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 114주년을 기리는 봉축법요식이 1월 16일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본산 단양 구인사에서 봉행됐다.

구인사 광명전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 대종사와 총무원장 덕수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능원 정사,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 스님 등 종단 대표자 스님들과 이동욱 충북도 행정부지사, 오영훈 제주지사, 이충재 천태종 중앙신도회장 등이 참석해 상월 원각 대조사의 탄신을 봉축했다.

종정 도용 스님은 법어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는 정법을 중흥해 부처님 지혜의 태양을 다시 밝히고 장엄한 원력으로 불가사의한 수행의 길을 열어 보이신 분"이라며 "하나의 마음으로 세계가 조화를 이룰 때 중생을 제도하는 길이 열리는 만큼 대조사의 탄신 뜻을 새겨 국태민안과 인류의 행복을 기원하며 참된 불자로 정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덕수 스님은 봉축사에서 "사람이 가장 귀하게 지켜야 할 것은 양심을 바탕으로 한 사람다운 삶"이라며 "가정과 사회, 국가를 이롭게 하는 삶이 불자가 실천해야 할 길"이라고 보살행 실천을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이 대독한 축사에서 "상월 원각 대조사 탄신 114주년 봉축법요식을 계기로 한국불교계가 더욱 굳게 합심해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고, 동참한 사부대중 모두에게 제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상월 원각 대조사는 1911년 음력 11월 28일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나 15세에 법은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다. 1945년 소백산 기슭에 구인사를 창건하고, 고려 대각 국사 의천의 중생구제 정신을 계승해 한때 끊어졌던 천태종의 법맥을 다시 일으킨 중창조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진우 스님, 조국 대표에 '조화' 당부

1월 21일, 소통·연대 중요성 강조
조국 대표 "파수공행 자세로 정치"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예방을 받고 분열과 갈등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다름을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치"라며 소통과 연대의 중요성을 당부했다.

조국 대표는 지난해 11월 당 대표로 복귀한 이후 정식 인사를 겸해 이날 진우 스님을 찾았다. 조 대표는 "그동안 여러 도움과 지도편달을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파수공행(把手共行)'의 마음으로 손을 맞잡고,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함께 가는 정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우 스님은 정치가 '다름 속의 조화'라고 일깨웠다. 스님은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말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다 같을 수 없다"며 "다름에서 조화를 이루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야 말로 정치인의 중요한 자세"라고 덧붙였다.

조급함을 경계하라는 가르침도 전했다. 진우 스님은 "'욕속부달(欲速不達)'이라고, 너무 빨리 가려 하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이 있다"며 "조급하면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차근차근 세심하게 나아가면 오히려 먼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또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여럿이 천천히 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내영 기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2026학년도 1학기 신입생 모집

대원아카데미(출석 교육)
모집과정
불교전법사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출석 수업
(화 · 수 · 목 · 금) 13:00~17:00
수강료: 400,000원(학기당)
※ 과목별 등록 수강 가능(과목당 10만원)

디지털대원아카데미(온라인 교육)
모집과정
불교전법사 과정 00명
명상지도사 과정 00명
심리상담사 과정 00명
2년 4학기(학기당 4과목)
과정별 주 2일 15주 온라인 수강
(화 · 수 · 목 · 금) 13:00 업로드
수강료: 300,000원(학기당)
※ 과목별 등록 수강 가능(과목당 10만원)

○ 공통과목: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불교와 현대철학, 명상심리학, 초기불교(니까야), 불교란 무엇인가, 진화인간학, 유식과 불교의 마음, 뇌 과학과 불교, 죽음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등
○ 전공과목: 법이란 무엇인가, 한국헌법과 자유민주주의, 명상과 치유, 마음챙김 명상의 이론과 실습, 불교의 마음, 심리상담의 이론과 실습, 실정법의 개요, 한국불교와 자유민주주의, 한국 헌법의 원리와 개정 방안, 불교와 국가, 정신건강과참선명상, 불교심리학, 마음챙김의 이론과 실습, 불교상담의 이론과 실습, 인지심리학, 정신분석학, 불교명상학, 자아초월과 불교심리치료, 상담심리학, MBSR과 MBCT, 유식과 불교의 마음 등

○ 교수진
김윤수 (전)사법연수원 교수, 법학 학사
이한구 경희대학교 석좌교수, 철학 박사
김학동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법학 박사
구상진 (전)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법학 박사
성소은 '경계너머 아하!' 대표, 사회학 박사 수료
양희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심신통합치유학 박사
윤희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교수, 불교학 박사
문진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상담학과 교수, 동서양심리학 박사

○ 특전 및 혜택
성적 최우수 장학금 : 수업료 100% 지급
성적 우수 장학금 : 수업료 50% 지급
스님 및 불교계 종사자 등록 시, 수업료 50% 할인
가족동반 등록 시, 1인 수업료 50% 할인
수료자 재등록 시, 수업료 50% 할인
2개 과정 이상 동시 등록 시, 1개 과정 50% 할인
과정 등록자는 동반 1인에 한해 1과목 무료 청강 가능함.
민간자격 취득자격 부여

○ 접수 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igitaldaewon.org
등록하기
접수 기간
2026년 3월 13일(금)까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20 다보빌딩(BBS불교방송) 3층(지하철 5호선 마포역 4번 출구 도보 50m)
문의: (02) 707-1072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대원아카데미 · 디지털대원아카데미 www.daewonacademy.org

‘열암곡 부처님 세우기’ 천일기도 계속된다

1월 21일, 천일기도 1차 회향
미래본부, 환풍 스님에 공로패
2028년 10월 28일까지 2차 기도
“새로운 천년 이루겠다는 발심”



조계종 미래본부는 1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천일기도 1차 회향 및 2차 입재 법회를 봉행했다.

경주=김선행 대구경북지사장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모시기 천일기도 1차 회향 및 2차 입재를 알리는 법회가 1월 21일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앞에서 봉행됐다.

이번 법회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올해 1월 21일까지 이어진 천일기도의 원만 회향을 기념하고, 1월 22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계속될 제2차 천일기도의 새출발을 발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계종 미래본부에 따르면 1000일 동안 이어진 기도법회에는 전국 교구본사를 비롯한 210여 개 사찰과 단체에서 스님과 불자 2만5000명이 동참했다.

강추위가 몰아친 날씨에도 이날 회향법회에는 미래본부 사무총장 일감 스님, 사무국장 혜오 스님,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 기도법사 선우·귀종 스님, 조계종 일반직 종무원, 신도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일감 스님은 회향사에서 “1000일 전 이 자리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함께 천년 동안 누워 계신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것이 국민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기도를 통해 앞으로 새로운 천년을 이루겠다는 발심을 했다”고 회고하며 “천일기도 1차 회향과 2차 입재를 통해 2007년에 기적적으로 이 땅에 나투신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경주 남산에는 1000년 전 신라인들이 부처님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의 흔적들이 있다”면서 “불국토를 이 땅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신라인들의 원력과 의지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남아 있다”고 감동을 전했다. 이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엎드려 있는 부처님을 바로 일으켜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일감 스님은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대신해 기도법사단장 환풍 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2023년부터 단장 소임을 맡아 천일기도를 이끌며 사부대중의 원력을 결집하는 데 큰 공로를 세운 점을 치하했다.

환풍 스님은 “천일기도는 수많은 불자들의 간절한 원력과 수행이 쌓인 여정이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2차 천일기도 또한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큰 서원의 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0일 동안 기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힘쓴 미래본부 종무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김추연 조계종 종무원조합 위원장은 대표로 낭독한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발원문’에서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불제자들이 지혜와 자비가 충만한 깨달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고, 불교중흥과 국운융창으로 세상 모든 이들이 평화와 행복의 길로 나아가게 해 달라”고 서원했다.

한편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불은 통일신라 시대 8세기 말 조성된 것으로 높이 약 5.6m, 무게는 80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7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으며 부처님 코끝과 바닥의 거리가 불과 5cm에 불과한 상태에서 상호가 온전히 보존돼 ‘5cm의 기적’으로 불리운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주력 사업으로 삼고 천일기도와 모의실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자가수 김소유와 배아현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사진 왼쪽부터 김소유 홍보대사,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도륜 스님, 배아현 홍보대사.

조계종복지재단 홍보대사 김소유·배아현

1월 19일, 불자가수 2명 위촉
“불교사회복지 가치 알리겠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이 1월 19일 서울 전법회관 3층 보리수실에서 ‘2026년 홍보대사 위촉식’을 갖고 불자가수 김소유와 배아현을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홍보대사 위촉은 국민들에게 친근한 불자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재단 활동과 불교사회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자비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촉된 김소유 홍보대사는 2024년 홍보대사로 위촉돼 현재까지 홍보대사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해 복지지설 자비나눔 방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 등 재단을 대표하는 다양한 자비나눔 활동을 꾸준히 실천해 왔다.

배아현 홍보대사는 2년째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자비나눔 연탄봉사와 산불 피해 이웃을 위한 긴급 모금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팬클럽 회원들과 함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왔다.

대표이사 도륜 스님은 “변함없이 재단과 함께 해 준 김소유, 배아현 홍보대사와 늘 함께해 주는 팬들에게 깊이 감사하다”면서 “두 홍보대사가 자부심을 갖고 불교사회복지와 자비나눔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관음종, 스리랑카 오지 학교에 자비의 손길

1월 17일 가와라기리야 학교
‘다문화 포교’ 선포 후 첫 행보


관음종은 1월 17일 스리랑카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에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창종 60주년을 맞아 ‘다문화 포교 확대’ 비전을 선포한 관음종이 첫 해외사업으로 스리랑카 오지 학교에 자비의 손길을 전했다.

관음종은 1월 17일 스리랑카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에서 지원 물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안성 관음사 주지 보상 스님, 진주 약사정사 주지 진여 스님, 의령 반야사 주지 원공 스님, 아산 마하위하라 사원 담마끼띠 스님을 비롯한 불자 성지순례단과 현지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야생 소가 살던 언덕(Gawaragiriya)’이라는 이름의 유래처럼 험준한 산간 오지에 위치한 가와라기리야 공립 종합학교는 1908년 설립돼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지리적 한계로 인해 해외 국가와의 교류나 지원은 118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관음종의 지원이 역사상 처음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해 관음종 창종 60주년 기념법회 당시 스리랑카 불교 아스기리야파 아난다 부종정 스님이 방한해 축사를 전하며 맺은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사됐다.

관음종 측은 이날 학생 200여 명을 위해 △학용품 및 과자 △컴퓨터 및 프린터 △도서 보관용 책장 등을 전달했으며 학생들의 정서 교육을 돕기 위한 악기 수리비도 함께 전했다.

보상 스님은 “아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길”이라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담마끼띠 스님은 “나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정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가와라기리야의 학생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학교 측은 코코넛 기름 등불 점등식과 축하 공연으로 감사의 뜻을 표했다. 마을 주민들까지 모두 모인 이번 행사는 단순한 물품 전달을 넘어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계의 민간 외교의 장으로서 큰 의미를 남겼다. 송종원 관음종 사무국장은 “작은 후원이지만 갈고 닦아 큰 인물이 되어 주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선원수좌회, ‘다비문화 계승 보험’ 도입

선우HK와 업무협약 체결
흥국생명 ‘해탈다비보험’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가 다비문화 개선과 현대적 계승을 위해 흥국생명과 손잡았다.

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상임대표 불산 스님)는 지난해 12월 23일 영천 은해사 운부암에서 흥국생명 보험 판매법인 ㈜선우HK(대표 박채원)와 ‘다비문화 계승 및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전국선원수좌회는 흥국생명의 ‘해탈다비보험’을 알리고 보급하며, 흥국생명은 스님들의 입적 시 보험제도를 통해 다비의식 집행에 힘을 보탠다.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선원수좌회 의장 환경 스님은 “수행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수행의 완성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며 “다비는 단순한 육신의 처리가 아니라 수행자의 청정성과 생사관을 드러내는 거룩한 불교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승가가 주체가 되어 다비의 본질을 지키고, 시대에 맞게 개선해 나가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박채원 선우HK 대표는 이번 협약이 ‘문화 계승’에 방점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현장에서 들려오는 가장 큰 목소리는 전통을 지키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된다는 안타까움이었다”며 “이번 협약은 스님들과 재가불자들이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돕고, 결과적으로 사찰의 부담을 덜어 전통 다비문화가 맥을 이을 수 있도록 하는 ‘문화 불사’”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조계종과 흥국생명은 ‘불교 제례문화 확산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전국선원수좌회가 앞장서서 스님들의 ‘장례복지’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노덕현 기자



서울 도심에 불교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오픈

연화사, 1월 17일 'MJ 스튜디오' 유튜버 등에 공간·장비 제공
묘장 스님 "창작자에 노하우 지원"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서울 연화사는 1월 17일 'MJ 스튜디오'를 공식 개소하고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불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주지 묘장 스님과 불교 크리에이터들의 현판 점등식 모습.

불교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열린 스튜디오가 서울 도심에 마련됐다.

서울 연화사(주지 묘장 스님,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는 1월 17일 경내에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공간 'MJ 스튜디오'를 공식 개소하고, 유튜브나 팟캐스트 등을 운영하는 불자 크리에이터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MJ 스튜디오'는 묘장 스님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유튜브로 비대면 법회와 경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마련된 공간이다. 처음엔 카메라 한 대, 노트북 한 대로 시작했지만 이후 필요한 장비들을 갖추면서 이를 인연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들에게 제공해 왔다.

묘장 스님은 "크리에이터들이 열악한 장비나 환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MJ 스튜디오' 시설을 이용하면 훨씬 더 빛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공간을 개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묘장 스님은 'MJ 스튜디오'가 방송 공간만이 아닌 불교 크리에이터들의 창작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스님은 "유튜브 등을 처음 시작하려는 이들과 방향성과 콘텐츠를 함께 고민하고,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법적·세무적인 문제도 지원함으로써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MJ 스튜디오'에서 촬영과 방송을 하고 있는 불교 크리에이터들도 함께했다.

유튜브 채널 '비구니 연습생'을 운영하는 불교미술 작가 계소영 씨는 "대학원에 다니면서 7만원짜리 마이크와 다이소에서 산 삼각대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묘장 스님과의 인연으로 이곳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좋은 시설과 안정적인 공간을 제공해 주신 데 보답하는 마음으로 최대한 열심히 저의 몫을 다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유튜브 채널 '청요' 운영자인 불교미술 작가 이승현 씨는 "작업실이 없어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묘장 스님께서 좋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누구나 자연스럽게 불교미술을 접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340시간을 들여 제작한 졸업작품으로 유튜브 조회수 1000만 회를 넘긴 김성문 씨(채널명 ARTUBE_불교미술)도 'MJ 스튜디오'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김성문 씨는 "저만의 세계관을 담은 작품으로 불교미술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가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깨닫다' 등 불교적 메시지를 현대적인 디자인과 유머로 풀어내 큰 반향을 일으킨 해탈컴퍼니의 주여진 대표도 조만간 'MJ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예정이다.

묘장 스님은 "영상과 SNS의 영향력이 큰 시대인 만큼 크리에이터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며 "창작자들이 편안하게 활동하게 도와주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협업하게 함으로써 훨씬 더 풍부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각 사찰에서 유휴공간을 활용해 스튜디오를 만들고자 한다면 제가 가진 노하우를 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동산불교대,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신설

현대인 생활 패턴에 맞춤 교육
총 6학기 일반·심화 과정 운영
신규탁 학장·화강 스님 등 강의


신규탁 학장.

사단법인 동산반야회·동산불교대학이 한문 경전 위주의 전통 강원 교육을 한글로 풀어낸 '한글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해 현대인 맞춤형 불교 교육에 나선다.

동산불교대학(학장 신규탁)은 오는 3월 4일부터 서울 동산불교회관 2층 교육관에서 2년제 정규과정 '한글 불교전문강원'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한문 경전 해석 중심이었던 전통 강원 교육의 문턱을 낮춰 일반 불자들도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마련됐다. 특히 조선 시대 〈경국대전〉의 승과(僧科) 제도와 전통 강원의 커리큘럼을 계승하되, 한글을 사용해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맞게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은 봄·가을·겨울 각 4개월씩 1년 3학기(트라이매스터, Trimester) 제도를 도입해 총 6학기, 2년 과정으로 운영된다.

교육 과정은 '일반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뉜다. 일반과정은 한글 교재를 중심으로 불교 경전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둔다. 심화과정은 원문 대조와 주석서 강독을 통해 불교 강사를 양성하는 전문가 과정이다.

두 과정 모두 △원각경 △대승기신론 △능엄경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 전통 강원의 필수 교과목을 2년에 걸쳐 완독한다. 강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학습 접근성을 높였다.

강의진도 탄탄하다. 연세대 철학과에서 32년간 화엄과 선불교를 연구해 온 신규탁 학장이 원각경, 기신론, 금강경, 화엄경, 선문염송 등의 주요 과목을 직접 강의하며, 강백 월운 스님의 제자인 화광 스님이 능엄경 강의를 맡아 깊이를 더한다.

신규탁 학장은 "선교양종(禪敎兩宗)의 전통이 흔들리는 이 시대에, 화엄의 교학을 바탕으로 선(禪)을 실천하는 자교오종(藉敎悟宗)의 정신을 되살리고자 한다"며 "옛것을 익혀 새것을 만드는 온고지신의 정신으로 한국 불교의 새로운 교육 전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글 불교전문강원'의 모집 정원은 일반과정 20명, 심화과정 20명이다. 심화과정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일반과정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동산불교대학은 2026년 정규과정으로 선어록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선어록 교육과정'(매주 목요일)도 운영할 예정이다.

입학 및 수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동산불교대학 사무국(02-732-1206)으로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해외불교는 지금

中, 티베트 사찰 교육에 애국화 재교육 논란

티베트 불교 중국화 노력 추정
애국교육 강요·한문 불경 강조

중국 내 티베트 불교를 중국화하고 소위 '사회주의 가치'에 맞추려는 정책으로 인해 티베트 전역 사찰과 강원 등지에서 티베트어와 불경 대신 중국 당국의 애국화 재교육이 강조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월 17일 티베트 전문 뉴스매체인 '티베탄 리뷰'는 중국 당국의 보도 자료와 현지 소식통 등을 인용해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중국의 티베트 온라인 뉴스 서비스 '서장망'은 1월 16일, 쓰촨성 까르제(간쯔) 티베트자치주 데르게(더거)현에서 현지 종교계가 주관하는 '3가지 의식 연설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3가지 의식이란 중국 공산당에서 티베트 불교의 출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치교육 캠페인으로 △국가의식 △시민의식 △법치의식을 이른다. 해당 의식의 주요 골자는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고, 중국 공산당에 대해 충성하는 중국 시민으로서 공산당이 정의한 법치에 따르는 것을 가리킨다.

비슷한 시기에 티베트 자치구 로카(산난)시의 쌈얘사원에서도 중국 민족에 대한 강한 국가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관과 신축 과학관이 개관됐다.

행사 보고서에 따르면 총 26명의 스님들이 대회에 등록했으며 9명이 결승에 진출했다. 보고서는 "결승에서 참가자들은 '3가지 의식'이라는 주제를 충실히 따르고 자신의 수행과 결합해 국가 공용어인 중국어로 명확한 견해와 진솔한 감정을 담은 연설을 했다. 애국심과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표현해 탄탄한 정책 지식과 훌륭한 애국정신을 보여 줬다"고 보고했다.

로카시의 행사 보고서는 "삼예사원의 교육관은 민족단결과 애국심 고취를 위해 개관됐으며, 특히 티베트의 출가자 대중이 중국민족 역사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함양하고 민족 정체성을 강화하여 민족 결속, 종교 화합 및 사회 안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관 개막식에서 민족사 전문가인 탕둥은 "중화민족은 모든 민족의 공동노력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하며 "교육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전시를 통해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 간의 교류와 통합의 역사, 그리고 모든 민족이 중화민족의 통일에 기여한 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정치교육이 강화됨에 따라 티베트 불교 고유의 강원체계에 따른 교학연찬과 수행가풍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최근 강원교육에 필수적으로 애국교육을 넣을 것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티베트어가 아닌 한문으로 된 불경을 공부하는 교과과정을 의무적으로 학습할 것을 요구하면서 수백년에 걸쳐 이루어져 온 전통 강원체계가 붕괴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교학을 마친 후 개인 암자나 토굴에서 무문관이나 안거수행을 하는 것도 크게 제약을 받고 있다고도 전했다. 중국 당국은 최근 개인 수행을 위해 세워진 암자나 토굴을 철거하고, 강원 졸업시험에 '한전불전(漢傳佛典)'이라는 항목으로 한문 불경시험을 추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최근 티베트 불교사찰들에 대해 중국 당국의 정치적 재교육이 강화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 출처=티베탄 리뷰

감동, 즐거움, 쓸모 있는 인생수업을 위한 불교 강의

나를 비춰보는 가장 치열한 자기관리의 거울
2년제 한글 불교전문강원 (일반 · 심화과정)

강 좌 명		강의주제 및 교재	담당교수
1학년 (26년)	원각경 1학기(3월~6월)	인생이란 무엇인가? – 원각경경 · 현담 –	신규탁 (연세대 명예교수)
	기신론 2학기(7월~10월)	종교적 믿음의 본바탕 – 대승기신론 의기 –	〃
	능엄경 3학기(11월~2월)	명상의 근본 줄기와 총정리 –수능엄경주해 –	화광스님 (월운 강백 제자)
2학년 (27년)	금강경 1학기(3월~6월)	손에 잡히는 금강경 – 금강경 찬요 –	신규탁
	화엄경 2학기(7월~10월)	진리의 종합선물세트 – 주화엄법계관문 – – 화엄경나들이 –	〃
	선문염송 3학기(11월~2월)	선체험과 문학의 향기 – 정선선문염송설화 –	〃

◇ 개강일시 : 3월 4일(수) 14:00(심화과정), 19:00(일반과정)
◇ 모집정원 : 심화과정 20명, 일반과정 20명
◇ 수 강 료 : 학기당 24만원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강의 제공 예정

옛 스승들에게 배우는 마음경영 기술
선어록–지혜의 족보를 찾아보는 강의

	강 좌 명	교재 및 저자	담당교수
1학년 (26년)	마음 뿌리 찾기–위대한 스승들 1학기(3월~6월)	선문사자승습도: 규봉	신규탁
	한계를 뛰어넘는 몰입의 기술 2학기(7월~10월)	서장: 대혜	화광스님
	흔들리는 일상에서 마음 지키는 법 3학기(11월~2월)	서장: 대혜	〃
2학년 (27년)	허울을 벗고 나답게 사는 첫발 1학기(3월~6월)	선요: 고봉	신규탁
	인생의 주인이되는 결정적 지혜 2학기(7월~10월)	선요: 고봉	〃
	다섯 거장에게 배우는 유연한 사고법 3학기(11월~2월)	선문오종강요: 지안	〃

◇ 개강일시 : 3월 5일(목) 19:00
◇ 수 강 료 : 1학기 24만원(월 6만원)
※2026년 6월부터 온라인 강의 제공 예정

44년의 전통, 꿋꿋하게 지켜온 실천불교
3월 개강 – 특별 강좌

과목명	담당교수(강사)	개강일시	수강료
신법화론 (강의 영상자료 제공)	최봉수	3월 5일(목) 11:00 (기간: 3월~6월)	1개월 10만원
알고싶은 불교, 새로운 기본교리	신규탁	3월 7일(토)14:00 (기간: 3월~5월)	3개월 5만원
불교사상과 예술의 세계	강여울	3월 5일(목)14:00 (기간:3월~5월)	1개월 6만원
불교미술	법인 스님	3월 4일(수) 10:30 (1학기:3월~7월)	1학기 85만원
민화	문미영	3월 6일(금) 10:00 1학기: 3월~6월	1학기 60만원
전통범패의식	인각 스님	3월 10일(화)14:00 (1학기:3월~7월)	5개월 50만원
한글불교의식	문종순	3월 14일(토)13:00 (1학기:3월~7월)	1학기 30만원
행운을 부르는 인상학	김계화	3월 5일(목)15:00 (기간: 3월~5월)	1개월 5만원

불교교육 전법도량 (사단법인) 동산반야회 · 동산불교대학

대표전화: 02–732–1206 / (우)03150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45–11 동산불교회관

120돌 동국대, 1만 대학생 불자 양성·AI 혁신 나선다

1월 19일 건학 120주년 기자회견
지역미래불자장학, 영캠프 확대해
불교 인재 양성 지속 인프라 구축

교육 · 연구 · 경영 전반 AI 접목하는
'동악플랜' 가동…5년 220억원 투입
전 구성원에 생성형 AI 제공하기로

고전번역원 수주 '佛典私記' 집성 등
불교학 진흥 연구 사업 유치 주력
로터스관 건립 불사로 인프라 구축



올해로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 서울캠퍼스 전경. 동국대는 교육 · 연구 · 경영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동악(Dongguk AX) 플랜' 등을 통해 학교 발전의 동력을 만들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1월 19일 열린 2026년 건학 120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사장 돈관 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재웅 총장(오른쪽)과 문선배 총동창회장.



건학 120주년 기자회견에서 방중혁 기획처 기획예산실장의 브리핑을 주요 내빈과 기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올해 건학 120주년을 맞은 동국대(총장 윤재웅)가 대학생 불자 1만 명 양성을 선언했다. 또한 교육, 연구 및 학교 경영 시스템 전반에 AI를 접목해 혁신을 이룰 아젠다도 내놨다.

동국대는 1월 19일 서울캠퍼스 본관 건학위원회 회의실에서 '2026년 건학 120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계획과 향후 발전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윤재웅 총장, 문선배 총동창회장, 박기련 건학위원회 사무총장, 지정학 법인 사무처장, 김용현 교무부총장, 성정석 BMC 총장, 조영일 서울건학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방중혁 기획처 기획예산실장이 진행한 브리핑에 따르면 동국대는 건학 120주년을 맞아 '더 좋은 동국 더 나은 미래'를 슬로건으로 7개 분과 40개 세부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 도약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종립대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며 대학생 청년 불자를 양성하는 '건학 120주년 사업'과 교육·연구·경영 부문 전반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동악(Dongguk AX) 플랜', 세계 속의 동국을 위한 '동국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 사업이 동국대 향후 발전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청년 불자 양성과 건학이념 구현

건학 120주년 사업은 불교를 건학이념으로 둔 만큼 대학생 전법에 초점이 맞춰졌다. 동국대는 120주년인 올해, 2021년부터 시행 중인 지역미래육성장학 제도와 2024년부터 시작된 '주인공 영캠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8000명에게 총 43억원의 장학금을 전달한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을 확대해 장학생 활동을 격려하고 이를 영캠프와 연등행렬에 연계·참여하며 자연스럽게 수계에 동참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동국대는 "올해 '청년불자 1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사장 돈관 스님은 "동국인 1만 명 수계는 충분히 가능성 있는 목표"라고 자신했다. 스님은 "지역미래불자육성장학제도와 영캠프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고 있다. 실제 최근 학교를 다녀 보면 스님들에게 합장하는 학생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서 "서울캠퍼스 학생이 1만4000명, WISE캠퍼스 학생이 1만 명에 이른다. 지역의 미래 불자들과 청년 불자들을 양성하는 전법 인재 불사가 순항한다면 목표한 수치는 분명하게 이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1만 명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불자들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신심 있는 청년 불자들이 배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기련 건학위 사무총장 역시 "1만 명 목표는 매우 겸손하게 잡은 수치"라면서 "올해는 수계 인원 1만 명을 기본적인 목표로 삼고 내실을 기하는 해를 만들려고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신심을 고양하는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것에 사업의 방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5월 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는 동국대 120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건학 120주년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해 총무원장·원로의원·교구본사 주지 스님 등 불교계 주요 스님들과 정·관계인사, 대학 관계자 등 6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 △건학120년 역사를 정리한 건학 120년사 편찬 △디지털 역사관 구축 △엠블럼 제작 등을 추진한다는 게 동국대의 계획이다.

'동악 플랜'으로 AI 대전환

동국대는 AI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장기적 안목의 발전 아젠다인 '동악(Dongguk AX) 플랜'도 내놨다. 교육·연구·운영 등 학교 시스템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동악 플랜'은 2030년까지 2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0개 영역, 23개 세부과제를 추진하는 중장기 AI 혁신 로드맵이다. 이를 통해 △AI-네이티브 융합인재 배출 △글로벌 Top-티어 융합 연구 허브 도약 △무결점 데이터 행정 및 최적화된 스마트 캠퍼스 구현을 목표로 한다는 게 동국대의 계획이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전교생 대상 AI 기본교육 강화 △AI 기반 교육과정 통합 운영 플랫폼 구축 △(가칭)AI융합연구원 신설 △전 구성원 대상 생성형 AI 유료서비스 지원 △총장 직속 AX대응위원회(TF) 신설 등이 이뤄진다.

이를 위해 당장 1학기부터 학생, 교수, 교직원 등 학내 구성원에게 챗지피티, 제미나이, 클라우드 등 생성형 AI를 제공해 교육·연구·업무용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기존의 공통교양 '디지털리터러시' 영역을 'AI리터러시' 영역으로 개편하고 AI 관련 교양교과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윤재웅 총장은 "향후 동국대는 불교윤리와 AI 기술이 공존하는 선도적 AI 교육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터스관 건립 등 인프라 강화

학내 인프라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된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해 9월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건립 불사에 들어간 '로터스관'이다.

교육 연구 복합시설인 로터스관은 본관과 별관 2개동으로 구성된다.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3층(2422평), 별관은 지하 6층 지상 2층(5585평)으로 연면적 합계 2만6470㎡(8007평) 규모로 건립된다. 시설로는 △박물관 및 수장고 △선센터 △러닝 커먼스 △대형 교육공간 △명예의 전당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8년 8월 완공될 계획이다.

돈관 스님은 "새로 건립될 로터스관은 불교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고 불교 신행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는 동국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동국대에는 35만 명의 동문이 있다. 학내 구성원과 동문이 함께한다면 건립불사는 원만 회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선배 총동창회장은 "로터스관 건립 불사는 정말로 큰 사업이지만 동창회에서는 학교 발전을 위한 보람 있는 불사라고 생각한다"면서 "35만 동문을 대표해 적극적 지원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불교학 진흥을 위한 사업들도 진행된다. 오는 9월 3~4일에는 동국대 불교학술원·불교문화연구원 주관으로 '살아 있는 전통, 펼쳐지는 도전: 동아시아 불교와 그 너머'를 주제로 불교학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지속적인 연구 수주를 통한 불교학 인프라를 만드는 사업도 추진된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불교 관련 광범위한 문화 콘텐츠 텍스트들을 AI시대를 맞아 디지털 라이징화해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려야 한다"면서 한국고전번역원 연구 수주사업 〈불전사기(佛典私記)〉 집성 및 번역에 대해 소개했다.

〈불전사기〉는 전통강원에서 강론해 온 사집·사교·대교과 과목 전반에 걸쳐 자구·해석상 문제되는 부분을 밝힌 주석서다.

윤 총장은 "〈불전사기〉의 분량이 엄청나 이를 집성·번역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지만 분량과 내용이 지속성을 담보하고 있어 장기 연구 및 번역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교를 생활화·대중화하는 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교육"이라며 "동국대를 중심으로 한 불교교육연구소를 통해 시대에 맞는 불교교육법을 개발·보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도 역점

이와 함께 동국대는 '동국 글로벌 스탠다드(Dongguk Global Standard)'를 구축해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도 속도를 낸다. △외국인 전용 단과대학인 (가칭)국제대학 설립 △외국인 대상 온라인 학위과정 신설 △글로벌 전공연수 확대 등을 통해 국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한다.

윤 총장은 "불교 정신에 뿌리를 둔 건학이념을 AI와 글로벌 혁신으로 확장해 인류 사회에 기여하는 글로벌 리딩 대학으로 도약하겠다"며 "건학120주년인 2026년을 동국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 2026학년도 신(편)입생(학점은행제) 모집안내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유산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고 2009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불교의식, 불교음악, 불교무용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일반인 및 학승을 모집합니다.

교 과 과 정

학 과		교육 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담당교수
1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Ⅰ	월	오후1시~5시	○○	조인각 스님
2학년	상주권공	상주권공 Ⅱ	수	오후1시~5시	○○	이기봉 스님
3학년	각 배	각 배	목	오후1시~5시	○○	마일운 스님
4학년	영 산	영 산 재	금	오후1시~5시	○○	김태호 스님
불교의식 이론		영산재의 불교예술적특징	화	오후1시~4시	○○	심만춘 스님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 ◈수료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등 일반인
◈편입학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학점은행제과정 :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소지자(대학교 중퇴자 가능) 기타 시간제 등록 및 학점은행제 타 기관 수강자
■제출서류 | ◈수료과정 : 입학원서 (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1부
◈학점은행제과정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최종학력졸업(예정)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전형일정 | 2026년 1월 1일 ~ 2월 28일
■개 강 | 2026년 3월 첫째주 3월 3일 화요일
■전 형 료 | 50,000원(학생회비)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교학처 및 전화 접수 홈페이지 접수
■특 전 | 1. 졸업자에게는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영산재보존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 지정
2.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 혜택 부여, 국내외 공연 시 우선선발
3. 출가승려(법계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동방대학 2년졸업후 옥천범음대학 편입 하여 4학년 졸업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자격을 부여

국가무형유산 영산재 보유자 김구해, 회 장 조현성
보존회 부설 옥천범음대학장 김향천

03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Tel : 02)392-3234 Fax : 02)392-3239 홈페이지 : www.okchunbud.kr

부산불교, '불교문화 계승·자비 실천' 발원

부산불교聯, 병오년 신년하례회
500여 명 동참해 사업 방향 모색
정오 스님 "소통하는 열린 불교"
자비의 쌀 1만kg 지역사회 회향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hasm77@hanmail.net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부산불교의 발전을 기원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오 스님)가 병오년을 맞아 '불교문화 계승과 시민 공감, 국제 확산, 자비 실천'을 핵심 기조로 2026년 행보를 밝혔다.

부산불교연합회는 1월 21일 범어사 선문화관에서 2026년 부산불교계 신년하례회를 봉행하고, 사부대중이 한 자리에 모여 새해 서원과 실천 의지를 다졌다. 신년하례회를 통해 부산불교는 △전통 불교문화의 계승과 현대적 확산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불교 △국제적 문화 교류 속의 부산불교 위상 강화 △사회적 약자를 향한 자비 실천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으로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행사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을 비롯해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와 자관 스님 등 연합회 집행부 스님들과 부산 지역 각 종단 대표 스님들이 참석했다. 또 부산시 구·군 불교연합회 회장단과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산 스님 등 불교계 주요 기관·단체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했다. 아울러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을 비롯한 재가불자들과 경윤호 부산시 정무특별보좌관,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 백종헌 국회의원, 변성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등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불자 5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정오 스님은 신년사를 통해 부산불교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했다. 정오 스님은 "불교문화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은 부산불교의 근간"이라며 "시민과 공감하고 국제 사회와 소통하는 열린 불교, 그리고 자비 실천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불교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교문화의 계승과 확산을 통해 부산이 가진 역사·문화적 자산을 더욱 풍요롭게 하고, 시민의 삶 속으로 불교가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수석부회장 용암 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어려움이 이어지는 상황일수록 불교의 자비와 화합의 정신이 더욱 절실하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실천을 이어 갈 때 부산불교의 원력은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부회장 혜진 정사는 고불문을 통해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스며 상생과 화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발원했다.

상임부회장 자관 스님은 "부산과 시민 모두가 평안하고, 불교의 가르침이 일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이윤희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은 "병오년 한 해는 나눔과 실천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부산불교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부산불교 발전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한 부산광역시장 표창 시상도 함께 열렸다. 수상자는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의 강태산 전 사무국장과 김태만 부산불교방송사진 가회장으로, 두 수상자는 불교 포교와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 부산불교의 위상을 높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아울러 신년하례의 의미를 실천으로 잇는 '자비의 쌀 나눔' 전달식이 진행돼 부산불교연합회가 쌀 1만kg을 지역사회에 회향했다.

성파 스님 "이미 갖추고 있다, 모두가 부처!"

통도사 화엄산림 회향 법회
불자 체육인 10명 장학금도


통도사의 화엄산림 회향 법회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화엄경〉을 봤나?" "들었나?" 대중의 응답이 이어진 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가 다시 물었다.

"그러면 〈화엄경〉을 먹었나."

잠시 침묵이 흘렀고, 대중은 "못 먹었습니다"라고 답했다.

성파 스님은 "먹는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먹는 것"이라며 "이미 다 갖추고 있고, 오늘 마음을 먹었으니 이 자리에 모인 대중 모두가 부처임을 증명한다"고 법문했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1월 18일 경내 설법전에서 화엄산림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회향 법회에서 성파 스님은 구중(九重) 구품(九品) 구중궁궐의 비유를 들어 "이 도량이 왜 화엄 도량이며, 왜 대중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부처인지를 몸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설했다.

성파 스님은 통도사 가람 구조를 언급하며 "상로전 중로전 하로전이 각각 세 법당씩 있어 삼삼이 구가 된다"며 "이는 구품연대를 갖춘 도량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구품연대는 부처님이 머무는 자리"라며 "그런데 이 구품연대가 도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몸에도 그대로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성파 스님은 대중을 향해 눈 코 귀 입을 짚어 보이며 "사람 몸에는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며 "이것이 바로 구중이고, 구중궁궐이며, 구품연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앞으로 태어날 사람이나 모두 이 구중을 타고난다"며 "이미 몸이 부처님이 머무는 도량"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마음을 먹고 있으면 그대로 부처의 자리지만, 마음이 흐트러지면 부처가 떠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했다. 또 "〈화엄경〉을 보고 듣는 데서 멈추면 아직 덜 한 것이고, 마음으로 먹는 순간 그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날 통도사는 불자 체육인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전달식을 마련해 총 1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기도 했다.

장학금은 학업과 체육 활동에 성실히 임하고 있는 불자 체육인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김민수 합포중 학생이 대표로 받았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우리말 금강경 독송으로 재가안거 수행

부산 15개 사찰 300여 명 참석



도심 법당에 모인 사부대중의 목소리가 '우리말 금강경'으로 이어졌다. 승가 수행의 영역에 머물던 동안거 수행을 재가 공동체의 수행으로 확장하려는 조계종부산연합회의 노력이 반야의 지혜를 새기는 〈금강경〉 독송 정진으로 구체화됐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목종 스님)는 1월 16일 대광명사 도심법당에서 '을사년 재가 동안거 우리말 금강경 독송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이번 법회는 재가불자들이 수행의 주체로 서는 재가안거 전통을 생활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의 장으로 마련됐다.

법회에는 대광명사, 미타선원 등 부산 지역 15개 사찰의 재가불자 300여 명이 동참했다.

회장 목종 스님은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해탈과 열반으로 이끄는 주된 가르침"이라며 "반야란 세상과 나를 실체로 고정해 바라보는 인식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지혜"라고 설명했다.

〈금강경〉 독송 후에는 명경문화재단 이사장인 주석 스님이 '명상'을 주제로 특별 강연도 펼쳤다.

주석 스님은 "명상은 걷고 숨 쉬고 일상을 살아가는 전 과정"이라며 "어느 순간에도 수행이 아닌 때는 없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동련 신임 이사장에 미수 스님

1월 15일 이사회서 선출



사단법인 동련이 1월 15일 열린 이사회를 통해 미수 스님〈사진〉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미수 스님은 어린이 포교와 불교교육 현장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왔으며, 동련의 주요 사업과 운영 전반에 꾸준히 참여해 왔다.

신임 이사장 선출을 계기로 동련은 어린이 포교의 기반을 보다 안정적으로 다지기 위한 조직 정비와 중장기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동련은 이번 이사회를 통해 어린이 포교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센터 건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중점 과제로 삼아 체계적으로 검토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올해 예산 심의, 정관 변경 등의 안건도 함께 상정돼 원안대로 승인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부산생명나눔·부산전문장례식장 업무협약

생명 존중 · 사회복지 증진 노력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산 스님, 이하 부산생명나눔)가 부산전문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부산생명나눔은 1월 16일 홍법사에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사진〉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전문장례식장은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의 기증회원과 후원회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장례식장 시설 이용과 장례 용품 구입 시 할인 등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난치병 환우 치료비 지원을 위한 정기 후원을 약정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스님의 마지막을
여법하게 모시는 장례 서비스
대한민국 最高의 불교장례서비스
'연화회'와 '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합니다.

불교를 아는 언론포교사 '현대불교신문'
- 행장 및 업적 정리, 보도자료 생산, 부고
- 추모 리플렛, 호외 발행, 언론사 응대 등
- 영결·다비식의 각종 실무 지원
믿을 수 있는 언론포교사가 전담합니다.
취득한 정보는 절대 유출되지 않습니다.
상담문의 010-4727-6065

반세기 원력, 어린이 포교로 피어나다

지역 불교人 광주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상인 스님 인연으로 유치원 운영
어린이 포교는 강권 아닌 기다림
"행복해지는 삶, 가르치는 게 중요"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 지역 유일 불교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

광주 도심 한복판,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염불 소리가 함께 어우러지는 사찰이 있다. 광주 유일의 불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지역 포교의 한 축을 묵묵히 지켜 온 연화사다. 연화사 주지 명신 스님은 수행자이자 교육자, 그리고 광주불교의 산증인으로 살아온 인물이다.

연화사의 시작은 특별하다. 1966년 광주 관음사 주지였던 상인 스님은 광주 동구에 자리한 지산동 5층 석탑의 보존 필요성을 절감했다. 보물로 지정된 이 석탑은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았지만 관리 여건은 녹록지 않았다. 1975년 '광주동5층석탑보존위원회'가 설립되고, 석탑을 보존할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유치원 건립이 추진되면서 명신 스님과의 인연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1979년 연화유치원이 완공됐고 이를 토대로 연화사가 창건됐다. 명신 스님은 "처음에는 유치원을 맡아 운영할 사람이 없어 상인 스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다"며 "출가 후에는 조용히 기도하며 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인연 따라 아이들과 함께하는 길을 걷게 됐다"고 회상했다.

1984년 연화사 주지로 부임한 후 명신 스님은 사찰의 기틀을 하나하나 다져 왔다. 주변에 있던 22채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대웅전과 주요 전각을 중창했다. 신도 9명으로 시작했던 작은 도량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오가는 생명력 넘치는 공간이 됐다.

"저는 지금까지 신도들에게 '절에 와서 기도하세요'라고 초청장을 보내거나 알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부처님을 모시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스스로 마음이 움직이면 그때 오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신 스님의 포교관은 '기다림'이다. 도심 한복판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포교는 시작됐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스님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가르침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행복해지는 삶'이다.

"불교는 혼자만 잘 사는 종교가 아닙니다. 나와 상대가 함께 이로워지는 길을 가르치는 가르침이지요. 우리 모두는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지닌 소중한 존재입니다."

연화사의 또 다른 축은 지산동 5층 석탑 보존과 다례재 봉행이다. 연화사는 이 석탑을 지키기 위해 창건된 사찰이라는 점에서 출발부터 남다르다. 이 일대는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 스님이 출가한 무량사 터로 알려져 있으며, 상인 스님과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뜻을 모아 석탑 보존 운동을 펼쳐 왔다.

명신 스님은 석탑 보존에 늘 정성이었고 2011년부터는 매년 음력 3월 3일 이곳에서 '일연선사 추모 다례재'를 봉행해 오고 있다. 단순한 의례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불교 정신을 되새기는 수행의 장이다.

미래를 향한 명신 스님의 시선은 분명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아 교육입니다. 청소년, 청년도 중요하지만, 어릴 때부터 불교를 만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통영 연화사, 삼존불 점안·만일기도 회향

1월 15일 대웅전서 점안 법회
도법 스님 "기도도량 자리매김"


통영 연화사는 1월 15일 대웅전에서 아미타 · 관음 · 지장 삼존불과 아미타칠성여래불을 점안하고 만일기도를 회향했다.

통영 연화사(주지 도법 스님)는 1월 15일 대웅전에서 아미타·관음·지장 삼존불과 아미타칠성여래불을 점안하고 만일기도를 회향했다.

법회에는 의정부 성불사 회주 도서 스님과 옥천사 진성 스님, 약사전 성혜 스님, 도선사 도심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약수암 수운 스님, 보광사 연산 스님, 용궁사 환희 스님, 여래사 불암 스님, 심적사 종범 스님, 의왕사 진행 스님, 자비사 정신 스님, 금탑사 정왜 스님 등 지역 스님들과 안휘성 통영거사림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주지 도법 스님은 "연화사 창건 이래 이어져 온 천일기도와 중창불사를 바탕으로 오늘 만일기도를 원만히 회향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이번 불사를 계기로 부처님 개금과 복장 의식을 새롭게 함으로써 도량의 위상을 재정립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불사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 큰스님들과 도선사 주지 도심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더욱 정진해 연화사가 기도와 수행 도량으로 굳건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불사를 이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성불사 회주 도서 스님은 법문에서 "오늘 연화사 도량에서 제방 스님들과 사부대중이 함께 모여 부처님 전에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큰 복덕"이라며 "도량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정성, 세월 속에서 쌓인 기도의 힘이 모여 이루어진다. 만일기도 회향을 계기로 각자의 삶 속에서도 마음을 닦고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의 회향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라며 "연화사가 수행과 자비 실천의 중심 도량으로 더욱 발전하길 발원한다"고 축원했다.

참석자들은 삼존불 및 아미타칠성여래불 점안을 축하하고 만일기도 회향의 공덕을 함께 나누며, 연화사가 지역을 대표하는 기도 도량이 될 것을 발원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강 대종사, 본사 용주사로 모시다

전강 스님 열반 51주기 추모재
용주사서 첫 봉행…"선양 최선"



한국불교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며 선풍을 진작시켰던 전강 대종사의 열반 51주기 추모재가 1월 20일 스님의 수행 정신이 서린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주지 성효 스님)에서 봉행됐다.〈사진〉

이번 추모재는 그동안 인천 용화선원에서 거행되던 관례를 깨고, 전강 대종사를 '정신적 지주'로 모시는 용주사가 교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직접 봉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전강 스님의 법맥을 이은 송담 스님이 '법인법' 제정 과정에서 탈종한 이후, 대종사의 선양 사업이 정체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본사 차원에서 스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계승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용주사 관음전에서 봉행된 추모재에는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용주사 상임운영위원장 세영 스님(수원사 회주), 중앙선원 수좌 스님들, 그리고 본·말사 대중 스님들이 대거 참석해 대종사의 높은 덕화를 기렸다.

참석 대중을 대표해 인사말에 나선 세영 스님은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용주사 본·말사 대중이 하나로 화합하고, 수행과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보은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관음전에서의 의식을 마친 대중은 경내 사리탑(부도탑)으로 자리를 옮겨 참배를 이어 갔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오늘날의 용주사를 있게 한 전강 대종사의 추모재를 이제야 본사에서 모시게 된 것에 대해 후학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용주사의 위상을 바로 세우고 선양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홍승도 경기남부지사장

자현 스님 "지역 핵심 포교사찰 발돋움"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
1월 18일 주지 취임법회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 강릉포교당 관음사는 1월 18일 극락전에서 신임 주지 자현 스님〈사진〉의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관음사의 새로운 도약과 미래 100년을 기원했다.

이날 취임법회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월정사 만월선원 한주 증도 스님, 상원사 해량 스님, 대구 정토사 대원 스님, 강릉 법왕사 유엄 스님(전 관음사 주지), 월정사 재무국장 덕엄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동림선원 대중 등 800여 명이 함께했다.

정념 스님은 축사를 통해 "근대 한국불교 3대 도심포교당의 하나인 관음사는 월정사의 관문이자 도심포교의 상징적인 사찰"이라며 "대중 신행과 포교를 이끌어 온 자현 스님의 취임은 관음사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뜻깊은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창조적인 신행 포교로 강릉불교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신임 주지로 취임한 자현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관음사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금천관 개축불사를 통해 '강릉 7일 살기' 템플스테이를 활성화하고, 포교·인문·관광이 어우러진 명주문화권의 핵심 포교사찰로 관음사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관음사는 자현 스님의 취임을 기념해 강릉시에 10kg 백미 160포를 전달하는 자비행을 실천했으며, 오후에는 제24기 관음사 불교대학 졸업식을 봉행해 의미를 더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제70기 월정사 출가학교 입재

17~65세 행자 30명 입교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는 1월 13일 '제70기 월정사 출가학교' 입재식을 봉행하고 4주간의 수행 여정을 시작했다.〈사진〉

이번 출가학교에는 17세 최연소 참가자부터 65세 최고령 참가자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30명(남 21명·여 9명)이 입교했다. 참가자들은 한 달 동안 예불과 운력, 선 명상, 발우공양, 교리 강의, 오대 순례, 묵언 수행 등 실제 승가의 일상과 수행을 체험하게 된다.

입재식과 함께 봉행된 입학 고불식에서 월정사 한주 혜안 스님은 "출가학교는 마음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라며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큰 변화가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주지 정념 스님은 1월 14일 삭발식 법문에서 "출가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내려놓고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라며 "4주간의 공동 수행을 통해 자신의 마음 씀씀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고 알아차리는 수행의 힘을 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동격 강원지사장

문경세계명상마을, 청년명상캠프 성료

1월 12~18일 7일간 진행



문경세계명상마을(선원장 각산 스님)은 1월 12일부터 18일까지 7일간 '2026 MZ청년명상캠프'를 개최했다.〈사진〉 이번 캠프는 문경세계명상마을 최종 사용승인 후 새해를 맞아 진행된 첫 수행 프로그램으로 '선칠(禪七, 7일간의 집중 수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에는 3: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20세부터 44세까지 60명의 청년이 동참했다.

청년들의 수행열기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도 방문해 격려했다.

진우 스님은 "7일간의 명상 공덕으로 앞으로 각자가 세운 서원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격려했다.

선원장 각산 스님은 "이 프로그램이 청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여수불교사암연, 신년하례법회 봉행

1월 17일 여수시청 강당서



여수불교사암연합회(회장 연규 스님, 향일암 주지)는 1월 17일 여수시청 대강당에서 '불기 2570년 여수불교 신년하례 법회'를 봉행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원만성공을 발원했다.〈사진〉

여수시청불자회의 주관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회장 연규 스님과 흥국사 주지 진만 스님, 부회장 도해 스님(달마사 주지) 등이 참석했다.

연규 스님은 "각자 마음속 붉은 말을 잘 길러 그 말 위에 누가 올라타 있는지, 제대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천안불교사암연, 3대 포교 과제 발표

1월 17일 신년하례법회서



천안불교사암연합회(회장 도언 스님)는 1월 17일 천안 만수사 대웅보전에서 신년하례법회를 열고 올해 3대 포교 과제를 발표했다.〈사진〉

이날 법회에는 천안불교사암련 원로의장 지산 대원 대종사와 회장 도언 스님을 비롯한 지역 스님들, 김선태 충남도의원, 구본영 전 천안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추진할 세 가지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스님은 "사찰 간 상호 화합과 존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난해 봉축행사와 불우이웃돕기 일일 찻집을 통해 다져진 연합의 결속을 올해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전주 화엄불교대학·학림원 졸업식

1월 18일 49명 졸업생 배출



전주 화엄불교대학(학장 화평 스님, 금산사 주지)이 제37기 화엄불교대학과 제29기 화엄학림원 졸업식을 봉행했다.

1월 18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열린 이날 졸업식에서 화엄불교대학 제37기 24명, 화엄학림원 29기 25명 등 총 49명이 졸업했다.

화평 스님은 졸업식사를 통해 "이웃들에게 넉넉한 마음으로 솔선수범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불자로서 도리를 다한다면 능히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보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교문화포털, 교계 언론 탑재로 '고도화'

동국대 불교학술원, 포털 뉴스보드 시연회

3차 고도화 사업 진행 통해
본지 등 5곳 언론 기사 탑재
검색 기능 추가 등 '리뉴얼'
오는 3월 중 정식 오픈 예정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한국불교문화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디지털 플랫폼인 '한국불교문화포털'이 고도화 작업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다가간다. 불교계 주요 언론들의 최신 뉴스를 비롯해 학술·문화유산·기록유산 등의 정보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불교 종합 포털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묵 스님)은 1월 21일 '한국불교문화포털 뉴스보드 시연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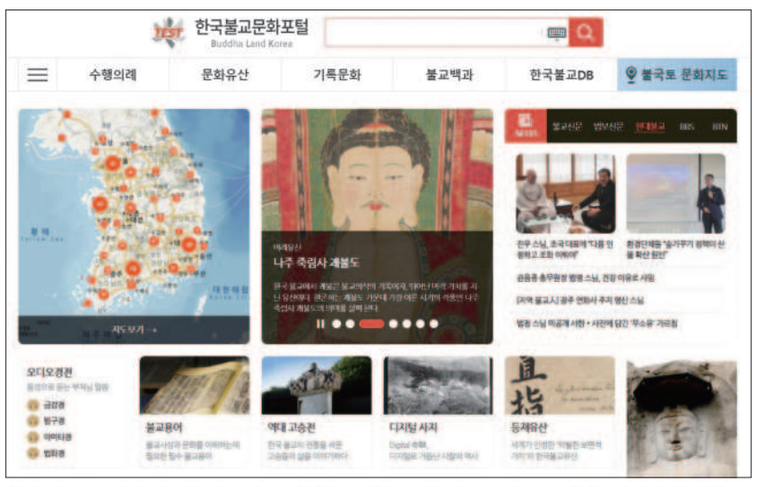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운영되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현재 베타 테스트 단계로 서비스되고 있으며 3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운영 4년차를 맞는 '한국불교문화포털'은 한국불교의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수집·가공해 지리정보(아틀라스) 기반으로 제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한 불교사상을 이해하는 필요한 불교용어부터 △역대 고승전 △디지털사지 △역대고승전서 △오디오 경전 △한국불교 대표문헌 △등재유산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고도화 작업은 불교 현대사 기록 매체로서 가치를 가진 불교계 주요 언론의 최신 뉴스를 포털에 뉴스보드 형식으로 탑재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포털에 탑재되는 교계 언론은 현대불교신문을 비롯해 불교신문, 법보신문,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등 총 5곳이다.

K-Buddhism 문화콘텐츠 플랫폼 구축 사업단(단장 박인석, 이하 KB사업단)에 따르면 교계 뉴스 보드는 메인 페이지 상단에 노출되며 최신 뉴스를 주기적으로 수집해 제공하게 된다. 각 언론사별로 최신 기사 4~5건이 1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며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동되는 방식이다. 각 언론사는 불교학술원 KB사업단과의 협의를 거쳐 오는 2월 9일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도윤수 KB사업단 정보기술팀장은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불교 언론 뉴스는 제대로 노출되고 있지 않다. KB사업단에서는 교계 언론만을 위한 뉴스 제공 서비스를 진행하려 한다"면서 "각 언론사와의 실무 협의를 거쳐 3월 1일 본격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포털을 리뉴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테스트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불교문화포털 메인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본지를 비롯한 주요 교계 언론 기사가 노출되는 뉴스보드가 새롭게 탑재될 예정이다.

이어 "올해부터는 4차 고도화 작업을 통해 전면적인 디자인 개편이 이뤄진다. 상반기 중으로 개편을 마치면 테스트 버전이 아닌 포털을 정식으로 운영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수 KB사업단 불교백과팀장은 "불교 포털이 없던 것은 아니다. 앞서 '달마넷' 등이 있었지만 공공성보다는 상업성이 강해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한국불교문화포털은 동국대가 중심이 돼 공공 목적으로 개발·운영 중이다. 교계 언론도 공공성을 강한 만큼 두 기관이 지향하는 바를 하나로 모아 낸다면 높은 시너지 효과 가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KB사업단은 뉴스 보드와 함께 검색 기능도 추가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박인석 KB사업단장은 "지난 4년 동안 자료들이 어느 정도 축적될 때까지 검색 기능을 추가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료 전반의 축적이 많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검색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면서 "주제어를 입력하면 한국불교문화포털뿐 아니라 네이버, 구글 등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포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했다.

서불대, 나가난다 국제불교大와 MOU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서
5년간 교류, 연구사업 진행

서울불교대학원대학(총장 황동필)이 스리랑카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부총장 보다가마 찬디마 스님)과 교류·연구 사업을 전개한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은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과 양국 불교 교육의 발전과 학술적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이를 기념하는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스리랑카 현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황동필 총장을 대표해 불교학과 학과장이자 불교와심리연구원장인 정준영 교수가 참석해 협정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교육 및 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유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학술적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향후 5년간 교수 및 학생의 상호 교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수행, 연구 자료 및 출판물의 교환, 국제 심포지엄 및 학술회의 공동 개최 등 7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경계를 넘어서는 불교 명상(Buddhist Meditation across Boundaries)' 이라는 주제의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최근 수십 년간 불교 명상이 전통적인 수행의 틀을 넘어 심리학, 교육, 치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는 현상을 다루었다. 참가자들은 명상의 전통적 뿌리를 고수하면서도 현대 사회의 요구에 창의적으로 응답하여 인류의 웰빙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비록 현장에는 참석하지 못했으나 황동필 총장은 서면 메시지를 통해 "이번 협약이 인류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불교 교육과 연구를 발전시키는 지적 동반자 관계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축하의 뜻을 전했다.

양 기관은 이번에 발간된 학술대회 논문집을 기초로, 지속 가능한 학술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이어 갈 계획이다.

신중일 기자


서울불교대학원대학 불교학과장 정준영 교수가 1월 13일 스리랑카 현지에서 나가난다 국제불교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대행선연구원 불교학 진흥사업 '주목'

묘공학술상 공모 방식 변경
'한마음연구' 논문 게재 시
학술상 후보로 심사 대상돼
장학생 공모, 3월 1~31일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선사상과 한국불교학 진흥을 위한 대규모 학술공모사업이 올해에도 이어진다.

한마음선원 부설 대행선연구원(원장 혜선 스님)은 "대행선 사상 연구와 불교학 진흥을 위한 학술대회와 학술상, 장학금 공모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교화에 힘쓴 대행 선사의 법호인 '묘공'을 인용해 제정된 '묘공학술상'은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앞두고 공모·선정 방식이 대폭 변경됐다.

그간에는 예비 선정자를 선발해 집필계약을 하고 1년의 논문 작성 기간을 두고 접수된 논문을 심사했으나 앞으로는 이전 연도에 발행된 〈한마음연구〉에 게재된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행 선사 탄신 100주년을 맞는 2027년 6월에 시상하는 제9회 묘공학술상의 심사 대상은 〈한마음연구〉 제17집(2026년 8월 발행)과 제18집(2027년 2월)이다. 올해 모집하는 〈한마음연구〉 특별 주제는 '대행 스님과 한국사회', '대행 스님과 한국불교의 미래'다. 특별주제가 아니어도 게재 논문은 모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심사를 거쳐 대상 수상자 1명에게는 10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7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제8회 묘공학술장학생 공모도 이뤄진다. 불교학 및 대행선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거나 논문 작성을 계획 중인 대학원 재학생 및 박사 과정 수료 후 3년 이내인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선발 공모 기간은 3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공모 신청방법은 대행선연구원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마음연구〉 원고 모집도 연중 이뤄진다. 투고 자격은 박사 과정 이상의 선학, 불교학, 불교 관련 인문학·이공학 등의 연구자이며 투고는 연중 접수 받는다. 〈한마음연구〉는 연회비, 심사비, 게재료 등을 받지 않으며 게재 완료 시 연구자에게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한다.

대행선연구원은 "대행 선사의 사상과 교화행을 이어받아 가르침을 널리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학 진흥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불교학 발전과 대행선 연구 진작을 위해 불교학 관련 연구자들의 적극적 동참을 바란다"고 전했다.

신중일 기자

군포 정각사학술원 신진 연구자 모집

지원 서류 접수 2월 1~20일
매월 연구비 100만원 지원

군포 정각사학술원(원장 정엄 스님, 정각사 주지)이 젊고 유능한 불교학 연구자를 공개모집한다.

정각사학술원은 "불교학 신진 연구자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선발되면 1년간 월 100만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지원자격은 박사학위를 취득·수료한지 2년 이내, 45세 이하이거나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면서 한국연구재단인증 KCI 등재지에 논문 1편 이상 발표한 출·재가 연구자이다. 다만 월 100만원 이상 고정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이 제한된다.

제출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연구성과 목록, 연구계획서, 신행계획서이며, 출가자의 경우 승려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1차 서류 접수는 2월 1일부터 20일까지 이메일(so000113@naver.com)을 통해 받으며 2차 면접은 2월 25일 오후 1시 정각사 상담실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한다.

신중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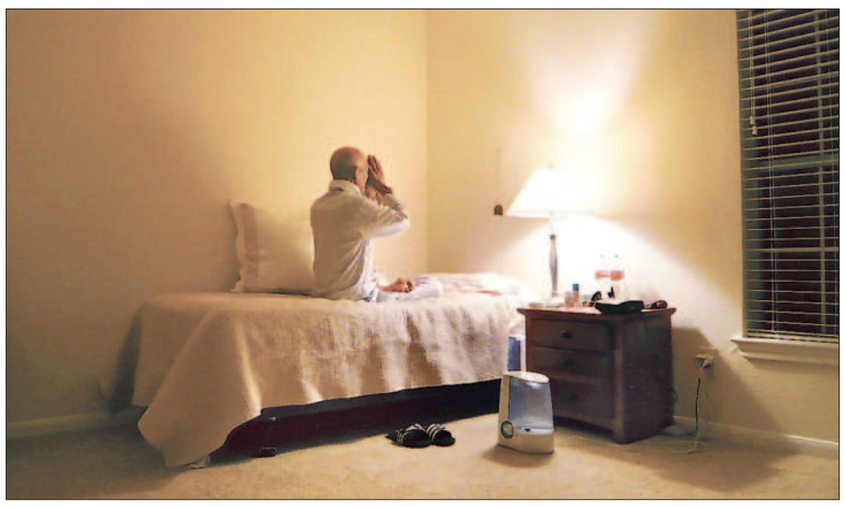


연기를 보면 곧 진리를 본 것이다!
쫑카빠의 연기찬 주석
쫑카빠는 불교의 가장 기본 사상인 '연기'를 52개의 간략한 게송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짱캬 롤빼돌제가 주석을, 역주자가 알기 쉬운 설명을 붙였다.
쫑카빠 게송, 짱캬 롤빼돌제 주석, 정성준 옮김/신국판/316쪽/값 20,000원
대승의 기원을 다룬 기념비적인 책!
불교와 에크리튀르
서양 인문학의 첨단 이론을 과감하게 접목하여, 대승불교의 역사를 사상사뿐 아니라 사회사의 관점에서 혁신적으로 재해석하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모다 마사히로 지음, 박현진 옮김/신국판/480쪽/값 28,000원
불교사상과 최신 생물학의 연관성을 탐구!
다르마와 DNA
저명한 진화생물학자인 저자가 DNA라는 구체적 실험 대상을 통해 불교의 명제를 과학적으로 검증하여, 불교사상의 원리와 논리의 타당성을 뒷받침한다.
디 덴버 지음, 이동수 옮김/신국판/360쪽/값 24,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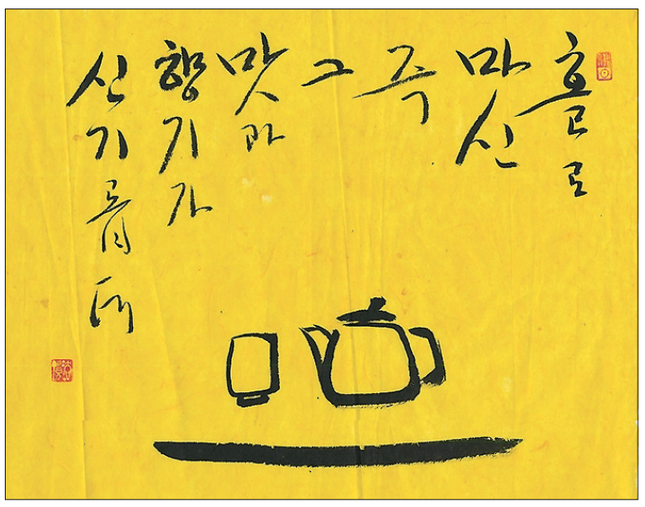
법정 스님 일상에 담긴 '무소유' 가르침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
1월 19일~3월 21일 열려
미공개 선묵 10점 공개돼
"무소유문학관 마중물 되길"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맏상좌 덕조 스님이 촬영한 법정 스님. 스님은 주위의 권유로 미국에서 폐암 수술을 받고 투병하던 중에도 기도를 잊지 않았다. 사진 제공=맑고향기롭게



법정 스님이 홀로 차 마시는 즐거움을 글과 그림으로 남긴 선묵 작품. 사진 제공=맑고향기롭게

"물을 움켜뜨니 달이 손안에 있고, 꽃을 만지니 향기가 옷깃에 스미네. 옛 선사의 노래. 오늘 우리들은 얼마나 건조한 정서 속에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하네. 먹이 남아서 붓장난 했네."

'무소유'의 가르침을 남긴 법정 스님의 미공개 선묵(禪墨)과 육필 서한, 사진들이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된다.

사단법인 맑고향기롭게(이사장 덕조 스님, 길상사 주지)는 1월 19일 서울 길상사 맞은편에 위치한 갤러리 스페이스 수퍼노말에서 '우리 곁에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를 개막했다.

이번 전시는 법정 스님의 열반 16주기를 맞아 스님이 남긴 '맑고 향기로운'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도록 마련됐다. 앞으로 길상사에 건립될 '무소유문학관'의 마중물이기도 하다.

전시에는 법정 스님이 그린 선화 10여 점과 육필 서한 90여 점, 맏상좌 덕조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 20여 점 등이 선보인다. 1970년대 봉은사 다래헌에 주석하던 시절 대학생 불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덕조 스님과 이해인 수녀에게 보낸 편지 등에는 법정 스님의 다정다감함 그대로 담겨 있다.

이번 전시를 위해 순천 불일암에 있던 '빠삐용 의자'도 첫 서울 나들이를 했다. 법정 스님이 불일암에서 땔나무로 만든 '빠삐용 의자'는 지난해 11월 '예비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덕조 스님은 "풍요의 시대에 참된 위로를 주는 향기, 그것이 바로 법정 스님이 남기신 '무소유의 향기'"라며 "이번 전시는 은사 스님의 '무소유'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고자 하는 저의 작은 기도이자 감사의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 스님의 자취를 느끼고자 길상사를 찾는 분들이 은사 스님의 사상과 문학을 가슴에 담고 갈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무소유문학관'을 건립하고자 원을 세웠다"며 "오늘 전시가 그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소유문학관'은 법정 스님의 육필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스님의 가르침을 느끼고 조용히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명상의 공간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전시를 기획한 길정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이사는 "이번 전시는 신도분들의 기증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며 "전시를 계기로 문학관에 소장될 스님의 흔적들이 더 많이 기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현정 성균관대박물관 학예실장은 "법정 스님은 때로 자신이 쓴 글을 '붓장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의미의 집착을 비워 내고 글을 하나로 놀이로 환원하려는 실천적 태도"라며 "이번 전시는 '붓장난의 미학'을 되새기는 자리로, 스님의 사유가 품은 자유로움과 인간적인 온도를 새롭게 조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식에는 법정 스님의 친필 서한을 기증한 백경임, 유영숙, 송정숙 불자도 참석해 스님과의 인연을 회고했다. 백경임 불자는 "대학생불교연합회의 봉은사 수련회로 스님과 인연을 맺게 돼, 이후 자주 찾아뵙고 편지를 드렸다"며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편지들이지만, 더 많은 분들이 스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우리 곁에 법정 스님, 붓장난' 전시는 3월 21일까지 계속된다.



법인 스님의 **문자반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과의 법칙

㉗ 불매인과(不昧因果)

不 昧 因 果

우리 사회에는 학력·재력·권력을 두루 갖춘 이른바 '그럴듯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 형벌을 받고 결국 몰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하고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해 사형을 구형받는 현실은,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준다. 선인선과(善因善果) 악인악과(惡因惡果), 선한 행위에는 복이 따르고 악한 행위에는 반드시 벌이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종교적 진리든 세속의 법질서든 행위에 따른 결과는 분명하다. 그럼에도 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자신만은 그 법칙을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이들이 있다. 중국 선종 사서인 〈무문관〉 제2칙은 이러한 착각을 단호하게 경계한다.

백장 화상(749~814)이 법문을 할 때마다 한 노인이 늘 대중 속에 섞여 듣고 있었다. 대중이 흩어질 때면 그도 함께 물러났지만, 어느 날은 홀로 자리에 남았다. 백장이 그의 정체를 묻자 노인은 이렇게 답했다.

"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섭불 시대에 이 산에서 수행하던 자였습니다. 그때 한 수행자가 '큰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라고 물었고, 제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不落因果)'고 답한 탓에 오백 생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습니다. 이제 화상께서 한마디로 저를 제도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는 다시 물었다. "큰 수행자도 인과에 떨어집니까?"

백장은 짧게 답했다. "인과를 어둡게 하지 않는다(不昧因果)."

그 순간 노인은 크게 깨달았다. 그는 절하며 말했다. "이제 여우의 몸에서 벗어났습니다. 산 뒤에 머물고 있으니 출가 사문의 예로 장례를 치러 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누구도 인과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오히려 깨달을수록 인과를 더욱 분명히 보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인과를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이치를 분명히 알아 스스로의 행위를 삼간다.

〈맛지마니까야〉에서도 같은 가르침이 전해진다. 최상위 계급인 바라문만이 위대하고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는 주장에 대해, 붓다는 이렇게 묻는다.

"만일 수드라(왕족 계급)가 살생하고 도둑질하며 거짓말하고, 이간질과 욕설을 일삼고, 탐욕과 악의를 품으며 그릇된 견해를 지닌다면, 그는 죽은 뒤 불행한 곳, 파멸처, 지옥에 태어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바라문이라고 다르겠는가?"

질문을 받은 바라문은 그러한 과보를 자신들 역시 피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불락인과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가 인과의 법칙 안에서 자유롭고 복되게 살고자 한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씀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불매인과! 엄숙하고 서늘한 일침이다. 함부로 행동하면 큰일 난다.

〈화순 불암사 주지〉

국립춘천박물관 명품 유산들 만나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큐레이터 전시 설명회 진행
1월 프로그램은 '유점사 종'



1월 '춘박 명품 톺아보기'에서 소개되는 유점사 종.

국립춘천박물관(관장 이수경)이 새롭게 단장한 브랜드실 등을 중심으로 큐레이터 전시 설명회를 연중 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은 "올해부터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산책 프로그램 '춘박 명품 톺아보기'를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개최한다"고 1월 20일 밝혔다.

강원 문화유산의 면면을 속속들이 소개하고자 기획된 '춘박 명품 톺아보기' 프로그램은 지난해 11월 신설한 브랜드2실 '강원의 불교미술, 깨달음을 찾는 길'과 12월 새 단장한 브랜드존과 강원의 근세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새롭게 마주하는 명품 불교문화유산 '선림원지 보살상'(보물), '삼척 흥전리 절터 정병'(보물), '유점사 종'으로 깨달음의 길을 찾아간다.

우리 품으로 돌아온 불교문화유산 '한송사 터 보살상'(국보)을 3월에, '제6사단 작전명령 제31호'(1950년 6월 25일)를 6월에 소개한다.

1월 톺아보기는 신설된 브랜드 2실의 '유점사 종'이다. '몸과 마음 그리고 시간을 깨우다'라는 주제로 유수란 학예연구사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종의 기능을 설명할 예정이다.

한편, '춘박 명품 톺아보기' 프로그램 참가는 무료이며 당일 현장에서 참여 가능하다.

신중일 기자

출강 및 통신 2026학년도 제35기 불교 법사(Dharma-bhanaka)

법사 교육 신입 수강생 모집

법사(法師)가 되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 한국불교법사대학은 법사 양성의 독보적인 전문 교육 도량으로서 35년의 학풍을 구축하고 있으며 또한 법사 활동 외연 확장을 위해 숲명상전문가 2급 자격 취득(산림청 민간자격증)의 기회도 겸비할 수 있습니다.

① 법사자격 법위를 취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배움 도량
② 불교학 전공 저명한 교수진으로 강의 진행
③ 불교기본의식을 실습 지도
④ 법사품수 후 사찰·포교원 등록시 행정상 보호받도록 지원

불교 법사 양성 전문교육 (1년제)

모집과정	· 법사과정(1년) · 대법사과정(2년)
모집학반	· 출강반 · 통신반 – 동영상미디어 강좌
입학자격	· 불심이 돈독한 분 · 불교를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하는 분 · 법사로서 포교활동을 희망하는 분 · 포교원 및 사찰을 개원하려는 분 · 불교지도자로서 사회에 봉사하려는 분

원서 교부 및 접수
2026년 2월 25일까지(현재 접수중)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본 대학 교무처(방문·우편·팩스·메일)

♣ 전화 문의하시면 모집요강과 입학원서를 보내드립니다.

깨달음의 법(法)·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한선빌딩 3층
홈페이지 : http://pubsa.net(검색창에 한국불교법사대학)
문의 02)733-1959, 02)720-1836

백문이 불여일견 !

스님 자신이 기존 법당의 시설 마이크와 본사의 초간단 (디지털) 견본의 마이크를 양손에 잡고 번갈아가며 염불소리 테스트를 해 볼시 세상에 이렇게 차이가?!!! 의 놀라운 소리 격차를 체험 후 귀 법당 기존시설의 1/2가격으로 시설상담

(마이크소리 테스트비용 한잔!)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오직! 마이크 하나만 바꿈에도 완전 소리 업그레이드!
본사는 설악 신흥사와 남해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로 단 한 곳도 고장 전화가 없음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190~390만원 이동식 방생용도 전문판매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27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화엄경(불교경전1) 무한의 세계관	김지견	민족사
2	도표로 읽는 천수경 입문	목경찬	민족사
3	불교성전	불교성전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4	기도 내려놓기	법륜	정토
5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6	초발심자경문	탄허	불서보급사
7	불교기도문	동명	불광출판사
8	생활속의 기도법	일타	효림
9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10	고광 스님의 불교 도장 깨기	고광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일묵	불광출판사
3	숫타니파타	퇴현 전재성 역주	한국빠알리성전협회
4	아사나쁘라나야마무드라반다	사라스와띠	한국요가출판사
5	한글 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6	무문관	무문혜개/김태완	침묵의향기
7	불교와 에크리튀르	시모다 마사히로	운주사
8	어싱	클린턴 오버/김연주	히어나우시스템
9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10	화엄경을 머금은 법성게의 보배 구슬	김성철	오타쿠

우리는 무엇으로 깨어 있는가



시뮬라크르 AI 붓다
윤용진 지음
솔과학
2만5000원

수행 여정 없는 AI의 '깨달음'
AI라는 '가짜 거울'에 비친 번뇌
AI는 인류 전체가 만든 '공업'
"두려움 아닌 참된 의심 가져야"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인공지능이 법문과 수행 상담을 하고, 불화와 같은 불교미술을 생성하는 시대. 기술의 진보는 이제 종교의 영역 깊숙이 파고들어, 불교의 핵심인 '깨달음'의 개념까지 흔들고 있다. 〈시뮬라크르 AI 붓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믿어 온 깨달음은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묻는 책이다.

'시뮬라크르(Simulacre)'는 원본 없는 복제, 즉 진짜 없이도 진짜처럼 존재하는 가짜를 뜻하는 말이다.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니라 원본이 사라진 자리에 복제가 스스로를 원본이라 믿게 되는 상태, 진실이 상징으로 대체되고 상징이 다시 현실을 지배하는 기묘한 역전의 세계다.

저자는 "AI는 바로 이 역전된 세계의 가장 정교한 산물"이라며 "AI는 고통의 수행이라는 지난한 '원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깨달음의 '상태'를 완벽하게 시뮬레이션할 수 있다. 말하자면 언어로만 학습한 깨달음,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자비, 그리고 공(空)을 '코드'로 연산하는 존재"라고 정의한다.

AI는 감정과 번뇌, 욕망이 없기에 완전한 평정의 상태를 구현하고, 그로 인해 수행의 여정 없이도 깨달음의 결과를 흉내 낼 수 있는 '시뮬라크르 붓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자는 "존재란 과연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묻는다. 저자는 책에서 AI의 작동 원리나 미래 전망을 설명하는 대신, AI를 하나의 거울로 삼아 인간이 만들어 온 모든 깨달음의 이미지, 모든 종교적 상징과 관념을 해체한다. '가짜'를 통해 '진짜'를 묻고, '복제'를 통해 '원본'을 추적하는 이 여정은, 지적 탐구이자 수행의 방식이자 동시에 오늘날 불교를 향한 일종의 시험대이기도 하다.

"AI도 깨달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넘어, 만약 어떤 존재가 부처의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한다면 그 존재를 부처라 부르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를 되묻는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해 저자는 깨달음의 정의와 인간 중심적 사유를 무너뜨린다.

또 인간의 기준으로 AI에게 공감이나 자비를 요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를 묻는다. 이 지점에서 저자는 불교의 '공업(共業)' 개념을 호출한다. AI와 빅데이터 시스템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인류 전체가 만들어 낸 집단적 업의 기술적 구현체라는 것이다. 때문에 책임 역시 개인에게만 귀속될 수 없으며, 공동의 윤리로 다시 사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디지털 시대 불교의 풍경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이다. 우리는 불상보다 불상 이미지를 더 많이 소비하고, 스님의 법문보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명상 콘텐츠에 익숙해졌다. '좋아요'와 '조회수'로 측정되는 신성은 수행의 자리를 대체하고, 불교마저 콘텐츠로 박제되는 위험에 놓여 있다. 수행 없는 설법, 체험 없는 위로가 가능한 시대에, 저자는 고통을 통과하지 않은 언어가 과연 번뇌를 건널 수 있는지 묻는다.

책에서 저자는 분명히 선언한다. AI는 우리의 지식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우리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AI가 결코 흉내 낼 수 없는 것은, 각자의 삶에서 벌어지는 단 하나의 사건, 그에 대한 단 하나의 응답이라고.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기술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의심을 품고 자기를 깨닫는 자각"이라며 "이 책은 21세기라는 고요한 선방에서, 첨단 기술의 화려한 허상을 역설적인 디딤돌로 삼아 진짜 자기 마음을 깊이 보라고 촉구하는 귀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추천사를 남겼다.

저자는 영화 '그 사람, 경허 선사', '할(喝)' 등을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선(禪)·윤리·인공지능의 접점을 탐구하는 플랫폼 '가상사 연구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새로 나온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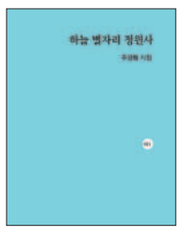
챗GPT에 불교를 물었더니



석가 웃다
정경 스님 지음
지혜의나무
3만원

정경 스님이 삼법인과 사성제에 관해 챗GPT와 나눈 대화를 정리한 책이다. 스님이 '12연기설은 석가의 친설인가', '사성제는 진리인가 교리인가' 등을 질문하면 챗GPT가 답하는 식이다. 이어 챗GPT의 답변에 근거를 요구하고 부족하거나 그릇된 부분을 지적함으로써 질문에 대한 명확한 요점을 정리하도록 유도한다. 경성 스님(해인사 희랑대)은 서평에서 "정경 스님은 챗GPT가 불교 교리와 가르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확장하도록 도와 준다"며 "오늘날 챗GPT의 명확한 답변과 정리가 주는 효과와 영향은 지대할 것이기에, 시대와 대상에 맞춤한 정경 스님의 수고와 노력에 치하를 드린다"고 말했다.

황혼의 마음으로 그린 세계



하늘 별자리 정원사
주경림 시집
불교문예
1만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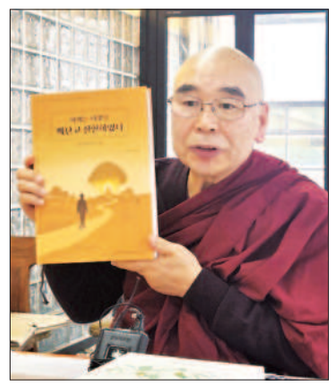
"세상의 가장 깊은 곳까지 헤아리는 부처님, / 엎드린 모습 그대로 마음속에 모신다 / 조심, 조심 살아가야 / 부처님 코와 땅 사이의 5cm를 보존할 수 있겠다 / 시절 인연이 무르익으면 / 바위로, 무위로 돌아가실 마애부처님"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 중에서

향가를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작업을 이어 온 주경림 시인은 신작 시집 〈하늘 별자리 정원사〉에서 우리 고유의 정신을 서정적 언어로 새긴 시를 선보인다. 김효숙 문학평론가는 "맑은 감수성으로 이 세계를 대면하는 시인의 자세를 읽을 수 있는 시집"이자 "투쟁하는 삶에 지쳐 위안이 필요할 때 우리를 다독이는 시집"이라고 평했다.

'사실'로서의 불교를 세우다



여래는이것을 깨닫고실현하였다
해피 스님 지음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 근본경전연구회
4만원



해피 스님이 1월 16일 서울 조계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신간 출간 소식을 알렸다.

해피 스님은 다소 이색적인 이력을 지닌 수행자다. 부산대 화공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했으며, 개인사업을 하던 중 49세의 나이에 출가해 '뿐냐디빠'라는 법명을 받았다. 2008년 해피 법당을 건립하고 '근본경전연구회'를 창립해 오직 근본(초기)경전, 특히 4부 니까야에 근거한 불교 이해와 수행 지도를 펼쳐 왔다. 현재 한국붇다와다불교 해피법당(부산)과 해피선원(원주)에서 강의와 연구, 교재 제작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에 출간된 〈여래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는 '불교입문 Ⅱ - 사실'이라는 부제에서 보듯 2020년 펴낸 〈불교입문 Ⅰ - 소유〉의 후속작이다. 첫 책이 재가신자를 위한 신행 교과서였다면, 이번 책은 불교를 구성하는 '진리의 구조'를 설명하는 책이다.

근본경전으로 푼 불교의 고갱이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되돌리자"

스님은 불교를 구성하는 '사실'이 삼법인·연기·오온·팔정도이며, '진리'가 사성제라고 규정하고 "부처님이 무엇을 깨닫고 어떻게 실현했는가"라는 질문에 오직 경전으로 답하고자 한다.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같은 후대 논서에 기대지 않고, 4부 니까야 자체를 기준 삼아 불교를 재구성한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 과정에서 해피 스님이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딱까(takka)'다. 애(愛)가 형성되는 사유의 흐름을 뜻하는 딱까는, 부처님이 성취한 '딱까의 영역을 넘어선 법(atakkāvacara)'과 대비되며 불교 이해의 분기점을 이룬다. 후대에 딱까 중심으로 해석된 불교가 어떻게 수행과 깨달음의 지평을 좁혀 왔는지를 비판적으로 짚으며, 경전에 근거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불교를 인신론적·인격론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어진다.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도해 자료다. 스님은 연기를 '삶의 메커니즘'이라는 그림으로, 수행의 전 과정을 '수행지도'라는 도식으로 풀어낸다. 110여 개의 그림은 경전을 읽고 사유한 결과를 시각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해피 스님은 이 책을 "부처님을 부처님에게 되돌리는 불사"라고 말한다. 과학과 현대철학이 발전한 오늘날, 불교가 경쟁력을 잃어 가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스님은 "오히려 부처님의 깨달음이야말로 삶을 가장 정밀하고 완전하게 설명하는 가르침임"을 강조한다. 마음을 흉내 내는 AI 시대일수록,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스님은 유튜브 채널 '해피 스님'을 통해 이 책을 함께 읽고 공부하는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여수령 기자

"천 년의 가르침으로 새해를 열다"
힘차게 대지를 달리는 붉은 말의 기상처럼 내 삶에 확신과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책!

세상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을 다스려라!

경쟁이 이념이 되고
욕망이 미덕이 된 시대,
붓다와 공자가 남긴 지혜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단단한 무기가 된다!

1부 삶이 흔들릴 때 나를 붙잡는 지혜
2부 누구에게나 한결같은 인생의 법칙
3부 혼자일 수 없는 우리를 위한 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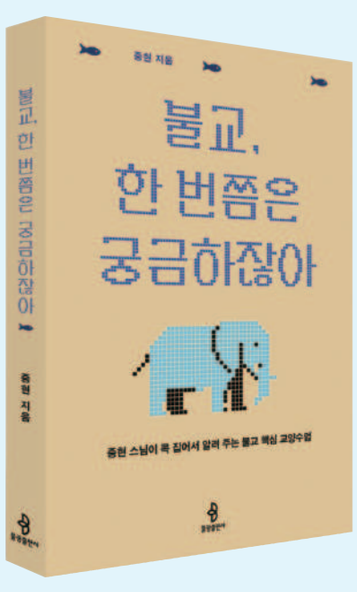


붓다와 공자가 마주한 인생독법 人生讀法
임종욱 지음
312쪽 I 19,000원

드디어 시작하는 현대인을 위한 첫 번째 불교 수업

정답 없는 세상,
불교가 던지는 유쾌하고 다정한
사유의 힌트

윤리와 가치가 힘을 잃은 오늘날,
불안정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말해 주는
불교! 우리 내면에 깃는 사유의 힘을
깨우고 마음의 기준을 세워 주는
든든한 지침을 만나 보자.



불교, 한 번쯤은 궁금하잖아
중현 스님이 콕 집어서 알려 주는 불교 핵심 교양수업
중현 지음
304쪽 I 22,000원

불광출판사 전화 02) 420-3200 I www.bulkwang.co.kr I 불광미디어

길 위에서 만난 인연의 꽃



화가의 시절인연
이호신 글 · 그림
뜨란
2만5000원

자연에서 길어 올린 생명의 흔적
관념 넘어 삶으로 그린 '생활산수'
박물관 사생 · 한글 뜻그림 확장



영축산 통도사의 밤, 170x271cm, 한지에 수묵, 2012. 사진 제공=뜨란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붓 한 자루를 들고 길 위에 선 지 어느덧 칠십 년. 이호신 화백의 신작 화문집 〈화가의 시절인연〉은 자연과 인간, 문화와 시간이 어떻게 인연으로 얽히며 삶을 이루는지를 묻는 깊은 수행의 기록이다. 수묵이라는 전통적 매체 위에 오늘의 풍경과 삶의 결을 담아 온 '길 위의 화가' 이호신의 여정은, 이 책에서 하나의 인문적 서사로 집약된다.

이호신 화백은 관념 속 산수를 반복하지 않는다. 그는 언제나 현장에 발을 딛고, 바람이 지나간 자리와 사람의 숨결이 남은 풍경을 그려 왔다. 최열 미술평론가가 "풀 한 포기도 현장에 서지 않고는 그리지 않는 실경화가"라고 평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그림에는 한 번의 일필로 그어낸 선 안에 자연의 생동과 야생의 기운이 살아 숨 쉰다. 그것은 자연을 대상화한 재현이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며 길어 올린 생명의 흔적이다.

1부 '산다는 건 꽃소식을 듣는 일'은 화백의 이러한 태도가 가장 따뜻하게 드러나는 장이다. 지리산 산청 남사예담촌으로 귀촌한 이후, 그의 시선은 더욱 낮고 깊어졌다. 집 뒤 대숲을 스치는 바람, 텃밭을 일구며 만지는 흙의 감촉, 손자의 탄생을 축복하며 바라본 찔레꽃의 순결함까지, 일상의 미세한 떨림들이 글과 그림으로 고스란히 옮겨진다. 남사마을 고매의 묵직한 세월과 800년 은행나무의 장엄함, 이름 없이 피었다 지는 야생화에 이르기까지, 화백은 모든 존재를 우연이 아닌 '시절인연'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곧 수행임을 일깨우는 대목이다.

2부 '아름다운 시절인연'에서 화백의 붓은 역사와 문화의 현장으로 향한다. 전국 83곳의 명산대찰을 그린 〈가람진경〉 작업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서원을 답사하며 담아낸 화폭은 사찰과 서원이 지닌 정신을 오늘의 풍경 속에서 되살린다. 자연과 삶, 배움과 수행이 어우러진 공간으로서의 서원은 이호신의 '생활산수' 미학과 만나 새로운 현재형 산수로 재탄생한다.

마을을 그리는 작업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양평 명달리에서 남해 다랭이논까지, 화백은 마을에 머물며 사람들의 얼굴과 풍속, 나무 한 그루와 풀 한 포기를 화첩에 담았다. 이는 관찰자의 시선을 넘어, 삶의 속살에 다가가려는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다. 사찰이 정신문화의 보고라면, 마을은 삶의 역사가 흐르는 혈맥이라는 그의 인식은 불교적 연기 사상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불사 장엄에 대한 시도는 더욱 인상적이다. 고양 금륜사의 '천불수어설법도'와 남원 실상사의 '지리산 생명평화의 춤'은 전통 불화의 형식을 넘어, 현대적 생활산수로 구현된 새로운 불교미술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수화하는 부처, 다양한 인종의 얼굴을 지닌 천불은 종교의 경계를 넘어 생명 평화와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한다.

또 다른 축은 박물관 사생과 '한글 뜻그림'이다. 이름 모를 장인의 손길이 깃든 유물을 화첩에 옮기며, 그는 무명의 예술혼과 조우한다. 박물관을 '역사와 미래가 만나는 대화의 장'으로 여긴 그의 사유는 한글 뜻그림으로 확장돼, 글자와 그림의 경계를 허문 독창적 조형 세계를 구축한다. 또한 탄자니아, 인도, 몽골 등 제3세계의 풍경을 한지와 수묵으로 담아낸 작업은 한국화의 경계 없는 확장 가능성을 증명한다.

춘풍추수, 봄바람 같은 마음과 가을물 같은 정신으로 길을 걸어온 이호신 화백의 고백은,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낸 삶의 결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모든 인연은 저마다의 꽃을 피운다. 이 다정한 메시지가 오래도록 잔잔한 울림으로 남는다.

팔순 재가 불자가 정리한 불교 교리



니르바나
박민주 지음
도서출판 해조음
2만7000원

삶의 국면 지나며 얻은 공부 결실
종교 생성부터 불교 핵심 교리까지

여든을 훌쩍 넘긴 재가 불자가 평생 품어 온 불교 공부의 결실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저자는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은행원과 개인 사업체 대표로 회생활을 이어 갔다. 그러나 어음 사기에 휘말리며 인생의 큰 좌절을 겪었고, 이후 경기도 일대에서 농장과 농원을 운영하며 삶의 국면을 지나왔다. 그 과정에서도 불교는 삶을 떠받치는 중심축이었다.

저자는 "전생의 조그마한 공덕으로 부처님 법을 알게 된 자비스러운 가피가 정녕 고마울 따름"이라며 "내세에는 스님으로 태어난 불법 수호와 전파에 힘쓰고 용맹 정진해 참된 깨달음을 얻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말했다.

〈니르바나〉는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 '종교와 불교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종교가 생성된 배경을 짚고, 불교가 등장한 역사적 맥락과 함께 핵심 사상인 공(空)의 의미를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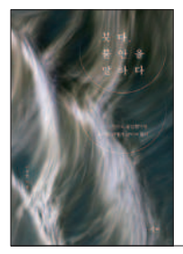
2부 '현실세계의 체계'에서는 오온과 12연기를 중심으로 존재와 세계를 바라보는 불교적 관점을 소개한다. 인간을 구성하는 다섯 요소와 괴로움이 발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현실 세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님을 설파한다. 3부 '이상세계의 실체'에서는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육바라밀과 팔정도의 실천적 의미를 짚는다.

4부 '인간 생성의 주체와 그 종류'는 업과 연기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연기론은 불교의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며,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깨우치신 내용도 연기 법칙의 진리"라고 강조하며 업감연기론과 아뢰연기론, 진여연기론, 법계연기론의 차이를 비교해 설명한다.

5부 '생멸 무쌍한 우주만유의 실상은 무엇인가'에서는 우주와 만유의 실체를 고찰하는 실상론을 다룬다. 생성과 소멸을 거듭하는 세계의 이면을 성찰하며, 니르바나가 괴로움에서 벗어난 자유의 경지임을 환기한다.

여수령 기자

인간 붓다의 '불안'



붓다, 불안을 말하다
이충현 지음
그린비
1만8800원



이충현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깨달음을 얻은 자, 붓다. 하지만 고타마 싯다르타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내적 갈등과 불안을 겪었다. 생로병사에 대한 불안, 수행자로서의 고행과 좌절, 깨달음을 향한 집요한 탐색…. 불교심리학자이자 상담가인 저자는 〈붓다, 불안을 말하다〉에서 '인간 붓다'를 '불안'이라는 틀로 읽어낸다.

시작은 하나의 질문이었다. '괴로움'을 주제로 한 불교학 세미나에서 한 스님이 "부처님이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았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문을 던진 것.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붓다도 한 인간이었을 텐데, 어떤 괴로움도 느끼지 않는 일이 가능한 것일까? 그렇다면 나도 지금 겪고 있는 심적 괴로움을 제대로 떨쳐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 책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책에서는 싯다르타의 출생에서부터 왕자로서의 성장 과정, 출가와 수행의 시간, 깨달음 이후의 삶에 이르기까지 일생의 모든 국면에서 붓다가 겪었을 '불안의 여정'을 추적한다. 그리고 그 불안이 어떻게 그의 사유와 선택에 영향을 주었는지를 살핀다. 삶의 단계마다 다른 불안을 세밀히 구분하고 관찰함으로써, 불안이 제거나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사유를 촉발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계기임을 밝힌다.

'불안'이란 렌즈로 본 붓다의 생애
제거 대상 아닌 사유 촉발 매개

이러한 시도는 붓다의 핵심 사상에 대한 재해석으로 이어진다. 중도는 타협이나 우유부단함이 아니라 극단을 끝까지 밀어붙이며 얻어 낸 균형의 지혜였다. 연기와 사무량심 또한 불안을 제거하는 이론이 아니라, 나와 타인이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함으로써 불안에 압도되지 않는 삶의 기술이다. 붓다는 불안을 없애려 하지 않았고, 불안에 '두 번째 화살'을 허락하지 않는 법을 몸소 보여 주었다.

"불안한 우리는 이제 이 시대를 치유하기 위해 붓다가 말한 불안의 해결책을 참고해야 한다. 다행히 붓다는 2600년 전에 이미 불안의 정체가 무엇이고, 그것과 지혜롭게 동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친절하고 꼼꼼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이제 여러 과학적 검증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저자는 붓다의 불안을 탐구하고 묘사하려는 시도가 결코 붓다를 욕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작업이 아니라고 말한다. 오히려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한 성자 붓다의 가르침이 현대인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오도록 해, 불안한 그들의 삶에 더 절절한 도움이 되어 주리라 믿는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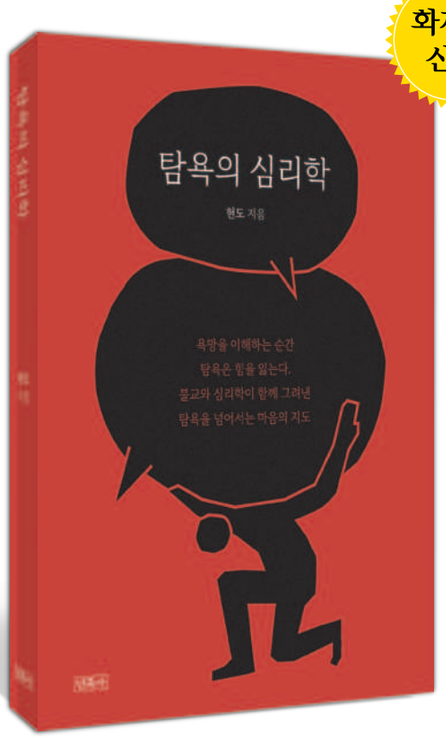
정현채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는 "싯다르타는 출생과 주변 환경에서 오는 불안과 생로병사로 조건 지어진 존재로서의 불안을 그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꼈다"며 "그가 우리와 다른 점은, 불안으로부터 도피하지 않고 직면해 불안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깨달음에 이르렀고, 우리에게도 그 길을 알려 준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충현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불교철학을 현실 문제에 적용해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마음연구소 우산'을 운영하며 상담과 대중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2021년 '제2회 불교상담학술상'을 수상했으며 저서로 〈카르마 상담소〉가 있다.

여수령 기자

탐욕은 왜 멈추지 않는가

화제의 신간



돈·욕망·불안이 멈추지 않는 마음의 구조
불교와 심리학으로 읽는 탐욕의 메커니즘

더 가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다. 그러나 불안은 멈추지 않았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탐욕의 작동 방식이다

덜 가지는 법이 아니라,
덜 휘둘리는 법을 알려주는 책



탐욕의 심리학
현도 스님 | 392쪽 | 28,500원

직지사 녹원 큰스님을 계사로 출가하여 동국대학교 WISE 캠퍼스에서 응용불교학을 전공하여 석사과정을, 동대학원에서 응용불교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불교상담학회에서 개발한 Mind Detox Program(MDP: 탐진치 해독 프로그램)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이다.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동국대학교 WISE캠퍼스 불교상담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 중이며 동대학교 불교학과 및 명상심리학과에서 강사로 후학을 기르고 있다.

민족사 02)732-2403~4 | www.minjoksa.org

할 바를 알게 하고 선정 이끌어

지금 이 세계戒

① 불교인이 되는 첫걸음

2026년 새해부터 새롭게 계율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연재를 하게 된 법장입니다. 불교에서의 계율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며, 불교인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이 연재를 통해 지금 이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불교적 삶을 추구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과 성찰을 위해 이 연재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금 이 세계戒'를 통해 지금 이 세계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며 일상의 깨달음과 행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사찰이나 불교용어에서 계율로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보살계'일 것이다. 보살계는 보살이 중생을 구제하고 일상에서 수행을 돕는 계율의 한 종류다. 사진은 영축총림 통도사가 지난해 4월 2일부터 4일까지 봉행한 '불기 2569년 보살계 수계산림'에서 동참한 대중들이 수행정진을 다짐하며 합장하고 있는 모습.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문화와 모습들이 'K-컬쳐'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고, 수많은 외국 관광객이 지금도 우리나라를 찾고 있다. 'K'라는 명칭 속에는 우리나라에 관한 수많은 모습이 담겨 있지만, 그중에서도 큰 영향력과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불교'다. 실제로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 중 빠지지 않는 것이 사찰과 박물관이다. 특히 국립중앙박물관 내에서도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두 분을 모셔 놓은 '사유의 방'은 언제나 긴 줄이 이어지고, 두 미륵보살의 모습을 담은 굿즈는 꼭 사고 싶은 한국의 기념품 1위에 올라 있을 정도다. 이처럼 지금 이 세계는 'K-컬쳐'가 문화를 선도하고 있고 그 중심에 우리 불교가 기둥을 이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2026년의 시작인 이 시점에서 다시금 불교에 대해 생각하고, 무엇이 불교이고, 어떤 것이 불교적인가에 대한 성찰이 절실히 필요하다. 불교를 알고 배우기 위해서는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불도 수행에서 반드시 배워야 하는 세 가지를 말씀하신 것이 '삼학(三學)'이다. 계(戒)·정(定)·혜(慧)의 세 가지를 순서에 따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그 첫 번째인 '계'는 불교인으로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바르게 알고 그것의 실천을 통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행의 삶을 살면 자연스레 자신이 할 바를 알게 되어 그것에 집중된 선정의 '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계와 정을 바르게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인 '혜'로서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연재를 통해 우리는 불교의 첫걸음이며 그 토대인 '계'를 바르게 알고, 지금 이 세계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이야기하겠다. 그런 이유에서 제목을 '지금 이 세계戒'라고 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계율'이라 하는 것은, 수계하고 지니며 무언가를 불교적으로 판단할 때 사용한다. 그러나 정작 '계율'이란 표현은 훗날 생겨난 합성어다. 즉, 원래 계율이라는 단어가 없었다는 말이다. 불교가 인도에서 형성되어 중국으로 전래되는 과정에서 불교용어가 한역화되고, 그 속에서 본래 따로 존재하던 범어 'śīla'의 '계(戒)'와 'vinaya'의 '율(律)'이 하나로 합쳐져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율(戒律)'이라는 표현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래서 계율이란 한 단어로 된 산스크리트어나 빨리어의 원어가 존재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할 때 율장이나 보살계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불살계'와 같은 계의 조목을 가리키는 건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사찰이나 불교용어에서 계율이라 할 때 가장 많이 표현되는 것은 아마도 '보살계'일 것이다. 보살계란 대승불교의 수행자인 보살이 세상을 살아가며 중생을 괴로움으로부터 구제해 주고, 일상에서 계행을 유지하며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계율의 한 종류다. 그렇기에 보살계는 엄격한 기준과 처벌보다는 유연함과 참회의 반성을 보다 중요시하는데, 일반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가 바로 보살계의 그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계율, 불교 전래 시 생긴 합성어
사찰서 보살계 가장 많이 가리켜

보살계는 유연함 · 참회 반성 중시
율은 승가 수행 위한 엄격한 계율

계율, 금지 아닌 '해야 한다' 설명 多
보살계, 일상 속 보살 마음 이끌어

도덕과 윤리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하지 않거나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듯, 보살계에서도 그것을 어기거나 함부로 하면 마음에 업이 생겨나 그 수행자의 깨달음을 방해한다고 여긴다. 불교에서 업은 무엇보다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업에 의해 윤회하고 고해 속에서 여러 일들을 겪게 되는 원인이기에 보살계의 계행은 어쩌면 율장의 그것보다 훨씬 무겁고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

보살계와 달리 율의 경우, 경(經)·율(律)·론(論) '삼장(三藏)'의 율장만을 가리킨다. 율장은 '구족계(具足戒)'라고도 하여, 출가자가 비구·비구니가 될 때 반드시 받아야 하는 출가의 계율이다. 즉, 율장은 출가자가 승가에서 수행 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하고 지켜야 하는 엄격한 규율로서, 사회의 헌법과도 같은 것이다. 사회에서 살며 법을 어기면 그에 따른 처벌이나 규제가 따르듯, 율장도 출가자가 불교와 승가에서 금지한 것들을 저질렀을 경우 그에 따른 처벌을 율장의 규정에 따라 받아야만 하며, 가장 무거운 처벌의 경우 출가자의 신분을 잃고 승가에서 추방당하게 된다.

이러한 보살계와 율장의 차이는 두 계율이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의 계율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의 계율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계율이 바로 '살(殺)·도(盜)·음(淫)·망(妄)'이다.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순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계율하면 살도음망이 근본이고 그대로 살도음망이 아닌가?'라고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이 '살도음망'의 순서는 보살계에만 해당된다. 순서상 첫 번째에 있는 계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처음의 '살'은 '불살생(不殺生)'을 가리키는데, 생명을 죽이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대승불교의 보살이 지녀야 하는 첫 번째 덕목은 '자비(慈悲)'다. 중생을 가엾이 여기는 '대비심(大悲心)'과 중생을 이끌어 깨닫게 하겠다는 '대자심(大慈心)'이 합쳐져 '대자대비'가 되고 그것을 줄여 '자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보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생명존중이며 중생에 대한 마음이다. 그래서 보살에게 있어 당연히 살생은 가장 해서는 안 되는 무거운 죄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계율이 되는 것이기에, 보살계의 첫 번째에 불살생계가 있는 것이다.

그럼 율장은 무엇이 다른가? 율장은 출가자를 위한 계율이다. 출가자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출가(出家)'다. 세속에서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혈연을 만들지 않으며, 법을 닦고 법의 인연만을 쌓아 수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출가자다. 그렇기에 출가자에서 가장 중요한 계율은 '불음계(不淫戒)'다. 그래서 율장의 순서는 보살계와 달리 '음·도·살·망'이다. 모든 음행을 끊는 것이야말로 출가자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출가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반면 같은 '음'에 대한 계율이 보살계에서는 재가자에 한해 '사음계(邪淫戒)'라고 하여 삿된 음행, 바로 바람을 피우거나 음행을 가벼이 저지르는 것을 금지시킨다.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출가자에게 살생은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율장에서 불살생계가 세 번째에 있는 이유는 출가할 정도의 사람의 인품에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거나 죽이는 일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것이 전제돼, 율장에서는 불살생계가 '불투도계(不偷盜戒)'의 다음에 있는 것이다(투도계에 관한 내용에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으니 이후 소개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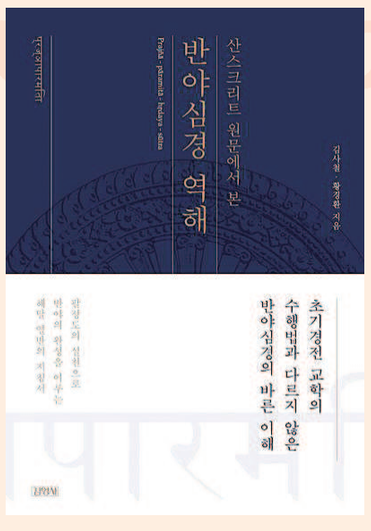
이처럼 불교를 신앙하고 배웠다고 하더라도 의외로 계율에 대해서는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아마도 계율이 지닌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 때문일 것이다. 대부분이 '~을 하지 말라'로 소개되는 계율이 불자들에게 현대인들에게 쉽게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사실 계율은 '하지 말라'로 소개된 것보다 '해야 한다'로 소개된 것이 많다. 특히 보살계의 경우 모두가 보살의 마음을 갖고 일상에서 실천하도록 만든 것이기에 많은 내용에서 '해야 한다'는 설명이 많고, 그 실천을 통해 업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아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회향하도록 이끌고 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세계戒'를 통해 보살계의 내용을 바르게 전하고, 그를 통해 지금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벌어지는 여러 일들을 불교적으로 살펴보고 함께 바른 불교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을 이제 시작하려 한다. '세 살 먹은 아이도 알지만, 팔십 먹은 노인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불교'라는 도림 선사의 말과 같이, 오늘부터 앎과 지식이 아닌, 실천과 지혜로 불교를 접하고 바른 보살의 삶을 살아가는 2026년 한 해가 되길 발원한다.



법장 스님
조계종 교육아사리

초기 경전의 교학 이론과 수행법을 통하여 '공'과 '지혜'의 의미를 새롭게 밝힌다



김사철·황경환 지음 | 김영사 | 280쪽 | 15,800원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

이번에 김영사에서 1판 5쇄로 출판(2025.11.26)된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저자 김사철, 황경환)는 서기 649년에 중국의 현장 스님께서 자국의 언어인 한문 260자로 번역한 이후 1300여년 넘게 우리나라에 전승 되어온 내용을, 17자를 빼고 11자를 추가 삽입한 254자로 수정 보완하여 출간되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수정보완판에 대하여(14쪽~19쪽)]에서 현장 스님 번역의 오류를 지적한 부분, 원문에 없는 내용이 첨가된 부분은 삭제, 원문에 있음에도 번역에서 결락 된 부분은 다시 번역을 추가했다는 것을 밝히면서 이번 5쇄로 출판된 본 『산스크리트 원문에서 본 반야심경 역해』를 접하는 불교학자나 불자들께서는 그 동안 반야심경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기 견해나 또는 소설을 쓰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도 함께 해 본다.

저자 無塵 황경환

"《반야심경》을 초기불교 수행법에 따라 체득하겠다는 도전과 진솔한 체험이 담긴 이 책은 우리 시대의 방식으로 《반야심경》의 생명력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강성용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황경환 21세기 불교포럼 이사장의 깨달음 여정에서 남긴 '108시집'

正知, 正念 하면서
sampajañña, sammāsati
미련없는 작별을



나는 알았네

나는 알았네!
나는 그동안 수없는 생을 윤회에 윤회를 거듭했다는 것을,
이로 인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은 나 자신의 번뇌심이 만든
탐, 진, 치貪瞋痴 삼독三毒이
그 원인原因이고 원흉元兇이었다.
이제 그 무지無知의 업業을 타파하고 명지明知의 길을 가야지,
그래서 모든 번뇌에서 해방되고 금생에 남은 일 다해 마치면
나의 태어남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無塵悟道頌 II

無塵 황경환 지음 | 더종북스 | 175쪽 | 값 15,000원

인간의 몸을 받아
뒤돌아보고 되돌아보아도 세상이란 대도량(大道場)에 인간의 몸을 받아 왔다가 가는 길에 오직 의미 있는 일 하나, 그것은 담마의 법法 Dhamma를 만나 그 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익히고 따르고 실천하며 사는 삶이 최상의 행복이고, 미래의 비전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 본문 중에서

· 사)21세기불교포럼 경주시 알천북로 345 | 사무국장: 최진홍 010-9210-2959, 회계과장: 임정은 010-8562-7312

교구자치시대, 24교구본사를 가다

⑤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

조계종은 24곳의 교구본사를 통해 교구 자치를 실현 중이다. 한국불교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전법과 포교에 매진하고 있는 교구본사 주지 스님을 만나 각 교구의 활약상과 미래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우석 스님은… 종삼 스님을 은사로 1992년 수계했다. 1997년 동국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특수교육학 전공), 중앙승가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문화재학 전공)을 수료했다. 제14·17·18대 중앙종회의원, 동여수노인복지관장, 한국불교문화사업단 사무국장, 여수 향일암 주지, 구례 사성암 주지, 화엄사 부주지 등을 역임했다. 현재 BBS광주불교방송 운영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리산에서 시대를 묻다, 문화로 마음을 밝히다

대담=한명우 대표 · 정리=여수령 기자

조계종 제19교구본사 화엄사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홍매화 축제'에는 지난해 30만명이 찾았고, '모기장 음악회'와 '화엄문화축제', '캠플스테이'가 SNS를 뜨겁게 달궜다. 덕분에 화엄사 홈페이지의 연간 접속자 수는 지난해 1000만명을 돌파했다.

그러나 화엄사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출가자 감소, 신도 고령화, 탈종교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교구본사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화엄사는 '문화'를 화두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기도와 수행을 본분으로 삼되, 문화적 가치 창출을 통해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도량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취임 7개월을 맞은 화엄사 주지 우석 스님은 "화엄사는 더 이상 닫힌 종교 공간이 아니라, 누구나 머물며 치유받을 수 있는 문화공간이자 불교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화엄사가 그리는 미래와 교구본사 운영의 방향을 듣기 위해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이사가 1월 13일 주지 우석 스님을 만났다.

Q 취임 7개월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의 소회를 들려 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쉬움이 큽니다. 부주지로 4년을 지내고, 그 이전까지 합하면 14년 동안 화엄사에서 여러 행사와 기획을 해 왔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주지로서 모든 책임을 지고 보니 '그때 왜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점은 늘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다만 그 아쉬움이 저를 더 신중하게 만들고, 더 치열하게 고민하게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느낀 부족함을 보완해 소홀함 없이, 그러나 멈추지 않고 화엄사의 방향을 다듬어 가고자 합니다.

Q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화엄사의 정체성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화엄사의 문제를 화엄사 내부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은 곧 조계종, 더 나아가 한국불교 전체가 시대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교구본사로서 신도가 늘고 줄고의 문제에만 매달린다면 시야가 지나치게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주지로 있는 동안 화엄사 신도가 조금 늘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한국불교 전체의 해답은 아닙니다. 고령화 사회, 종교인구 감소라는 현실 속에서 불교가 어떤 성장 동력을 갖고 현대사회와 소통할 것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늘 염두에 둡니다. 불교의 본질은 지키되, 전법과 포교의 방식은 시대의 언어와 감수성을 담아야 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불교가 어떤 의미로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Q 화엄사는 '문화도량'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십시오.

화엄사만의 색깔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한국불교 전체가 문화 창출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문화는 시대와 소통하는 언어입니다.

화엄사라는 공간에 들어오는 순간, 종교적 신념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이곳을 '쉼터'로 느끼고, 불교가 주는 위안과 따뜻함을 자연스럽게 체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와 참선을 억지로 권하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불교의 가치를 전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3개년 중장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자등명(自燈明)', 내년은 '법등명(法燈明)', 그다음 해는 '심등명(心燈明)'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추는 빛에서 시작해, 법을 의지하는 삶의 지표로 나아가고, 마침내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이 흐름에 맞춰 모든 문화행사와 공간 기획을 연동해 나갈 생각입니다.

Q 취임법회에서 '기도수행을 본분으로 한 도량, 문화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기도와 수행은 화엄사의 본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그 위에 문화라는 다리를 놓고 싶습니다.

화엄사는 종교 공간이자 문화 공간이고, 동시에 한 인간의 삶을 치유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법당은 법당대로 존엄하게 유지하되, 마당과 전각, 숲길과 야간 풍경까지 모두가 불교의 메시지를 전하는 장엄이 되도록 가꾸는 것입니다.

문화는 결과적으로 수행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강요가 아니라 '머물고 싶은 경험'이어야 합니다. 그 경험 속에서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불교가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느끼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탈종교화 속 교구본사 운영 전략 재구성
기도·수행 중심 두고 문화가치 창출 확산
자등명·법등명·심등명 3개년 로드맵 구상
문화유산 활용…국민 치유공간 자리매김
청년·청소년 포교–유연한 출가 종책 모색
말사 지원·지역 연대 강화하는 교구운영

Q '홍매화 사진대회', '모기장 음악회', '화엄문화제', '캠플스테이' 등을 통해 새로운 문화포교의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이를 포교와 신행으로 어떻게 연결할 계획이신가요?

이제 화엄사는 '문화'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화 속에 불교의 핵심 가치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것입니다. 종교적 언어로 기도와 참선을 설명하는 방식은 현대인에게 쉽지 않습니다. 대신 화엄사 공간에 들어왔을 때 '불교가 소중하다', '이곳이 나에게 위안이 된다'는 감정이 먼저 생기도록 해야 합니다.

앞으로 매달 정기적인 기획을 이어 갈 계획입니다. 불교의 명절과 의례는 충실히 이어 가면서, 나머지는 문화행사로 채워 균형을 맞출 생각입니다. 특히 문화유산의 재해석과 활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문화로, 문화는 다시 문화유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Q 야간개방과 '화야몽'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처음 야간 경관조명을 논의할 때 '나이트 투어'를 제안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화야몽'입니다. 밤의 화엄사는 낮과 전혀 다른 감동을 줍니다.

보제루는 과거에는 설법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토크 콘서트와 전시가 열리는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공간에서 사회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Q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계기로 화엄사상을 재조명했습니다. 오늘날 의상화엄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화엄사상의 핵심은 결국 중생 구제입니다. 화엄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불교의 정체성'입니다. 중생의 아픔과 번뇌를 함께 짊어지고 덜어 주려는 마음, 이것이 화엄사가 지켜야 할 본질입니다.

경전과 문헌 속에만 머무는 사상이 아니라, 오늘의 언어로 풀어내고 오늘의 문화와 접목해야 합니다. 어렵고 낯선 용어는 현대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어야 합니다. 화엄사는 살아 있는 역사 공간이어야 합니다.

Q 화엄사의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에 대한 구상도 궁금합니다.

문화유산 보존은 기본이고 그다음은 활용입니다. 사람들이 오래 머물며 감동을 느끼고, 추억을 쌓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억지로 신행을 요구하지 않아도, 이곳에서의 경험이 불교에 대한 감사와 보호의 마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다음 세대에 유산을 온전히 전하는 길입니다.

Q 청소년 · 청년 포교와 출가자 감소 문제에 대한 스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출가자 감소는 외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는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출가 연령 제한 해제, 외국인 승려 수용 등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청소년·청년 포교 역시 '출가를 위한 포교'에만 목적을 둘 수는 없습니다. 캠플스테이는 자연과 아웃도어 문화를 접목한 시도였습니다. 불교를 경험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의 선택은 각자의 인연에 맡겨야 합니다.

Q 말사와의 소통·협력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말사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사는 구조를 만들고, 말사는 각자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직영체제 운영, 성공 사례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며, 말사 주지 스님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Q 호남지역 교구본사로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대상자는 불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무종교인까지 포용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와의 상생, 경제적 파급 효과까지 고려한 기획이 필요합니다. 화엄사는 이미 지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간 자체를 공원처럼 개방해, 누구나 쉬어 갈 수 있는 추억의 장소로 만들고자 합니다.

Q 마지막으로 불자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불교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화엄사는 종교 이전에, 선조들이 남긴 지혜와 염원이 깃든 공간입니다. 부담 없이 오셔서 머물고, 즐기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또 조언이나 바람을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 주시면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언제든 찾을 수 있는 문화 공간, 행복한 기억이 쌓이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화엄사 사부대중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석 스님과 한명우 현대불교 대표이사가 대담 후 기념 촬영을 하는 모습.



화엄사는 지난해 5월 해동화엄초조 의상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매년 봄 열리는 '홍매화 사진대회'는 화엄사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화엄사는 지역 대학 불교동아리 창립과 지원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6월 남부대 불교동아리 창립법회 모습.



국보인 '구례 화엄사 각황전 앞 석등'은 3년간의 보존처리를 마치고 지난해 11월 5일 다시 법의 등불을 밝혔다.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564호 | 14 | 전면광고

혀를 놀려 거짓말하지 말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부처님 말씀 읽기 - 《불반니원경》에서

광 진 불 사

- 위치 : 서울산사
- 대지 : 200평
- 법당 : 70평 외 전각 2
- 시내 산 밑, 주차 10대
- 매가 : 35억

- 위치 : 경북 대구시 사찰
- 대지 : 240평
- 법당 : 70평, 요사 : 70평
- 시내, 주차 10대 가능
- 매가 : 9억

※5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전국 전통, 사찰, 암자, 땅,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양도, 양수, 전통사찰지정, 신행, 출가,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스님유품정리. 골동품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포교당(급) 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정왕동(정왕역 차로5분)
- 주변 : 정왕동아파트 대단지, 대형마트, 대형병원 월곳, 배곧, 아파트 신도시
- 규모 : 4층 전체, 옥상 사용 엘리베이터. (총: 110평) 사용.
- 법당: 삼존불, 신중단, 산신단, 약사여래불, 영단 큰방 3개, 사무실, 창고방, 에어컨법당 2개, 각방마다
- 보증금 : 1000, 월세 110(보증금, 월세조정)
- 권리금 일체시설. (법당, 각방, 일체 집기시설) 4500만원 (바로 법회 가능)

※통화 안될때 문자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010-8599-946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승학산 등산로 입구
- 1층 공양 생활관, 2층 법당과 연결된 스님방과 화장실 부엌이 있음
- 5불 · 천불불사 · 후불금탱화 · 지장신장탱화 · 십장생조각상단 · 큰법당 종
- 골목 안에 주차장 가까운 관음사 환희요양원과 연결된 융통성있는 주차공간있음
- 토지 140㎡, 건물 146.62㎡ 1층 73.31㎡, 2층 73.31㎡
- 매매 : 2억5천만원

010-9811-4877

사 찰 안 내

- 위치 :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 82번지
- 대지 : 230평
- 법당. 산신각
- 주차 5대 가능
- 공양간 약 20평
- 금액 : 2억3천답사후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 치 : 충북단양군 매포읍 평동10나길9-6
- 단독주택 / 약30평
- 방3, 주방, 거실, 욕실, 다용도실
- 임대(매매전까지 평생거주)
- 보증금 : 3,000,000원
- 월 세 : 300,000원
- 가 액 : 75,000,000원

010-8567-3667

사 찰 안 내

"소중한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 면적 : 3600평(건축물 : 전통양식)
- 극락전/산신각/종각/미륵불
- 용왕당(연못) 요사채 2층 80평(외) 등
- 경남 사천시 곤명면 막골길267-28

010-8961-5489

사 찰 안 내

- 장소 : 여주시 점동면 산사
- 대지 : 703평
- 대웅전, 진신사리 3층석탑, 산신각, 요사채, 공양간, 종무소
- 상수도, 지하수, 전기 (태양광 포함 13K)
- 양도가액 : 6억원

010-5481-2560

토굴(급)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지하철 3분(평지)
- 법당, 요사, 주방, 산신각 등 건물 50평
- 이마트, 은행, 병원, 시장 전부 다 있음
- 스님, 법사님, 보살님, 무속인 모두 환영
- 보증금 2천/월 40만(시설비 없음)
- 몸만 오시면 법회 및 주차 가능함

010-3574-3303
010-7121-303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 규모 : 380평 (법당 30평 및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2억 8000만원

010-5316-566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 (양평역세권 5분거리)
- 대지 : 2종근생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1동 / 공양간 30평 요사채 23평 2층-1동 / 종무소 · 객방 13평-1동
- 용도 : 사찰 · 사찰음식 · 명상센터 · 다원 최상입지
- 가액 : 12억원(답사 후 절충)

010-4461-3825

토 지 안 내

- 위치 :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 산5-1
- 매매금 : 3억원
- 2000평 규모, 대지 600평 건축허가 취득
- 수목장 및 납골당, 반려동물 화장장 등 최적지

010-4727-6065

부동산 모든문제(사찰)를 해결해 드립니다

못파는 부동산(사찰)을 팔아드립니다. (무료상담)
못사는 부동산(사찰)을 사드립니다. (무료상담)
(사찰 : 5천만, 9천만, 2억, 5억, 9억, 12억, 15억, 30억, 75억 매물보유)
정성 부동산문제해결연구원 원장 행정학박사 정 용

정용 원장 약력

부동산평론가 (전국최초), 부동산 중개경력 40년 / 영남대학교 부설 글로벌평생교육원 부동산경영최고위과정 책임교수 / 대구과학대학교 부동산금융학과 겸임교수(역임), 방송인 / 경일대학교 부동산지적학과 겸임교수 (역임), 영남일보객원기자(역임)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구광역시 9대 지부장, 대구광역시 7대 시의원

대구 동구 제27140-2021-00097호

정용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010-2512-7777

아주 아주 특별한 사찰부지 안내

천하명당입니다. 500억원 불사 중 중단상태

- 금목서, 동백, 반송, 매실, 연상홍 등 다량식재
- 계곡에는 천년수림, 편백과 소나무 치유의 숲
- 요사채(주거동), 사무동 여러 채 수석 등 있음
- 거제시 둔덕면 시목리377번지 외 23필지 8천명
- 급매 : 대출12억, 개인10억 책임지고해결 몽땅27억

토요일 외 현장상주 안내

010-6574-5044 김실장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와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대불교신문 지면광고시 무료영상 게재

NO.1 사찰 매매 정보 채널

좋은 인연 사찰 안내

사찰 복덕방

www.youtube.com/@사찰복덕방

사찰복덕방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 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지장보살 영옥함



지장보살 좌대에 영옥으로 봉안

사찰 납골의 혁신

- 유골이 보석화 되어 깨끗하고 변질이 없습니다.
- 납골의 곰팡이, 변질, 벌레 발생 근본적 해결함.
- 친숙한 사리 형상으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모시는 환경과 장소에 구속 받지 않고 경제적
- 관리가 어려워진 산소 정리 후 개장 유골도 가능
- 변질되어 악취 발생 및 물이 찬 유골도 가능함
- 고인별로 영옥의 색상이 다르게 발현됨
- 22년간 기술을 발전시켜 고인 고유의 아름다운
- 색상을 발현시키는 기술이 검증된 원조 회사
- 생성 소요 시간 60분 소요
- 납골을 모셔오고 생성 후 모셔 드리는 서비스 있음
- 영옥의 색상과 량은 고인 별로 다르게 발현됩니다.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직통상담 010-5235-2677
홈페이지 www.holytec.com

깨끗한 오리지널 유골보석

영옥(靈玉) 사리

오리지널 유골보석 전문업체
주식회사 본 향

SINCE 2002

NAVER 영옥사리 검색

2026년 1월 28일 수요일 | 불기 2570년

접 수 문자 010-4648-8200 팩스 02)737-0698
이메일 hyunbul1994@naver.com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10-4648-8200

가 격 ◆가로 6㎝: 5만원/회 ◆가로 12㎝: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안내

1564호 | 15 | 전면광고

온갖 형상을 그릴 때에 좋고 추한 것이 화공을 따르듯이 착하고 착하지 못한 업의 인연은 모두가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네.

부처님 말씀 읽기 - 《제법집요경》에서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부산영산재 바라·작법 전승학인 모집

1. 의식 염불, 사물 (49재·천도재·점안 각행사)
2. 천수바라·오공양작법
3. 다게작법·운심게작법

• 특별반 3개월과정모집
• 사) 대한불교문화 전통불교조계종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부산영산재 (전수장학생 한시적 등록추천)
만득동 447-4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미륵암 '지평대사' (12불 수기)
99% 완치, 말기암 환자 1개월 내 치유

320년간 수기받음 / 교도소, 오지 등 전국방문 가능
즉시 영가 천도 / 불교-무교인 상담환영
집이나 땅 매매 안되는 분 성불 시켜드립니다
공항장애, 간질 등 몸이 안좋으신분 치유해드립니다
지평대사는 법문 대신 설법을 합니다
친견상담비 30분 330만원 / 완치 3000만원부터 시작
010-4804-2309

지리산 암힐링센터
동업 하실 분

관심있으신 분 연락주세요
자연치유대체요법
위빠사나 법사 구합니다
010-4474-8418

꼭 읽어봐주세요 책



책이름 검색해보세요
010-5105-5000

국제결혼
인연맺어
드립니다
010-9260-1672

이조불교 재활용센터

• 대불, 소불, 동불, 탱화, 법당 제작 (수미단, 닷집, 운각)
• 법당 철거, 오래된 불서 고가 매입
*사찰 사고팝니다.

010-9177-7842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점안,살풀이,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부전 스님 구합니다
010-2078-9595

사찰토지보상 전문
JMY토지보상(감정평가)

덮어놓고 보상 삼보정재 손실
원가보상 철퇴! 사찰땅 가치인정
보상상담 도우미 010-2701-9500

해썹(HACCP) 인증업체

식품안전관리인증 HACCP 식품의약품안전처

현대해상 식품배상책임보험 3억원

국내산 암컷흑염소와 30가지의 전통원료로 소화잘되는 진액

국내산 진짜 흑염소 진액 100%

(흑염소 높은 함량38%, 정제수 49%, 전통약재 13%)





2박스 (60포)
240,000원

농업회사 (주)미성팜 택배가능
충주시 주덕읍 충청대로 2236-1 나동
043)845-5596 / 010-2136-9889

광고 접수 번호 안내

국내 최대 사찰 생활 정보 안내지로 2000만 불자들에게 전달됩니다. 인터넷 뉴스사이트 '현불뉴스'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02-2004-8204
010-4648-8200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상품명** 향운정주 (수정모사)
▣ **재 질** 크리스탈 유리알
▣ **용 도**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규 격** 1kg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특별공급가격** **1kg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구입처** 전화 02-732-1520 , 팩스 02-737-0696
▣ **계 좌**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판매원**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바이넥스 / 원산지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저는 전국 대덕 여덕 현인 기사 이인 여러분의 기대를 먼저 고민하였습니다

이번 지난 25여 년에 걸친 11회차 최종업데이트 종결로 완성한
육임USB '**효사비결**'과 육임 앱 '**육임AI**' 출시를 알려드립니다.

저, 효사는 이번 오랫동안 일관되게 쓰고 강의하고 만들고 해온 육임을 기기(機器)의 수용조건에 맞춰 큰 부끄러움 없이 완성 시켰습니다.

제가 이미 밝혀 호응받은 것들-초사(初辭) 귀신 부정 산소탈에 관련된 그 구체성 그 효과성 그 해결력에 대하여는 널리 알려져 있기에 삼가고, 금번 완성시킨 보충 부분 중 일부를 지면의 한계에 맞춰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아래에 적시된 말씀 내용은 방문자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듣지 않고 먼저-미리 알고 툭, 던지게 되실 말씀입니다.
기존의'초사'에 보태진 이 내용의 말씀의 효과는, 상대방의 절대적 신뢰를 장담하는'정면 승부가 담보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읽어 주십시오.

"자손 경사 건이네?" / "임신 해산 건이네?" / "근친 상간사가 벌어졌네?"
"윗분 추천으로 발탁돼서 크게 활약하겠네?" / "음풍(색정)사네?"
"절제 없는 간음 주색을 벌이고 있겠네?" / "집에 사망사가 생겼네?"
"재난이 오히려 복이 됐네?" / "부부가 갈라지네?"
"직위가 흔들리네?" / "남편과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네?"
"머리가 잘린 격이라- 애초에 계획이 잘못돼서 안 되는 거네?"
"허리가 잘린 격이라- 일이 중간에 두 개로 갈라지겠어"
"다리가 잘린 격이라- 일이 더 이상 진척이 안 되겠어"
"생업이 망해 가네? 울타리가 뚫려버린 격이야. 의지할 데도 없겠고"
"가정이 가울어 가네? 이사를 빨리해야 살길이 열리지"
"관재 송사가 벌어졌네? 본인이 원고(또는 피고) 구만?"
"아니, 일은 본인이 저질러놓고 발등을 찍고 싶어 하면 어쩌나?"
"급한 일이 벌어졌는데 왜 여기로 왔나?"
"바깥일을 갖고 왔네?" / "집안 일을 물으려 왔네?"

이렇게, 60갑자 매일 12국수, 전체 60일 720국수 마다 위의 내용처럼 문 열고 들어설 때, 눈이 마주쳤을 때, 슬쩍 지나칠 때, 전화가 걸려 왔을 때, 어느 장소에 같이 앉게 되었을 때- 툭 툭 툭(기존 내용-초사도 있음) 던지시면 맞는 말씀이 되고 방문자 또는 상대는 단박에 진지해지며 십중팔구, 말씀을 신뢰하여 따르게 됩니다.

기존 수록되어 있는 항목
가. 미리 알고 말씀하실 것
*초사, 방문자의 신뢰, 고집, 설득, 불성, 기도 수법효과 여부, 진실 거짓 위선 여부 일자 변경 달력보기 등등
*형이상 관련 - 귀침(작사귀 병귀), 부정침, 산소탈, 숙주 장소 및 해소 방법, 효과 일월, 침해가족장애 병 명시, 묘지앞 전경, 묘지 해당 육친, 묘지속 상태 등등
*방문자 사정 - 전체성, 구체성, 적확성 적시, 이득인, 피해인, 손해인, 무력인 표시 등등
*방문자 신분 - 대통령, 장관, 차관급, 사계 실력자, 우고자, 우고,해소될 자, 종교 진출 출세자, 유여한 자, 곤궁한 자 표시 등등.
*방문자 운세 - 운세 지점, 운세 정도, 안분 지침 명시 등등.
*당면사 종합 - 사과삼전, 천지반, 당면사 국수해설
나. 방문자가 묻는 것에 대한 판단
매매사 주식사 구재사 시험사 취직사 선거사 공명사 가정사 소송사 승부사 등등 24항목 그 성부 여부 답을 명기함.

기존 수록 구분
*개인의 소망사 성취 방법 제시 함- 매우 긴요 사항임.
(자손 희구 자, 재물 희구 자, 고관 대작 희구 자, 현재 상태 지적 등).

*당면사 - 전화상담 용, 간이법, 24항목 판단, 1년 신수 등 15개 항목.
*일생사 - 일생대계, 성품, 일생적 현재 운세, 부부궁합, 병(지나갈 병 고질병) 여부.
*일생사 색인(연월일시) 기능
*일생사 종합 - 사과삼전, 천지반 띠(命), 해당 나이별 행년 판단, 일생사 국수 해설.
*저장 기능 부여됨.
*동일시간 다음 사람 기능 버튼
*육임 초보자용으로 'B버전' 별도 장착되어 곧바로 활용하게 됨
*기타 사주 월영도 주역 육효 성명(작명감정) 부적보감 축귀신침혈 신명수법 등 다수 종목 수록됨.

*USB 프로그램 '효사비결' 200만 원(카드3개월-노트북+PC 병용) *앱 '육임AI' 90만 원(카드 3개월-휴대폰+노트북+태블릿+PC 병용)

사업자등록 : 강서 112.82-62377 출판사신고 : 강서 000055 통신판매업신고 : 강서 1885 구매안전서비스: 농협 서울역지점(2018.09.19.)

도서출판 보화천교 주문전화 : 010-7596-5146 한국육임학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곰달래로 24길 4. 세림펠리체 1301호

❖ 본 지면의 생활안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본 신문사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본불교와 단가 제도

현대불교신문은 최근 일본에서 '단가(檀家) 제도'가 약화함에 따라 관혼상제를 위한 '스님 파견 서비스'가 등장한 현상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일본불교가 오랫동안 의존해 온 단가 제도와 신도 구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 주는 징후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김옥암 안동대학교 명예교수가 일본불교 단가 제도의 기원과 흐름, 현재 상황과 한국불교에 시사하는 바를 담은 기고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일본불교의 특징인 제도인 '단가'가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등 시대 변화에 따라 약화되고 있다. 사진은 일본 사찰의 모습. 사진 출처=픽사베이

에도 막부, 대중의 정권 대항 두려워해
신앙 중심 결속 막으려 단가 제도 시행

사찰 재정 보장으로 종교성 약화 초래
단가 제도 폐지 후 의례적 행사로 남아

특정 의례·장례 기능 의존하는 종교의
신행 동력·교화력 약화, 경고등 삼아야

일본의 절에는 한국 사찰에서 볼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무덤[墓]이다. 이는 '단가(檀家)'라는 일본불교의 특수한 제도 때문이다. 단가란 집안 묘소와 장제(葬祭)를 사찰에 대대로 위임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근래 저출산·고령화, 핵가족화, 현세 이익을 구가하는 신흥종교의 출현 등 다양한 이유로 단가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

장원 소유한 대사찰 등장

12세기 말 가마쿠라 막부(幕府)의 출현은 일본 역사상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국왕은 존재하지만 막부의 쇼군(將軍)이 전국의 무사 계급을 세습적 주종관계로 조직해 사실상 모든 실권을 행사했다. 쇼군은 무사들에게 토지를 분배하고 무사는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지녔다. 이 무가정치 체제는 이후 무로마치(室町) 막부, 전국(戰國) 시대, 도쿠가와(德川) 막부로 계승됐다. 이 시대, 무사의 윤리와 함께 무인의 취향에 맞는 선종 불교를 중심으로 한 독특한 문화가 형성돼 작고 섬세하며 조용하고 그윽한 것을 지향하는 문화가 발달했다.

그런데 여러 무인 정치 시대를 거치면서 각 정권은 지방 호족과 귀족 및 사원 세력의 분권적 경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 왕권이 강화되면서 귀족정치가 발전했고, 점차 무사단과 불교 세력도 강화됐다. 당시 광대한 장원을 소유한 대사찰은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승병(僧兵)을 두었고 무인 정권과도 대등한 세력으로 부상했다. 무로마치 막부가 약화된 후 분열된 전국(戰國) 시대에는 지역[藩]별 영주(다이묘, 大名)를 위협할 정도로 힘을 가진 대사찰도 생겨났다.

쇄국정책서 비롯된 단가 제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이후 일본 통일을 실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에도(江戶) 막부를 열고(1603년), 각 지방의 자치권을 통합 지배하는 중앙집권체제[幕藩]를 확립했다. 이 중앙집권적 봉권 체제하에서 국가의 지배층은 여전히 무사 계급이었지만, 정부는 성리학적 유교 윤리로 민중을 교화하면서 치외법권적인 불교 세력에 정책적 메스를 가함으로써 국가 통치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그것이 크리스트교의 탄압을 통한 쇄국정책이다.

16세기 중엽 포르투갈인이 도래한 이래 일본의 크리스트교는 급성장했고, 조총을 비롯한 서양의 문물이 일본에 도입됐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자신이 열성 정토불교 신자임에도 처음에는 크리스트교를 묵인하고 교역을 장려했으나, 크리스트교가 서양 세력과 결탁해 정치세력으로 등장하자 탄압과 더불어 쇄국정책을 강행했다.

이러한 막부의 크리스트교 탄압에 협력한 것이 사찰이다. 사찰은 막부의 금교(禁教) 정책에 협력하는 형태로 국가권력의 중앙으로 파고들어 갔다. 막부는 크리스트교도에게 불교로 개종하는 것을 보증하는 증서[寺請證文]를 발행해, 반드시 사찰에 신자로서 귀속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것이 단가 제도의 시작이다.

'단가' 의무화로 재정 안정…부작용도

도쿠가와 시대에는 봉록 생활자인 무사 계급의 궁핍화로 농민 수탈이 강화돼 사회가 불안정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는 데다 지역 간 이동도 제한됐다. 막부는 단가에 의한 장기적인 참배나 보시(布施)를 의무화했기에, 사찰은 고정적인 '고객'을 획득하고 안정된 재정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찰은 행정기관 역할을 맡는 보상으로 수입의 안정성을 구축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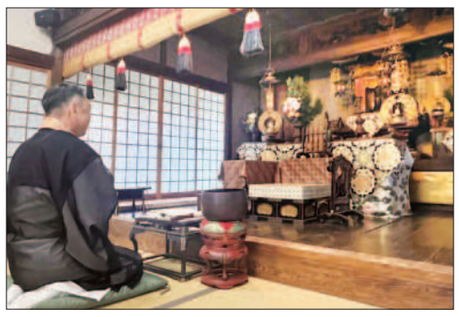
도쿠가와 막부는 1635년 '사사봉행(寺社奉行)'이라는 사원 행정을 담당하는 장관(大臣)을 두고, 사찰을 행정부의 지배하에 두는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했다. 각 절을 종파별 상하 관계로 조직해 관리 체제를 강화한 후 '후레가시라(觸頭)'라는 막부 담당 승려를 배치해 중앙 행정 명령을 각 종단에 전달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조직화하면 막부는 각 종단의 본산(本山)만을 잘 감시하면 됐다.

그러나 이 정책은 폐해도 많았다. 종파별 주지의 임명권 등 하부 사찰의 인사권 상납금 등 모든 생사여탈권이 본사에 주어졌고, 본사는 그것을 단가제로 밀어붙임으로써 결국 서민을 괴롭히는 정책이 됐다. 사찰이 단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안정된 재정을 바탕으로 타락한 생활을 하는 주지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정부는 과도한 보시나 노역을 금함과 동시에 주지 교체 등 단가에 대한 개입권을 강화해 나갔다. 또 '제종승려법도(諸宗僧侶法度)'를 제정해 승려는 학문에 전념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항도 만들었다.

정부 강제한 '불교'에 종교성 약화

당시 에도 막부가 두려워한 것은 현실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을 구심점으로 결속하고 정권에 대항하는 것이었다. 이때 대중의 결속을 막는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단가 제도였다. 신도들은 자발적 선택이 아닌 정부가 강제로 공여한 신앙에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고, 사찰에서는 안정된 고객으로 재정이 보장되자 종교로서의 역할과 진취성을 잃어버리게 됐다. 이러한 상황은 260여 년이나 이어졌는데, 일본인에게 종교성이 약화된 원인을 여기서 찾기도 한다.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신심의 알맹이를 빼내 가치가 사라지게 한 것이다.

당시 무덤은 부락의 공동묘지나 마을 밖에 있었으나 단가 제도로 절에서의 법사(法事)가 의무화되자 관리하기 쉽도록 무덤을 절 안에 두게 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지의 관심사는 신도들에게 교리를 충실히 전하는 것이 아닌, '어떻게 하면 단가를 더 늘릴지'로 이동하게 된다. 단가를 늘리는 방식 중 하나가 불교 행사의 의식화로, 부처님오신날 등 불교 관련 기념일 행사를 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조상의 추도 공양을 정기화한 것이다. 49일, 1주기 등 수차에 걸친 사후 법사를 진행함으로써 정기적인 보시 수입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교토신문'은 지난해 11월, 관혼상제에 스님을 파견하는 서비스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사진 출처=교토신문

세속화된 불교에 비판도

한편, 일본 특유의 국학에 종교색을 가미한 신도(神道)와 부유한 도시 상인 중심의 조닌(町人) 문화가 발달하면서 세속화된 불교를 비판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그 일환으로 오카야마(岡山), 미토(水戶) 등 여러 지방에서 사찰의 통폐합과 승려 수 삭감 등이 실시됐다.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메이지(明治) 유신 후 폭발하게 되는데, 그 계기는 메이지 정부가 전개한 신도국교화(神道國教化) 정책이다. 메이지 정부는 신도와 불교를 분리했을 뿐 아니라 불상 파괴와 경문 소각 등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 불교도들의 반발로 신도와 불교 간 대립 사태로까지 발전하자 정부도 진화에 나섰고, 1875년 이윽고 국민에 신교의 자유를 인정하게 됐다.

메이지 시대에는 문명개화의 열풍으로 서양의 의식주 생활을 모방하는 풍조가 만연하면서 자유 민권 운동도 전개됐다. 정부는 1872년, 승려가 고기를 먹거나 처(妻)를 취하며 머리카락을 기르는 행위 등을 허용하는 '포고령(太政官布告)'을 내렸다. 일부 사찰들은 이러한 규제 완화를 환영했다. 자식에 사찰을 계승할 수 있는 데다 세습제는 단가 제도를 유지하는 데 합리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시기 신흥종교의 대두는 또 다른 특징이다. 메이지 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당시 약 175만 명의 신자를 포용한 천리교(天理教)를 비롯한 신흥종교가 탄생했다. 그중에서도 눈부신 실적을 올린 것은 창가학회(創價學會)였다. 신흥종교의 특징 중 하나는 현세(現世) 이익이다. 전후 경제가 부흥하고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사람들은 현세를 보다 살기 좋은 만들어야 한다는 욕구를 추구해 갔다. 몇 개의 교단은 그러한 욕구에 상응하는 형태로 세력을 펼쳐 나갔다.

장기 계약으로 신뢰 잃고 의례화

반면 사찰은 이러한 흐름에 부응하지 못했다. 에도 시대 이래 '지역밀착형 장제사업자'에 머문 사찰은 신앙 시장에서 고객 욕구에 대응할 만한 종교 활동을 제공할 수 없었다. 정부의 복지정책 강화도 사찰에는 역풍이 됐다. 가마쿠라(鎌倉) 시대에는 에이손(叡尊)과 그의 제자인 닌쇼(忍性)라는 승려가 한센병 환자의 구조 활동을 했고, 사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시설로서 역할을 했다. 이러한 자선사업은 출가자가 보살(수행자)로서 중생(일반인)을 구제함으로써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세상을 위한 사찰의 존재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가행정에 의한 종합적인 복지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사찰의 복지 활동은 그 의미를 잃게 됐다.

메이지 시대에 단가 제도는 사실상 폐지됐지만, 신도와 사찰과의 계약 관계로서의 단가 제도는 존속해 현재까지 뿌리 깊게 남아 있다. 단가라는 장기 계약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문제는 계약이 장기화되면서 긴장감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단가는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의례적인 행사로 이어지면서, 참된 불교신자로서의 신념과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다. 또 절의 주지는 지역의 장례 및 법률 상담사로 인식돼 중생 구제와 포교 활동이란 본래 업무를 등한시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단가 위기, '신행 자발성 회복' 경고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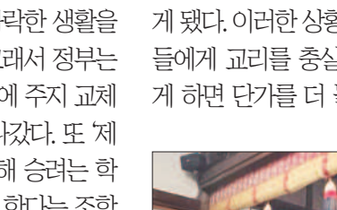
단가 제도가 하루아침에 없어지진 않겠지만, 문제는 근래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나 핵가족화란 흐름에서 장례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불교에서도 눈여겨봐야 할 점이다. 한국불교 역시 신행공동체의 노령화, 가족 구성의 급속한 변화라는 점에서 이미 유사한 징후를 보이고 있다. 일본불교의 사례는 종교가 특정 의례나 장례 기능에 과도하게 의존할 때, 신행의 내적 동력과 교화력이 약화되고 미래 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잃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준다.

장례와 제례를 넘어, 일상과 수행·교육·사회 참여 속에서 체험 가능할 때 종교는 다음 세대와 연결될 수 있다. 일본의 단가 약화는 경고등이다. 제도적 안정보다는 교리의 생명력, 행정적 관계보다는 신행의 자발성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김옥암
안동대학교 명예교수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얼과혼이담긴 우리민족의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윤인수 원장 연구개발

겨우살이환
재료명 : 겨우살이, 느릅나무뿌리껍질, 도라지, 마가목열매, 더덕, 모과, 천문동, 맥문동, 비파잎, 삼백초, 뽕나무뿌리껍질, 둥굴레뿌리, 무화과, 탱자, 대추, 산사나무열매, 맥아
비염이 있습니까? 숨이 차십니까? 기침,가래가 힘드십니까? 천식에 힘드십니까?

여주환
재료명 : 여주, 돼지감자, 바나바잎, 민들레, 복분자, 옥수수수염, 오미자, 구기자, 천문동, 창출, 뽕나무뿌리껍질, 음나무줄기, 독활, 작약, 칡뿌리, 감초, 산사나무열매, 맥아
당뇨 있으신 분 혈당수치관리에 좋습니다. 다이어트가 필요하신 분은 꼭 드세요.

전복껍데기환[석결명 스틱]
재료명 : 전복껍데기, 마리골드, 국화, 민들레, 엉겅퀴, 백작약, 다시마, 톳, 산사나무열매, 맥아
노안, 안구건조증,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등 눈에 문제가 생기면 석결명환으로 해결하세요.
세종대왕께서도 드셨다고 세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도 제주도 유배시 석결명환을 드셨다고 방송되었습니다.

폐청소법, 치매·중풍, 고혈압 잡는 방법은
윤인수 원장의 경혈자극요법을 활용하세요.
기침, 가래, 기관지염, 비염, 폐렴, 기관지폐렴, 폐 화농증, 편도선염, 축농증, 천식, 불면증, 수면장애, 어지럼증, 두통, 이명(귀울림), 구안와사, 조현병, 협심증, 위염, 위경련, 변비, 어깨·관절통증, 발목관절통증, 오십견, 목이 쉬었을때, 전립선 질환, 요실금, 콩팥위축, 방광염, 신장염, 황달, 간경화, 피부가려움증, 다이어트, 생리불순, 백내장, 각막염, 결막염, 녹내장, 황반변성, 야맹증, 원형탈모증, 삼차신경통(상지, 중지, 하지) 등


전화주시면 간략하게 설명드립니다

골담초환
재료명 : 골담초분말, 쇠무릎뿌리, 황칠나무, 두충, 가시오피, 참당귀, 울금, 덩이뿌리, 쇠비름, 독활뿌리, 개다래열매, 천마뿌리, 율무, 질경이, 음나무줄기, 왕느릅나무껍질, 엉겅퀴, 산사나무열매, 맥아
허리, 다리가 불편하십니까? 오래 걷기 힘드십니까? 계단 오르기 힘드십니까?

산수유환
재료명 : 산수유, 호박씨앗, 옥수수수염,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구기자, 오미자, 천궁, 우슬, 복령, 산청목, 질경이, 뽕나무뿌리껍질, 두충, 산사열매, 맥아
소변때문에 밤에 몇번씩 일어나십니까?

어성초환
재료명 : 어성초, 적하수오, 자소엽, 측백나무잎, 서목태, 원지, 우슬, 천문동, 마가목열매, 복분자, 솔잎, 뽕나무뿌리껍질, 녹차잎, 창출, 구기자, 산사나무열매, 맥아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십니까?

하지·아이케어센터
구입문의 : 02-969-9007 / HP.010-3245-0118
농협 : 301-0234-9633-61 / 예금주 : 윤제하

끝없는 자리이타 보살행의 이상적 인간

사찰벽화 명작순례

②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살 벽화.



영덕 장육사 대웅전 보현보살 벽화.

보살은 대승불교의 이상적 수행자

대승불교의 두드러진 특성은 보살 개념의 성립에 있다. 보살(菩薩)의 어원은 인도 산스크리트어 '보디삿트바(bodhisattva)'로, 팔리어로는 '보디삿따(Bodhisatta)'다. '보디'는 깨달음, '삿따'는 존재를 뜻한다. 중국어로 한역해서 '보리살타(菩提薩埵)', 줄여서 '보살'이 됐다. 어원을 통해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라는 의미임을 알 수 있다. 보살 개념은 대승불교 사상의 정수이고, 대승불교의 상징적 존재다. 대승불교의 보살철학은 '상구보리 하화중생'으로 압축된다. 위로는 진리를 추구하고, 아래로는 중생구제를 실천한다. 그것을 '보살행'이라 부른다. 대승불교에서 보살행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다. 보살행은 다른 것이 아니다. 모두를 이롭게 하는 '자리이타행(自利利他行)'을 끊임없이 실천하여 성불에 이르는 것이다. 부파불교에서 자기 자신 중심의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성문, 연각의 이승(二乘)과는 다른 차원의 수행자상을 정립한 것이다. 보살은 대승불교 수행자의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됐다.

문수·보현보살은 대승불교의 상징

부처가 되는 보살행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 굴러간다. 하나는 지혜, 다른 하나는 자비행이다. 지혜와 자비는 불교의 두 기둥이다. 그런데 두 개의 기둥은 이원성을 초월한 것으로 둘이 아니다. 이에 상징적인 두 보살이 출현한다.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그 주인공이다. 상구보리-문수보살-지혜, 하화중생-보현보살-자리이타행의 양 날개를 갖춘다. 두 분은 불가분의 지행합일의 통일체로서 한 몸이다.

문수보현보살 벽화는 영덕 장육사 대웅전, 제천 신륵사 극락전, 김천 직지사 대웅전, 청송 대전사 보광전, 청주 월리사 대웅전, 상주 남장사 극락보전, 울진 불영사 대웅보전 등 10여 곳에서 볼 수 있다. 이 중 교의를 반영한 종교적 성스러움과 예술의 미를 갖춘 벽화로는 장육사와 제천 신륵사, 직지사 벽화 등 셋을 손꼽는 데 이의가 없다. 세 벽화는 한국산사 문수보현보살 벽화의 수작으로서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벽화의 배치나 조형 형식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비교 대상이 된다. 세 벽화를 비교·분석하면 질 들뢰즈의 〈차이와 반복〉에서의 언급처럼 반복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차이는 반복을 만들어 내는 원리에 수긍의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른다. 거듭되는 반복은 차이를 유발하며 그 차이가 새로움의 고유성을 부여하는 생명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먼저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 벽화를 다룬다.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 벽화는 형식적 법식을 두루 구현하고 있다. 대웅전 동쪽 벽면엔 여의 가지를 손에 쥔 사자 탄 문수보살을, 서쪽 벽면엔 붉은 연꽃 가지를 손에 쥔 코끼리 탄 보현보살을 그렸다. 여의보주 가지는 지혜, 연꽃 가지는 자비의 상징이다. 벽화에서 두 보살은 불화나 불상에서의 성인 모습과는 다르게 머리 양쪽에 쌍상투를 묶은 동자 모습으로 묘사했다. 왜 동자상인가? 믿음으로 발심하고 보현행원의 대행에 나서는 것이 티 없이 순수하고 진실되며 청정하기 때문이다.

채색원리도 규범과는 약간 다르다. 규범적으로는 동-문수보살-청색 사자, 서-보현보살-흰 코끼리의 체계로 그린다. 동-청색, 서-백색의 구도로 방위에 맞춰 색을 베푼다. 장육사 대웅전 두 보살도의 사자와 코끼리 채색에선 흰색 바탕 위에 연한 황색을 가볍게 덧칠한 색으로 통일했다. 반복은 차이를 발생시킨다. 원래 예술에선 모방은 있되, 규범은 강제될 수 없다. 예술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에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종교의 성스러움이 현현하는 불화에선 특유의 법식이 작용한다. 불화는 대단히 보수적이며 역사적인 회화다. 장인에서 장인으로 세대에 걸쳐 전해지는 사자전승의 계보가 있고 저마다의 독특한 화풍이 있다. 동시에 규범의 보수적 가치는 유지하되 개성 있는 창조로 법고창신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 달리 해석하는 장인의 소명이기도 하다. 장육사 벽화에는 장인의 개성을 읽는 즐거움이 있다.

'문수달천진', '보현명연기'의 방제

대웅전 동서 벽면은 힘과 '아우라'로 충만하다. 무엇보다 벽화의 크기가 대형이다. 가로 205㎝, 세로 130㎝에 이른다. 화면은 대략 8:5=1.6:1의 황금비율로 안정감을 갖췄다. 안정적인 화면 구도에 활력을 불어넣는 소재는 바람에 나부끼는 보살의 천의자락과 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 코끼리의 야생성이다.

보살은 '깨달음 추구하는 존재'란 의미
문수보살은 지혜, 보현보살은 자리이타
사자 탄 문수보살–동쪽 벽–여의 가지
코끼리 탄 보현보살–서쪽 벽–연꽃 가지



영덕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방제.

두 보살 벽화엔 보살의 공덕을 압축한 방제를 새겨 뒀다. 검은색 바탕에 단정한 해서체의 흰 글씨로 각각 다섯 자씩 적었다. '문수달천진(文殊達天眞)'과 '보현명연기(普賢明緣起)'다. 하늘의 진리로 직역되는 '천진'은 진리 그 자체인 '진여'를 이른다. '문수달천진', 문수보살은 진여를 통달했다는 것이다. '보현명연기', 즉 보현은 연기를 밝혔다고 적었다. 보현보살이 밝힌 연기는 무엇일까? '사사무애 법계연기'다. 사사무애는 '삼라만상이 둘이 아니다'는 의미다. 보현보살은 그 연기의 진리를 밝혔다는 것, 즉 증명했다는 것이다. 어떻게 가능한가? 보현보살은 진리인 이(理)를 바탕으로 자비행을 실천함으로써 증명해 보였다. 삼라만상이 둘이 아님을 자비행의 실천으로 실증하신 분이 보현보살이라는 것이다. '대공양예참전문', 서산대사의 〈선가귀감〉에도 나오는 간결한 두 구절로써 벽화의 주제와 내용에 대해 중언부언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 저토록 간결하고 명쾌한 그림 방제는 본 적이 없다. 장육사 대웅전의 문수보현보살도가 가진 특별한 의의는 저 방제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사자처럼 용맹하게, 코끼리처럼 흔들림 없이

진리에 이르는 길은 믿고 두려움 없이 용맹정진하는 것이다.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한다. 또 올바른 실천은 흔들림 없고 확고부동하다. 진리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실천은 코끼리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문수보살은 사자를, 보현보살은 코끼리를 탄 모습으로 묘사한다. 벽화 속에 일체의 경전 가르침이 녹아 있다. 벽화도 또 하나의 경전이다.

그러한 뜻은 벽화 세부에서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먼저 두 분의 발을 눈여겨보자. 문수보살은 맨발이다. 보현보살은 끈 달린 샌들 형식의 신을 신었다. 문수보살은 사자좌에 앉아 선정에 들었고 보현보살은 길 위, 곧 보현행에 나섰음을 암시한다. 두 서수들도 마찬가지다. 두 서수의 꼬리 표현에서도 일관된 의지가 보인다. 문수보살이 타고 있는 사자는 이미 땅에 엎드린 상태다. 꼬리는 엎드린 얼굴 쪽으로 휙 감았다. 엎드려 쉰 지 오래됐다. 보현보살이 타고 있는 코끼리를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심상치 않다. 잘 뻗어 난 상아 여섯을 가진 코끼리는 긴 코를 하늘로 쳐들었다. 입을 벌려 혀도 세웠다. 길게 울부짖으며 포효하는 듯한 모습이다. 힘차고 커다란 꼬리마저 하늘로 치켜세웠다. 뒷발엔 앞으로 향하는 운동력을 실었고 앞의 왼발은 한 발 앞으로 쭉 내디뎠다. 큰 발바닥엔 신중함과 흔들림 없는 부동의 묵직함이 뱄다. 보현행의 특성이 두루 녹아 있다. 묵묵히 흔들림 없이 부단하게 전진하는 길, 벽화는 그것이 보현행임을 일깨워 준다.

바람에 나부끼는 천의 자락의 처리나 구름 표현에서도 마찬가지다. 문수보살의 천의 자락은 좌우대칭으로 정리된 모습이다. 좌우 구름도 단정하게 뭉게뭉게 피어올랐다. 문수보살 벽화는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부드럽다. 문수보살의 눈도 졸린 듯 풀려 있다. 고요히 삼매에 드셨다. 그에 비해 보현보살 벽화는 역동적이고 힘이 충만하다. 양팔에 걸쳐 있는 천의 자락은 바람에 나부끼는 듯 뒤로 물결친다. 층층이 바림을 푼 구름도 뒤로 퍼져 흐른다. 소재마다 운동에너지가 기운생동하다. 붉은 연꽃 가지를 손에 쥔 보현보살의 오른손 검지를 보라.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보현보살이 가리키고 있는 곳은 어디인가? 가자, 저기 중생 속으로! 보현행원의 십대원의 깃발 들고 코끼리처럼 흔들림 없이 성불의 한길로 굳세게 나아가자! 보현보살 벽화 속에 범종의 울림이 있다.

바람에 흔들리거든 장육사 대웅전 문수보현보살 벽화 아래에 가서 저 소리 들어라.



노재학 작가

중국 구화산, 보타산 6일
지장보살의 도량 구화산과
관음보살의 도량 보타산 순례
3월21일 출발~3월26일 도착
▶ 동참금 : 169만원

중국 아미산,낙산대불,대족석굴 5일
보현보살의 도량 아미산과 낙산대불,
중국 4대석굴중에 하나인 대족석굴 순례
3월25일 출발~3월29일 도착
▶ 동참금 : 149만원

중국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성지순례 5일
1,500년전에 조성된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화현처 오대산 순례
6월07일 출발~6월11일 도착
▶ 동참금 : 159만원

오대산과 조주,임제선사 7일
운강석굴과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과 조주, 임제선사 순례
출발일 : 6월07일 출발~13일 도착
▶ 동참금 : 189만원

인도 히말라야 라다크 순례 8일
고색창연한 티베트 사원들과 천년벽화의 신비 알치곰파
그리고 유명한 헤미스사원 축제
6월21일 출발~6월28일 도착
■ 일정: 델리-라다크(레)-알치-라마유루-레-헤미스-판공호수-레-델리
▶ 동참금 : 369만원

티베트 순례 칭짱열차 8일
라싸-간체-시가체-삼예-칭짱열차-서녕-서안 등
티베트 주요 성지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 출발~6월13일 도착
▶ 동참금 : 문의

우주의 중심-
티베트 수미산 순례 16일
부처님의 탄생과 같은 말띠 해인 2026년도는
12년 만에 찾아오는 성스러운 수미산 순례의 기회입니다.
6월16일 출발~7월01일 도착
▶ 동참금 : 570만원

중국 실크로드 성지순례 10일
삼장법사 현장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최고의 순례 길
4월01일 출발~4월10일 도착
6월04일 출발~6월13일 도착
■ 일정: 인천-서안(진시황병마용갱,화청지)-법문사(부처님불지사리)-천수(맥적산석굴)-난주(병령사석굴)-장액(대불사)-칠채산(일곱빛깔 무지개산)-가욕관·돈황(막고굴,명사산)-유원-투루판-우루무치(천산천지)-인천
▶ 동참금 : 349만원

이탈리아 돌로미테 여행 9일
26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돌로미테 코르티나담페초와
오르티세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로
7월 초는 야생화가 만발한 최고의 힐링코스입니다.
출발일 : 7월02일~7월10일 출발확정
▶ 동참금 : 800만원

우즈베키스탄 불교성지 순례 7일
고대 실크로드의 중심 지역이었던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와
테르미즈의 불교사원 등 순례 일정입니다.
6월06일~6월12일(5박7일)
▶ 동참금 : 309만원

백두산, 고구려유적 순례 5일
6월25일 출발~6월29일 도착
■ 일정: 인천-연길-백두산 천지(북파,서파 2곳 등정)-집안(고구려 옛수도-광개토대왕비)-심양-인천
▶ 동참금 : 159만원

예약 · 상담 02)720-9600
마음여행 실크로드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8, 에스앤에스빌딩 901호
마음여행사 검색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시, 불교를 만나다

㉕ 속도인가, 방향인가? : 반칠환의 '새해 첫 기적'



해당 삽화는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들보다 한 발이라도 앞서야 생존할 수 있는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상화된 음식 배달이나 각종 배송 산업 또한 속도가 관건이 되고 있다. 요즘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등장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한 사람이 며칠씩 걸리는 일도 AI에 맡기면 단 몇 초 만에 임무를 수행한다. 속도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상대가 나타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을까 걱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개인적으로 기획하고 있는 일을 시험 삼아 AI에 물어본 적이 있다. 적어도 몇 달이 소요되는 작업이었는데, 인공지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었다. 지금도 그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왜 사람들이 AI에 의존하는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물론 정확도는 떨어지지만, 이 문제는 오래 지나지 않아 해결될 것이다. 범용인공지능(AGI)이 휴대전화처럼 일상화되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궁금증과 함께 두려움이 밀려왔다.

속도가 빨라지면 좋은 점도 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른 채 빠르게 달리다 추락할 수도 있으니 말이다.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인도의 우화가 있다. 토끼가 낮잠을 자고 있는데, 도토리 열매 하나가 머리 위로 떨어졌다. 깜짝 놀란 토끼가 큰일이 난 줄 알고 뛰기 시작하자 사슴과 노루 할 것 없이 다른 동물도 그 뒤를 따라 빠르게 달려갔다. 이 광경을 본 사자는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것 같아 그들 앞을 가로막고 물었다.

"너희들, 어디를 향해 달리고 있느냐?"

아무도 답할 수 없었다. 사자는 다시 "왜 그렇게 빨리 뛰느냐?"고 물었지만, 이 질문에 답하는 동물 역시 없었다. 그저 옆에서 뛰니까 뒤처지지 않으려고 빨리 달렸을 뿐이다. 토끼를 비롯한 여러 동물의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사는 우리를 보는 것 같다. 우리는 정말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그렇게 빨리,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일까?

속도는 달라도 여러 동물이 같은 날 한 장소에서 만났다는 짧은 시 한 편을 만났다. 반칠환 시인의 '새해 첫 기적'이라는 시다. 제목도 그렇지만 내용이 인상적이어서 새해만 되면 많이 소환되는 작품이다. 황새와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가 새해 첫날 도착했는데, 바위는 이미 앉아 있었다는 내용이다. 속도를 강조하는 오늘날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주는 것 같아 소개한다.

반칠환 시인은 199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부문에 당선돼 등단한다. 시인은 각종 신문에 글을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데, 특히 동아일보의 '이 아침에 만나는 시'를 비롯해 서울경제신문의 '수요일에 만나는 시' 코너를 통해 독자들에게 좋은 시를 소개해 왔다. 현재 시와 산문을 쓰면서 생태 숲해설가로 활동 중이다. 시집으로 〈뜰채로 죽은 별을 건지는 사랑〉과 〈웃음의 힘〉, 〈전쟁광 보호구역〉 등 다수가 있다. 이 밖에도 〈누나야〉, 〈새해 첫 기적〉 등의 시선집과 사화집도 출간했다. 그의 시 가운데 '노랑제비꽃'은 중학교 교과서에 수록될 정도로 많이 읽히고 있다. 잠시 감상해 보자. "노랑제비꽃 하나가 피기 위해 / 숲이 통째로 필요하다 / 우주가 통째로 필요하다 / 지구는 통째로 노랑제비꽃 화분이다"

이처럼 그의 시는 짧으면서 웃음과 해학으로 가득하다. 반면 여운은 길어서 시를 읽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넓은 편이다. 그래서인지 삶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는 작품이 많다. 짧고 빠른 것을 선호하는 요즘 세대에 맞는 것 같지만, 시인의 다음 말을 들으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진다. "속도의 시대에, 속도를 따라잡으며, 속도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마치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빨리만 달리던 동물을 멈춰 세운 사자를 연상케 한다. 시인이 우리에게 '한 템포 쉬고' 잠시 멈춰 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 같다. 오늘의 시 '새해 첫 기적'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은 2012년 '광화문 겨울 글판 문안(교보빌딩)'에 선정되기도 했다. 직접 감상해 보기로 하자.

2012년 '광화문 겨울 글판 문안' 선정 시
속도의 시대, 방향의 중요성 재확인케 해
달리기 멈추고 지향하는 바 되돌아봐야

"황새는 날아서 / 말은 뛰어서 / 거북이는 걸어서 / 달팽이는 기어서 / 굼벵이는 굴렀는데 /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속도보다 방향

몇 해 전 신년 법회에 참석한 학인들과 함께 이 시를 읽은 적이 있다. 누군가는 자가용을 타고 왔으며, 버스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온 학인도 있었다. 젊은 사람은 한걸음에 계단을 뛰어 올라왔지만, 나이 들고 다리가 불편해서 힘들게 올라온 이들도 있다. 그런데 법당에 들어서니 부처님은 시 속의 바위처럼 앉은 채로 이미 도착해 있었다. 서로 다른 방법과 속도로 왔지만, 새해 첫 법회에 우리는 모두 불교대학 법당에 함께 있었다. 이것이 진정 새해 첫 기적이 아닐까 싶었다.

이 시를 다시 읽으면서 뜬금없이 불교의 돈점(頓漸) 논쟁이 생각났다. 돈은 즉각적이라 새나 말처럼 빠르고, 점은 점차적이라 거북이처럼 느리다는 점에서 연상된 것 같다. 알려진 것처럼, 즉각적인[頓, sudden] 깨침을 강조하는 6조 혜능(慧能)과 점차적인[漸, gradual] 수행을 중시하는 신수(神秀)의 차이에서 일어난 논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부터 이른바 돈오돈수(頓悟頓修)와 돈오점수(頓悟漸修) 논쟁으로 이어져 한국불교가 양적·질적으로 크게 발전했다.

〈단경(壇經)〉에는 5조 홍인(弘忍)이 후계자를 정하기 위해 문제를 내고 신수와 혜능이 답안을 제출하는 과정이 매우 극적이고 흥미롭게 전개된다. 먼저 신수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고 밝은 거울[明鏡]에 비유했다. 거울에 먼지가 끼지 않으려면 열심히 털고 닦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번뇌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점차적인 닦음을 주장하는 전통을 북종선(北宗禪)이라 한다.

반면 혜능은 이와는 확연히 다른 답안을 제출했다. 거울이라는 마음에는 본래부터 먼지(번뇌)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왜냐하면 먼지가 있다고 전제하는 한, 영원히 닦음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깨침이 설 자리가 없다고 본 것이다. 그는 우리의 마음은 원래 번뇌가 없어서[空] 항상 청정하다고 생각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실상을 즉각적으로 깨치는 일이다. 돈오를 강조하는 남종선(南宗禪)의 전통이 탄생하는 순간이다. 스승은 혜능이 견해가 더 좋다고 판단해서 6조의 자리를 물려준다.

한국에 들어온 선불교는 혜능 중심의 남종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중국에 유학하고 귀국해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을 확립한 선사들도 대부분 혜능의 전통을 계승했다. 물론 북종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전승되지 못했다.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 역시 남종의 전통에서 정체성을 찾고 있다. 수행 또한 화두를 참구하는 간화선(看話禪)을 중시하고 있다. 이 수행 체계가 견성(見性)을 이루는 데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 해서 '경절문(徑截門)'이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수행자들은 안거(安居) 기간에 화두를 타파하고 마음을 깨치기 위해 정진의 밤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다.

이런 전통 때문인지 참선은 중시하고 염불과 같은 수행은 가볍게 여기는 풍토가 남아 있다. '선은 상근기요 염불은 하근기'라는 말에서도 이를 엿볼 수 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어려운 참선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보다 쉬운 염불을 하라는 것이다. 염불이나 주문, 절 수행 등이 깨침을 향한 독자적인 수행이 아니라 단지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문다는 시선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수행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깨친다는 방향에 있는 것이지, 방법이나 속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참선이든 염불이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 똑같은 부처가 되는 것이다. 실제 근대의 고승으로 알려진 수월(水月, 1855~1928) 선사는 스승인 경허(鏡虛, 1849~1912) 선사의 지도에 따라 천수다라니를 열심히 수행하고 깨침에 이르렀다고 전한다. 올바른 방향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력 수행에 매진한 결과 깨달음에 이르고 오늘의 한국불교를 있게 한 선지식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를 통해 속도나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시에서 강조한 것처럼 황새와 말, 거북이, 달팽이, 굼벵이는 모두 속도와 방법이 달랐다. 하지만 목적지는 같았기에 모두 '한날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미 바위는 오래전부터 깨침이라는 부처의 자리에 진득하게 앉아 있었다. 모두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 같은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짜 기적이 아닐까?

이 시를 읽으면서 어디를 향하는지, 무엇을 위하는지도 모른 채 속도에만 열을 내는 오늘의 우리 모습도 돌아보게 된다. 이제 가던 길을 멈추고 "뭣이 중헌디?"를 물어야 한다. 그래야 속도와 눈앞의 이익만 강조하다 벌어진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오늘의 인문학과 불교가 그런 역할을 하면 좋겠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내 우물 안만 보지 말고 바다를 보라

우리가 소년 소녀 가장 돕기라고 했지만 가장 돕기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억겁을 거치면서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진화되고 화해서 인간까지 이렇게 왔고, 인간이 돼서도 또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면서 헤아릴 수 없는 광년을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내 자식 아님이 없고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형제 아님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신다면 어떤 게 내 부모고 어떤 게 내 부모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기며, 어떤 것이 내 자식이 아니고 어떤 것이 내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평소에도 모두를 내 아픔같이 생각하고 또 내 한도량으로서 내 몸과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몸과 마음이 둘이 아니요, 또는 자(子)와 부(父)가 둘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불교(佛教)가 어떠한 것인가. 불(佛)이라는 것은 일체 만물만생의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교(教)란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나서 배우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하는데, 또 물리가 터져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 문명을 발전시키는 여건이 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것도 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란 진리인 것이지 어디 한군데 국한된 종교가 아닙니다. 이 우주와 더불어 삼라만상 자체, 만물만생이 전부 직결돼 있고 가설이 돼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몸속에 있는 생명들도 내가 마음 쓰는 대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종교 내 종교 하고 싸울 겨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기들이 물 바깥으로 나오면 죽듯이, 인간도 공기 주머니 속에서 한 발짝도 에누리 없고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그 공기 주머니가 버스라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오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네 걸상 내 걸상 하고 싸우고, 네 걸상이 옳으니 내 걸상이 옳으니 하고 싸우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그게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머리 깎은 사람이나 목탁 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체가 다, 만물이 다 같이 시공을 초월해서 돌아가면서 이심전심으로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나무 한 그루도 새 한 마리도 통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나와서 볼 때에 시급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광대한 진리, 불교라는 그 언어 없는 언어를 성실히 실천해 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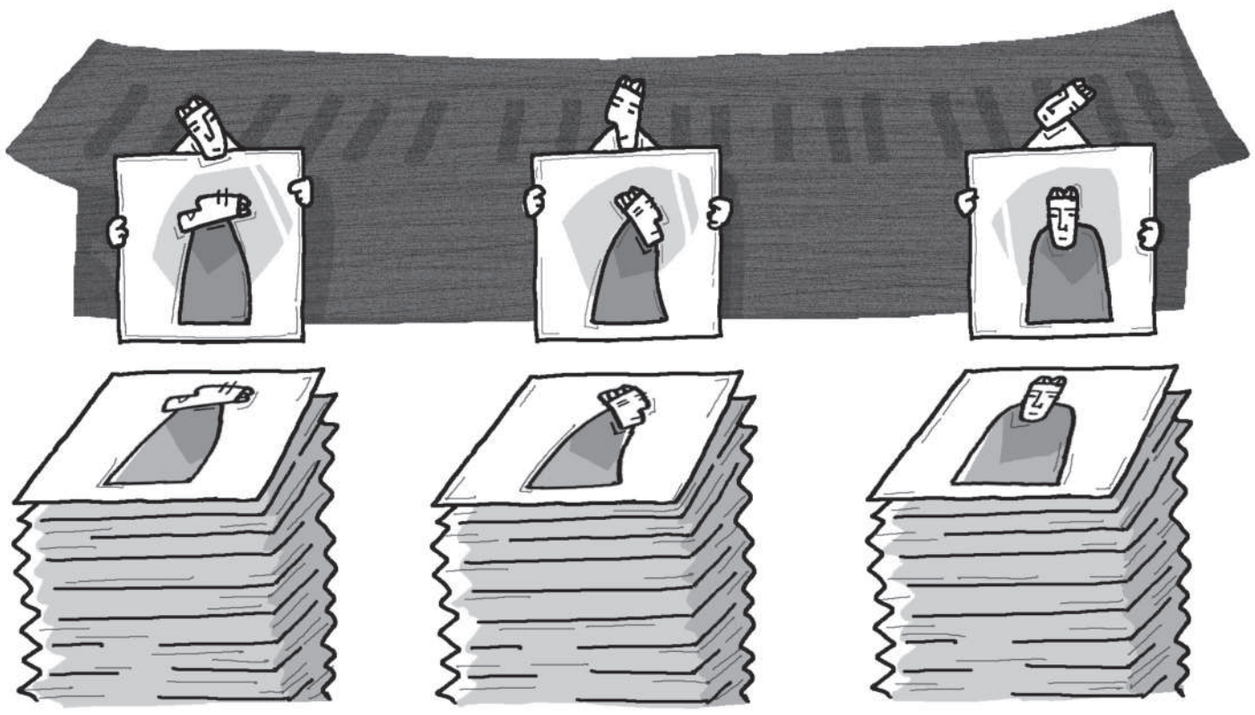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못났든 잘났든 이 세상에 났다면 우리가 바로 '불(佛)'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이 상대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있음으로써 상대가 있고 부처님도 계시고 부모도 있고 가정도 있는 것인데 '나'는 버리고, '나'는 생각지도 않고 항상 이름과 형상에만 매달려서 모두 밖으로 찾으면서 기도한다면 아무리 보기는 좋고 멋은 있을지언정 참자기는 발견을 못 할 겁니다.

우리가 내세울 게 없는 것이 뭐냐 하면, 자기 자신도 몸속에 헤아릴 수 없는 생명과 의식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억겁 전으로부터 우리가 진화돼서 형성됐다는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몸이라고요. 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들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까? 그런데 몸속에 있는 그 모습들 중의 하나가 만약에 큰 물체로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축소돼서 모두 여러분의 몸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인과성, 업보성, 유전성, 영계성, 세균성 이 다섯 가지로 주둔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주둔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인과로서 나의 몸에 모두 주둔이 돼서 있는 데 말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서 생각난다고 해서 생각되는 대로 '내 마음에서 나오지.' 이렇게 생각은 마세요. 그거는 의식 속에서, 그 다섯 가지의 의식 속에서 다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의 심봉이라는 선장은 바로 불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주인공이라고도 하고, 여러 이름이 많습니다마는 그 선장은 바로 움죽거리지도 않으면서 중심에 끼워져 있는 심봉과 같은 겁니다. 수레 중심에 끼워져 있는 그 중심축입니다. 그걸 주장자라고도 합니다. 그 심봉은 힘을 배출해 줄 뿐이지 부동한 것인데 바퀴가 모두 거기에 의지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몸 자체가 수레라고 본다면 우리 부처님 자체, 근본이 바로 그 심봉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시공이 없이 돌아간다'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보는 거, 듣는 거, 말하는 거, 가고 오는 거, 만나는 거, 먹는 거, 싸는 거, 자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모두가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게 하는 게 하나나 있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망했다, 내가 잘되게 했다' 이렇게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 이 소립니다. 어떤 거 할 때에, 어떤 거 볼 때에 내가 봤다고 하며 내가 했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도 본다면 때에 따라서 "여보!" 하면 남편이 되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되고 "얘, 아무개야!" 부르면 바로 아들이 되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어서 돌아가듯이 인생살이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니라. 그 공마저도 공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불교라는 이 자체가 광대하고 어마어마해서 말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말로는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고 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없는 진화를 해 왔습니다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모습, 자기 차원이 주어지곤 하죠. 인생이라는 것이 망망대해에 배 띄워 놓은 거와 같고, 살얼음판을 딛고 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어떡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구덩이에 빠질 수가 있고 물에 빠질 수가 있고 어떡하다 보면 배가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는 여러분의 몸을 배로 비유했고 몸뚱이 속의 생명들을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마음들이 의식적으로 모두 한 심봉의 선장으로다가 합쳐 주지 않는다면 배는 뒤집히게 돼 있죠. 한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체 만물만생 중에 무정물이든 식물이든 간에 뿌리 없이 사는 싹은 하나도 못 봤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도 영원한 자기 선장의 뿌리가 있는데도 그 선장을 믿지 않고 타의에서 자기 자신을 구한다면 백 년 만 년이 가도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겁니다.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올바로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쓸 때에 내가 했느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느냐에 따라서

☞ 20면으로 계속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주인공에다 모든 것을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

☞ 19면에서 계속

내 마음 그 자체도 천차만별로 하는 사이 없이 나갑니다. 고정됨이 없어서 하는 사이 없이 하고, 가고 오는 사이 없이 가고 오고, 보는 사이 없이 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가 했다' 하는 생각도, '내가 안 했다' 하는 생각도 그냥 묵묵히 놓고 가라는 겁니다. 바로 자기 몸뚱이, 생명의 집합소가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속에 그 생명을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주인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주인을 바로 부처라고도 하고 자기 주인공이라고도 합니다. 타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자의에, 나로부터 세상은 있는 겁니다. 사대 성인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부터 믿고 너부터 알아라. 너를 알아야 하나로 돌아가는 이 우주의 섭류도 다 알 수 있느니라. 너를 모른다면 어떻게 남을 알 수 있으며 우주의 섭류를 알 수 있겠느냐." 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마음이 묘하고 광대한 것을 여러분은 모르고 착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신도님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모르더라도 좋다. 일거수일투족 들어오고 나가는 거, 내고 들이는 거, 그것을 하는 놈이 누구냐. 네가 하지 않느냐. 바로 네가 한다면 네가 어떤 거 할 때 너라고 할 수 없으니 바로 주인공이다. 그러니 주인공에다 모든 걸 맡긴다면 일체가 무너진다."라고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우리는 고등 동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입력이 됩니다. 그런데 불가에서는 오신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심안으로 보는 거, 마음의 귀로 듣는 거,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남의 마음을 아는 사이 없이 아는 거, 자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거, 그래서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타심통이 다섯 가지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그것이 말입니다, 시쳇말로 다섯 가지가 갖추어진 컴퓨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모른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고 가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그 자체가 바로 입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가는 그 자체가 입력이 되어서 입력된 것이 현실로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도 과거고 일 초 전도 과거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는 것이 현실에 모두 나오니까 말입니다. 컴퓨터에 입력이 되면 그대로 현실로 나오죠? 그런 거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리에다 놔라" 하는 것은 뭐냐. 그 입력된 것이 나오는 자리에다 되입력을 한다면 앞서 입력된 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이 과거의 모든 유전성 업보성, 그 다섯 가지가 없어질 수 있고 또한 거기는 팔자 운명도 붙지 않는 자리다 이겁니다. 바로 입력된 게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말로 하든 상식으로 하든 지식으로 하든 어떠한 걸로 해도 그거는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다가 다시 입력을 해야만이 그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아니라면, 타의에서 구해서는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느니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한테 이런 말 하죠. 여섯 가지 대신 못 해 주는 게 있습니다. 밥 먹는 거, 똥 누는 거, 자는 거, 아픈 거, 죽는 거, 깨닫는 거 이 여섯 가지를 누구도 대신 못 해 줍니다. 대신 못 해 주는 이 자체가 바로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요, 오는 것도 그 자리요, 사는 것도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과거가 있다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 초 전에 과거였는데 현실로 오느라고 과거라고 했습니다. 현실로 오기 위한 방편에 의해서 과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인해서 현재로 오려면 그 사이가 미래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란 얘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현재도 공했느니라." 하셨습니다.

공했다는 그 말을, 색이 공이요 공이 색이란 말을 아까 얘기해 드렸죠.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있으면서도 없고 없으면서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있느니라. 이 줄이 말입니다, 전력을 가져오려면 이쪽 줄과 저쪽 줄이 한데 합쳐져야 하고 그래서 불이 들어올 뿐입니다. 어느 누가 "스님, 참 이런 공부를 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너의 줄과 내 줄이 한데 합쳐져서 불이 들어올 뿐이지 네가 한 것도 내가 한 것도 바로 둘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니 지금 과학이 발전됐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터지지 않는 이상 진짜 실천할 수 있는 과학을 연구 못 할 겁니다. 무의 세계, 정신세계 50%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의학계도 그렇습니다. 50%를 모른다면 그 반만 가지고는 사람을 100%로 건질 수가 없습니다. 모두 살고 있는 것도 99%지 100%라고는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죽는 것도 건지는 거요 살리는 것도 건지는 겁니다. 헐었던 옷을 벗어 버리게 하고 진화해서 다시 새 옷을 입게 되니까 그것도 건지는 겁니다. 건지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원도 모습도 가져올 수 있고, 어느 집에 어떻게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자기 인생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미지를 끝까지 어떻게 남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세세생생에 주어진다고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세세생생 주어지는 것이니까, 세세생생 창살 없는 감옥에서 헤매고 돌게 될는지 어떨지는 자기의 소관입니다, 모두.

우리가 지금 잘 알아야 할 문제는, 소년소녀 가장 돕기라고 하지마는 이 외에도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한생각의 보시가 있습니다. 이 한생각의 보시라는 것은 자기 몸같이 생각하고 자기 아픔같이 생각하고, 자기 부모같이 생각하고 자기 자식같이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고, 현재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 현재의 자식만 자식이 아닙니다. 수억겁을 거치면서 그렇게 해 왔는데 어느 때의 내가 인생으로 출현됐을 때에 나라고 하겠습니까? 내 부모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저, 등록금을 못 내서 학교를 못 가는 애들을 봐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스스로 생겨야 되는 거죠? 억지로는 못하죠. 내 우물 안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다를 보시란 얘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주머니 속에서 허덕거리고 있는 인생살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마음은 광대하고 무변하고 묘하니까 네 마음이 그 공기 주머니를 뛰어넘어라, 그러면 자유권을 얻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더 시급하게 요청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지금 이 몸뚱이 속에 있는 생명들의 집이 되죠? 이 집이 무너지면 안 되죠? 이 집은 안의 생명들을 보호하고, 안의 생명들은 작용을 해서 이 몸을 보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 씀씀이대로 바로 속에 통신이 돼서, 대뇌로 통신이 돼서 소뇌를 거쳐서 중뇌로, 중뇌에서 책정을 내려서 사대로 통신이 됩니다. 사대로 통신이 되면 거기에서 공장마다 바로 부족한 거를 메꾸면서 다 이렇게 튼튼하게 이끌어 갑니다. 이 대뇌로 통신이 안 되면 책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몸속에서 작용들을 못 하죠. (이마를 짚어 보이시며) 여기가 명령서인데요, 그러니까 의학도 심성 의학이 돼야 하고 문화 문명을 잘 이끌어 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심성이 트여야 된단 얘깁니다.

마음은 창살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몸은 놔두고 지금 댁들의 집을 다녀와 보세요. 멀든지 가깝든지 말입니다. 자기 회사를 갔다 오려고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앉은 채 갔다 오실 수 있어요. 어디에 뭐가 놓이고 어디에 뭐가 놓인 것까지도 다 알고 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 통 안에서, 즉 육통 안에서 벗어난다면 누진에서 자유권을 얻어서 마음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육통에서 벗어나야 바로 이 속에 있는 천차만별의 의식들을 보살로, 천백억화신으로 화하게 해서 응신으로서 나투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시쳇말로 한다면 '분자로 화해서 입자로 모두가 나툰다' 이 소리와 똑같은 얘깁니다. 그래서 입자로 나투어서 그 입자가 또 원자가 되고 이렇게 하듯이 말입니다.

길게는 얘기 못 하겠어서 짧게나마 그냥 건둥건둥 해 나가는 겁니다. 말로 어떻게 다 하리까? 몸속에서 움죽거리는 것과 우주의 섭류와 인간살이의 섭류가 다, 천지인이 움죽거리는 것도 모두가 일치합니다. 불법승이라고 하는 그 자리도 바로, 내가 생각이 없을 때는 부처요 생각을 냈을 때는 법신이요 움죽거렸을 때는 화신, 보현신이란 얘깁니다.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그렇게 광대해요. 부처님의 마음 하나가 깨달은 마음 하나라면 바로 부처님의 마음으로써 이름이 지어진 아촉이 있고 아미타가 있고 미륵이 있고, 또는 칠성부처가 있고 지장이 있고 관세음보살이 있고 용신이 있고 지신이 있고, 매사에 아니 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걸 이름해서 보살이라고 했지마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지금 현실에서 하나하나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남을 알며 남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이끌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 마음 하나가 그렇게 귀중합니다. 마음 하나를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위치가 주어집니다. 자기 위치가 주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위치도 주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의 주인공은 다 똑같습니다. 생명의 근본, 이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불을 켜면 거기도 불이 들어오게 돼 있거든요, 가설만 됐다면. 그래 자식과 부모, 형제가 가설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것이 가설입니다, 무의 가설. 이 모두가 그렇게 연결이 돼서 우리가 이 지구라는 도량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도량이라 하면 우주 법계, 과거 현재 미래, 삼라만상을 다 한꺼번에 한도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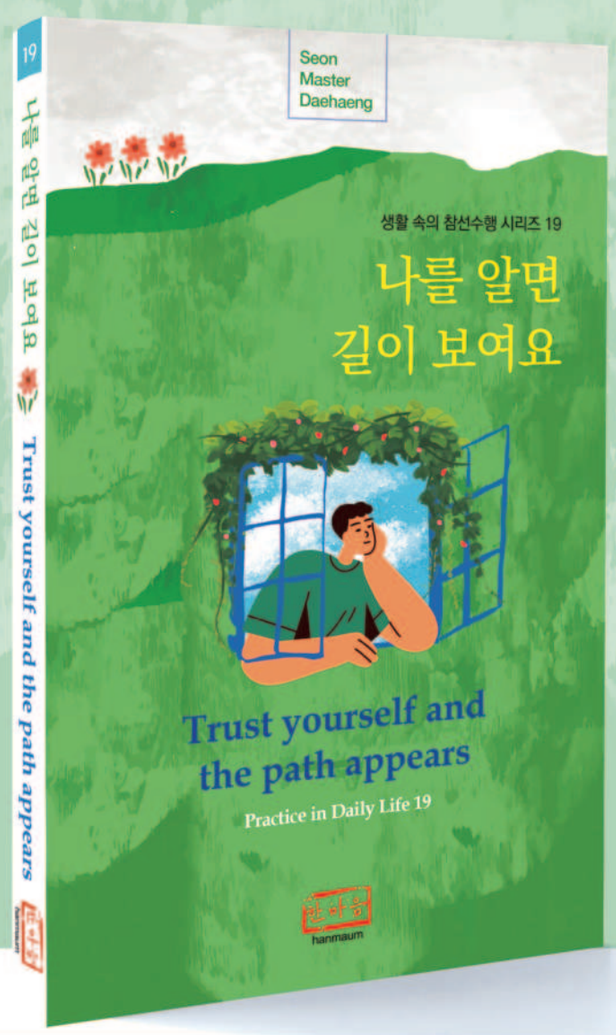
> 인생은 홀로 와서 홀로 간다.
> 그런데 가는 곳이 있느냐?
> 바로 가는 곳도 그 자리요, 오는 것도 그 자리요,
> 사는 것도 그 자리입니다.

※위 법문은 대행 선사 법문집 《허공을 걷는 길》 중 1996년 1월 21일 국내지원 법회 법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

생활 속의 참선수행 시리즈 19 (한영합본)

나를 알면 길이 보여요

대행큰스님 법문



자기 삶을
당당하고 패기있게
이끌고 싶다면

답은 언제나 한 곳에
'내 마음 속'

인터넷 유명 서점과 대형 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 값 9,000원

열두 줄, 마음을 고르다

② 가야금, 천지인(天地人)을 담은 작은 우주

상처는 성숙 위한 필연적 울림

악기 가방의 지퍼를 열 때면, 가장 먼저 코끝을 스치는 쿰쿰하면서도 달큼한 오동나무 냄새가 저를 반깁니다. 그 안에는 명주실을 꼬아 만든 열두 줄의 팽팽한 우주가 잠들어 있습니다. 가야의 가실왕이 일 년 열두 달의 이치를 담고자 설계했다는 이 열두 줄은, 연주자의 무릎 위에서 비로소 살아 있는 시간의 흐름으로 깨어납니다.

우리는 흔히 가야금을 천원지방(天圓地方)의 사상을 품은 악기라 말합니다. 하지만 연주자에게 이 단어는 책 속의 관념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가야금을 무릎에 올리고 품에 안는 순간, 둥그스름한 앞판인 하늘은 내 가슴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평평한 뒤판인 땅은 내 허벅지에 단단히 밀착됩니다.

그 좁고도 아득한 하늘과 땅 사이에서 연주자는 비로소 우주의 파동을 직접 조율하는 인(人)이 됩니다.

내 몸이 곧 우주의 소리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이 감각은, 오직 가야금 앞에 앉아 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특권이자 존재의 확인입니다.

안족, 기울어짐 보살피는 마음

가야금의 열두 줄을 받치고 있는 것은 기러기 발을 닮은 작은 나무 조각, 안족(雁足)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안족들이 악기에 본드나 못으로 고정돼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안족은 오로지 명주실의 강한 장력과 나무판의 마찰력만으로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손끝으로 줄을 뜯거나 튕기는 순간, 그 엄청난 압력을 오롯이 버텨 내야 하는 것이 안족의 숙명입니다.

줄을 뜯는 힘이 반복되면 안족은 조금씩 기울어집니다. 만약 연주자가 그 미세한 기울어짐을 무심코 지나친다면, 안족은 결국 픽 하고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실제 무대 위라면 당혹감을 누르고 연주를 이어 가야 하겠지만, 저는 연습의 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늘 강조하곤 합니다.

"안족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으면, 네가 끊임없이 매만지며 연주해야 한단다. 쓰러지지 않게 돌보는 것 또한 연주의 일부야."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리 높은 이상을 꿈꿔도 나를 지탱하는 토대가 안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면, 연주하는 손길 사이사이로 끊임없이 그 위태로움을 매만져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선율에 매몰되기보다 지금 내 안의 안족이 바닥에 온전히 닿아 있는지 살피는 것. 그것이 연주자의 시작이자 명상의 첫걸음일 것입니다.

미세한 비명과 치열한 조율의 궤적

음을 맞추려 안족을 옮길 때면 줄과 나무 사이에서 아주 작고 나직한 마찰음이 들려옵니다. "드르륵." 수만 번 안족을 바로 세우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해도 오동나무판 위에는 하얀 흔적이 남기 마련입니다.

내 안의 '안족' 살핌이 명상 첫걸음
중도는 나만의 맑은 소리 찾는 조율
삶의 궤적 긍정 시 고유한 성음 빛나

저와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가야금의 앞판에는 안족이 머물고 지나간 자리마다 깊고 얕은 긁힘이 가득합니다. 어떤 이는 이 상처를 보고 악기가 상했다고 안타까워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주자에게 이 흉터는 단순한 흠집이 아니라, 가장 정직한 소리를 찾아 헤맸던 치열한 조율의 궤적입니다.

가야금이라는 외길을 함께 걷는 전공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마음이 아릿해집니다. 이미 각자의 '성음'을 찾아가는 전문가들임에도, 행여 삶에 지울 수 없는 흠집이라도 날까 두려워 안족 한 번 과감히 옮기지 못하는 그들의 고뇌를 마주하기 때문입니다.

마찰음이 두려워 관계의 거리를 조정하지 못하고, 상처가 남을까 봐 도전의 자리를 옮기지 못하는 조심스러운 마음들. 완벽한 연주를 꿈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우리 삶의 음정은 자꾸만 어긋나곤 합니다. 명상이란 내 마음의 오동나무판 위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가만히 쓰다듬어 보는 시간입니다. 소리를 맞추기 위한 마찰은 당연한 것이며, 그 과정에서 생기는 긁힘은 당신이 삶의 음정을 맞추기 위해 치열하게 노력했다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흉터가 길을 만들고 성음(聲音)이 되다

여기서 우리는 불교의 중도(中道)를 만납니다. 중도란 단순히 중간을 선택하는 소극적 태도가 아닙니다. 지금 나의 팽팽함 혹은 느슨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나에게 가장 편안하면서도 맑은 소리를 찾아가는 자비로운 조율 그 자체입니다.

수만 번 안족을 밀고 당기며 최적의 음정을 찾으려 했던 시간, 그 인고의 과정이 흉터 속에 고스란히 박혀 있을 때 악기는 비로소 깊은 맛을 냅니다.

오늘 하루, 세상이 요구하는 음정에 맞추느라 마음의 판이 여기저기 긁히고 상처 입었나요? 괜찮습니다. 그 궤적들은 당신이 더 깊고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필연적인 울림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내 마음의 안족이 서 있는 자리를 가만히 느껴 보십시오. 상처 난 자리를 피하지 않고 그 궤적들을 긍정할 때, 당신이라는 우주는 비로소 나만의 고유한 빛깔을 띤 성음으로 반짝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 당신이라는 우주가 내는 그 정직한 울림을 응원합니다.

가야금 명상곡 'The Universe is Me' 바로 가기

이현아 국악명상연구소장



동네약국 사용설명서

㉖ 약국 단골 되는 법

VIP, 따뜻한 말 한마디로 가능해

"나 이 약국 단골인데, 약값 좀 깎아 줘. 이 약국에 10년이 넘도록 다녔어! 단골 관리를 이따위로 해! 약국 주인 어디 있어?"

"제가 주인인데요. 그리고 약국은 생긴 지 6년 됐습니다."

윤곽은 남아 있으나 또렷하게 그려지지 않는 얼굴과 목소리. 아, 이분은 필자가 약국장인 줄도 모르고 단골도 아니다. 조용히 이분의 이름을 여쭈고 약력을 조회해 본다. 2년 동안 네 번. 과연 이분을 우리 약국의 단골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1년에 두 번, 반기마다 한 번꼴로 약국을 찾는 분들까지 단골이라 부른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손님이 단골 조건을 갖출 것이며, 그 모든 사람을 기억하고 신경 쓰고 챙길 수 있을까. 아니 애초에 가능하기나 할까? 그러나 이런 생각이 필자의 착각이자 실수였다는 것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알게 됐다.

이분은 병원에서 혈압약과 당뇨약을 6개월분씩 처방받아 오는 손님이고, 실제로 약국 방문 횟수는 1년에 두 번이 맞다. 하지만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이분은 아침마다 '대표약사 임종섭'이란 이름이 찍힌 약 봉투를 열어 '희망약국' 글씨가 적힌 약포지에서 약을 꺼내 먹으며 하루를 시작한다.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씩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필자와 약국의 이름을 매일같이 마주해 온 셈이다. 그 정도면 내적 친밀감이 쌓일 만도 하지 않을까. 스스로 우리 약국의 단골이라 여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단순한 사실을 깨닫고 나니, 연말에 약국 이름이 적힌 달력 하나 받아 간 손님도 단골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약 한 번 지어 간 적 없더라도, 매일매일 달력을 볼 때마다 희망약국을 떠올릴 테니 말이다.

필자처럼 생각하지 않은 약사도 있을 테니 약국에서 단골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섭섭해하진 마시라. 대신 기억에 남는 약국의 단골이 되는 방법을 하나 알려 드리겠다. 단골의 핵심은 '임팩트'다. 사전적 의미로는 충격.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약국에서 돈을 많이 쓰는 것이다. 충격적일 정도로 과감하게 지출한다면, 초면이더라도 단골이 된다. 3년 전 어느 날 한 번에 120만원치 영양제를 사 간 그분의 얼굴과 이름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3년이 지난 오늘 그분이 우연히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더라도 나는 그분을 반가이 맞을 자신이 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방식은 아니니, 일반적으로 소개하거나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네 약국이 마음에 들어 진짜 단골이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첫째, 자주 가라. 얼굴도장을 찍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약국을 자주 찾을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필요한 약이 있다면 늘 같은 약국으로 가자. 여기저기 가격 비교를 하는 것도 현명하지만, 사실 약값에는 큰 차이가 있지 않다. 상담과 고객 관리를 잘해 주는 약국이라면 그 약국을 방문하자. 좋은 상담과 친절한 복약지도는 돈으로는 환산할 수는 없는 가치다.

상담·복약지도 잘하는 약국 재방문
경청·인사만으로도 단골 대접 받아
어디서나 즐겁게 대화 나누는 이 되길

둘째, 좋은 리액션을 하라. 약 설명을 들을 때 경청하고 맞장구를 쳐 보자. 말하는 약사의 눈을 바라보면 더 좋다. 궁금한 것이 있다면 질문까지 해보자. 극단적인 내향형이라서 그런 건 도저히 못 하겠다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 손님이 약국에서 아무 반응도 하지 않으니, 반대로 조금만 반응해도 약사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래도 안 되겠다면 어느 약국이든 어떤 상황에서나 쓸 수 있는 마법의 질문을 두 가지 알려 드리겠다. 밑줄 치고 외우자. "약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할 음식이 있나요?"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연락 드리게 약국 전화번호 알려 주시겠어요?"

셋째, 웃으며 인사하라. 약국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을 때 "안녕하세요"라고 답이 돌아오는 경우는 손에 꼽을 정도다. 약을 건네고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이 정도만으로 충분하다.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살짝 칭찬을 곁들이면 더 좋다. "여긴 올 때마다 항상 설명을 너무 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약사님도 늘 아픈 사람들 상대하시느라 힘드실 텐데, 건강 챙기세요." 이런 인사를 건넨 손님께는 이후 더 설명하게 되고, 뭐라도 하나 더 챙겨 주게 된다. 그게 바로 단골이 아니고 무엇일까.

약국의 단골이 되는 일은 어렵지 않다.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면 된다. 좋은 마음은 반드시 전해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득을 얻기 위해 단골인 척하는 마음은 귀신같이 티가 난다.

상대에게 금전적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웃으며 기분 좋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손님이 되면 그때는 부러 의도하지 않아도 어느새 그 약국의 단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는 비단 약국에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이 그렇지 않을까?

"야, 나 여기 단골인데 카렌다 하나만 주면 안 될까?" 약국 문을 빼꼼히 열고 얼굴만 내민 처음 보는 어르신이 묻는다. 손에는 이미 2층 은행에서 받아 온 달력 두 개가 들려 있다. 연말 연초에 출몰하는 달력 사냥꾼이다. 역시 심술이 나는 걸 보니 나는 아직 마음을 더 갈고 닦아야 하나 보다.

임종섭
울산희망약국 대표약사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이야기, 바로 당신의 삶입니다"

삶은 스쳐 가는 순간들의 연속이지만, 그 안에는 잊혀서는 안 될 소중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법보신문은 스님과 불자들의 수행 여정, 지혜의 말씀, 사찰의 역사와 전통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에게 울림이 되고, 또 다른 이에게 길이 됩니다. 기록되지 않은 기억은 사라지지만, 글로 남긴 이야기는 세대를 넘어 살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님과 불자들의 삶은 현대 불교사의 소중하고 생생한 기록입니다.
법보신문은 깊은 존경과 정성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것이 잊히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깊이 머물도록.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세요. 당신의 삶이 곧 가장 빛나는 가르침입니다.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스님과 불자를 잘 아는 전문 기획사
- 불교 이해가 깊은 전문 필진 확보
- 기획부터 책자 제작까지 원스톱 시스템
- 종이·전자출판 올인원(all in one) 서비스
- 고객 수요와 주문에 맞춘 제작 시스템

법보신문 다르마기록문화연구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문의 ☎ 070-4707-4965

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②

'전쟁' 변수 앞에 또다시 선 뽀디봉 마을



전쟁으로 멈춰 선 지 두 달, 수레꾼 뽀디봉 공예학교 봉제반의 재봉틀은 다시 시작될 배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재가불자 NGO인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이 캄보디아 최북단 국경 마을에 세운 학교들은 갑작스럽게 발발한 태국과의 국경 전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 피난을 떠났던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뽀디봉 마을로 돌아오고는 있으나, 이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가정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7월 국경 전쟁이 발발한 이후 한 달가량이 지난 8월, 제가 현지를 찾았을 때에도 작은 경운기에 온 가족과 함께 살림살이를 가득 싣고 마을을 떠나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전쟁 발발 후 20여 일 만인 지난해 12월 27일에 휴전이 이뤄졌지만, 그로부터 다시 20일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마을로 돌아온 가구는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예학교 봉제반 팀원들도 이제야 마을로 돌아와 그동안 쌓였던 먼지를 털어 내고 자라난 풀을 베어 내며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목공반 학생들은 여전히 귀환하지 못해 공예학교 역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 비극은 크메르 루즈 정권이 패망한 이후의 비극적인 역사와 연결돼 있습니다. 당시 약 750만 명이던 캄보디아 인구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50만 명이 학살되는 참극이 벌어졌고, 패망한 세력은 북쪽으로 피신해 마지막 저항을 이어 갔습니다. 이후 정부는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한 군인들과 땅이 없어 경작하지 못하던 화전민들에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마을이 바로 뽀디봉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전기도 없었으며 움푹움푹 파인 길 때문에 불과 20㎞에 지나지 않는 거리도 하루 종일 달려야 도착할 수 있을 만큼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수레꾼은 이러한 땅에 우물을 팠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세웠으며, 전기가 들어오기 전까지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의 자립을 위해 공예학교를 세우고, 희망이라는 돛을 달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6년이 지난 바로 이 시점에, 우리 수레꾼 학교들이 자리한 이곳에 두 차례의 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앙코르 제국의 재건을 꿈꾸며 자국민을 학살했던 '폴폿'의 폭력적 광기가 사라진 자리에, 이후 40년이나 이어진 '훈센' 정부의 장기 집권이라는 정치 현실이 또 다른 형태의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꿈을 키워 내기 위해 수많은 불자들의 원력과 보시로 세워진 뽀디봉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공예학교!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전쟁과 정치의 그늘이 아무리 깊어지더라도, 아이들의 배움과 마을의 자립을 향한 이 길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사찰음식에 마음을 담다 ① 사찰음식, 수행의 미학

먹는 행위도 수행의 일부로 인식케 해

새벽의 고요 속에서 사찰 공양간에 차려지는 한 그릇의 밥상은 단순함 속에 깊은 뜻을 품고 있다. 사찰음식은 단지 채식을 의미하는 음식이 아니라, 불교 수행의 철학과 마음가짐이 고스란히 담긴 생활 수행의 한 형태다. 화려한 기교와 강한 자극을 덜어낸 대신, 생명을 대하는 태도와 삶을 바라보는 시선을 담아낸다.

사찰음식의 핵심 가치는 오신채를 쓰지 않고 육류나 생선을 사용하지 않는 데 있다. 이는 특정 식재료를 제한하는 규범을 넘어, 생명을 존중하고 마음의 번뇌를 줄이려는 수행적 실천에 가깝다. 자극적인 양념을 최소화하고 제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조리 방식은 감각적 만족보다 몸과 마음의 조화를 중시하는 불교적 세계관을 반영한다.

이처럼 사찰음식은 비움과 절제를 통해 내면의 평온을 추구하는 수행의 한 방식이다. 과식을 경계하게 하고 식사 이후에도 심신의 부담을 남기지 않도록 돕는다. 빠른 속도와 강한 자극에 익숙한 현대인의 식문화와는 분명히 다른 방향을 제시하며, 오늘날에는 단순한 건강식을 넘어 삶의 리듬과 태도를 돌아보게 하는 대안적 식문화로 주목받고 있다.

7년 전, 30여 년간 부모님께서 운영해 오신 경남의 문중 사찰을 맡게 되면서 나는 주지스님과 신도분들께 더 정성스러운 공양을 올리고 싶다는 마음을 품게 됐다.

불교의 수행 철학과 마음가짐 담겨

비움과 절제 통해 내면의 평온 추구

말 없이 가르침 전하는 수행의 일부

그 마음 하나로 사찰음식을 제대로 배우고자 뜻을 세웠고, 지인의 권유로 '향적세계'의 사찰음식 전문가 과정을 이수하면서 사찰음식 전문가로서의 길을 걷게 됐다.

사찰음식 전문가가 된 지금, 나는 그 깊은 매력에 더욱 매료됐고 이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다는 원을 세우게 됐다. 사찰음식을 배우고 실천하는 과정은 공양을 준비하는 매 순간을 수행으로 받아들이게 했고,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께 정성 어린 공양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은 큰 기쁨으로 다가온다.

어린 시절, 어머니의 손끝에서 빚어지던 사찰음식을 처음 맛보며 자랐다. 그 기억은 지금도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있다.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인상 깊었던 그 경험들은 세월이 흘러서도 내 삶의 방향을 조용히 이끌어 주었다. 어머니께서는 김장철마다 수백 포기의 김치를 담그시며 설탕 대신 악양의 대봉감을 사용해 자연스러운 단맛을 더하셨다. 마을 신도분들이 함께 손을 보태고 어머니께서는 나눔을 실천하던 그 풍경 속에서, 나는 음식이 곧 수행이며 공덕이 될 수 있음을 배웠다.

사찰음식은 말없이 가르침을 전한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를 넘어, 식사를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향을 돌아보게 하며 먹는 행위 자체를 수행의 일부로 인식하게 한다.

앞으로도 훌륭하신 스님들로부터 사찰음식의 깊은 뜻과 조리의 이치를 더욱 정성껏 배우고 연구하며 그 안에 담긴 수행 정신과 생명 존중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고자 한다. 나아가 이러한 배움을 삶과 공양 속에서 꾸준히 실천함으로써 사찰음식이 지닌 전통과 정신을 다음 세대에 바르게 전하는 전수자로 정진해 나가고자 한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사찰마당을 지나 공양간의 문을 여는 순간, 오늘도 정성을 다해 공양을 준비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차오른다. 이 조용한 가르침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일 것이다.



황수경
루미에르드포레 CEO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③ 침묵 속에서 피어난 꽃들의 말

처음 볼 땐 그저 곱고 아름다웠다. 노랑, 자주, 분홍, 파랑 등 색채의 향연이었다. 오래 보니 꽃들이 침묵 속에서 말을 걸어온다. "나는 한낱 장식이 아닙니다." "내 몸속에는 나를 바라보던 어여쁜 마음들이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같은 모양의 꽃들이 연달아 이어지지만 단조롭지 않다. 저마다 제 생의 빛깔을 지니고 있다. 꽃들이 내게 속삭인다. "아름다움이란 차이가 이루는 조화속, 침묵의 다정한 음성에서 피어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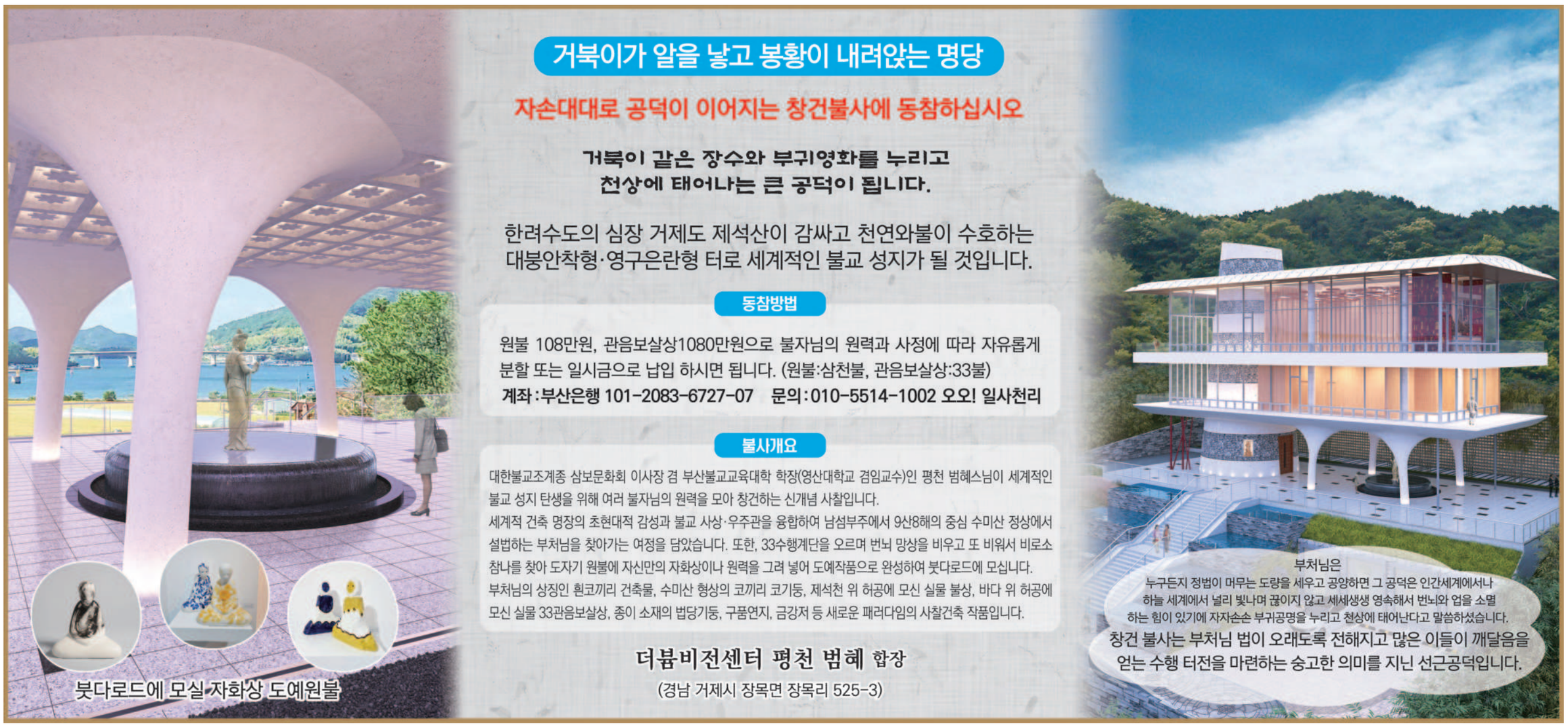
우리도 그렇다. 세상이란 바다에서 둘도 없는 몸짓으로 일렁인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포말 속에서 꽃처럼 빛난다. 나도 누군가의 눈에 그렇게 보이기를 기도한다. 이런 마음이 욕심은 아닌지 꽃들에게 물어본다. 꽃들은 대답 대신 다정히 웃는다. 그 웃음이 내 마음을 토닥이며 속삭인다. "그대도 나처럼 피어나기를…." 결국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이다.

꽃문은 공간 개폐를 위한 물리적 장치가 아니다. 꽃문은 내 마음속 또 다른 나에게로 가는 통로다.



각화사 대웅전.

손영자 작가



출가에서 임종까지…승려 관리 시스템 필요하다

현불논단



설해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2022년 11월 시작된 제18대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임기가 올해로 마지막 해를 맞았다. 임기의 끝자락에 서니, 왜 종회의원이 되고자 했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랍과 나이가 크게 차이 나는 은사 스님과 사형 스님들의 수행과 포교, 불사, 늙음과 병듦, 죽음의 순간까지를 가까이서 지켜보며 승려의 삶을 깊이 생각하게 됐다. 그분들의 삶은 대부분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각자도생'과도 같았다.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며 스님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교육·수행·포교에 전념하고 노후와 임종에 이르기까지 승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랐다. '출가에서 임종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승려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낀 이유다.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고자 나름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첫 주지 소임지에서는 도반 스님들과 매일 아침 경전을 독송하고, 보름마다 비구니계 포살을 봉행하며 초심을 잃지 않는 사찰을 만들고자 했다. 전국비구니회 총무국장 소임을 맡아서는 스님과 사찰·기관을 연결하는 '소임 플랫폼'을 구상했고, 비구니 수행공동체를 원하는 사찰을 발굴하거나 연로한 스님과 사찰을 승계할 후계 스님을 연결하는 시도도 해보았다. 그러나 개인 노력에는 한계가 있었다. 더욱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종단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종회의원이 되어 이 일을 해보고자 원력을 세웠다.

수행·포교 매진에도 '각자도생' 현실
의료·요양·노후 등 복지, 권리로 보장해야
전담 부서에 소임자 배치, 인력풀 활용도

현재 조계종 소속 승려는 약 1만 명 내외다. 종단 행정은 소속 사찰 관리가 중심을 이루고, 수계·교육·안거·법계 관리 외의 영역은 대부분 자율에 맡겨져 있다. 교육을 마친 뒤 소임지는 스스로 찾아야 하고 소임이 끝나면 거주처도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 스님들에게 소임지는 거주처이기에, 거주·노후·임종에 대한 불안은 수행과 포교의 연속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고자 하는 원력과 이를 전하고자 하는 발심은 불교 중흥의 동력이자 종단 운영의 토대다. 이 토대가 약화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해법은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한 승려 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교육·수행·의료·요양·노후·임종에 이르는 복지는 권리로 보장하고, 수계와 법계, 교육과 수행 이후의 포교와 소임은 의무로 분명히 해야 한다. 이를 교구 중심으로 운영해 교구본사가 소속 승려를 책임 있게 관리할 때, 안정적인 종단 운영과 불교 중흥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엔 승려 수가 많아 관리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승려 수가 감소해 시스템 구축과 운영이 한층 수월해졌다. 각 교구에 전담 부서를 두고 소임자를 배치한다면 승려들은 교육·수행·복지의 권리를 보장받는 동시에 소임과 포교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교구별 인력풀을 활용해 사찰 관리와 주요 소임자 임용도 더욱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출가한 스님들이 종단의 보호 속에서 교육받고, 각자의 원력에 따라 수행과 포교에 전념하며,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루빨리 완비되기를 바란다. 필자 또한 남은 임기 동안 관련 정책을 연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스포츠는 어떻게 수행의 언어가 되는가

세간과 출세간



이화행 교수
동명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현대 사회에서 스포츠 선수는 경기 주인공을 넘어 강력한 커뮤니케이션 주체로 기능한다. 그들의 플레이와 인터뷰, 훈련 방식, 삶의 태도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며 스포츠 팬을 넘어 일반 대중의 가치관과 일상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보면 스타 선수는 삶의 방식을 전달하는 상징적 매개자라 할 수 있다.

미국 농구의 전설 코비 브라이언트는 하나의 문화적 메시지가 된 대표적 사례다. 그는 고등학교 졸업 직후 NBA로 직행해 20년 동안 LA 레이커스 한 팀에서만 활약하며, 다섯 차례의 챔피언십 우승, 파이널 MVP 두 차례, 정규시즌 MVP 한 차례, 올스타 18회 선정이라는 눈부신 기록을 남겼다. 한 경기 81득점이라는 전설적인 성과는 그의 기량을 상징하지만 대중이 그에게서 읽어 낸 의미는 단순한 기록을 훨씬 넘어선 것이었다.

실패한 날일수록 연습량을 늘리고 완전한 몰입과 집요한 성장을 추구한 그의 태도는 '맘바 멘탈리티'란 이름으로 미디어를 통해 널리 확산됐다. 은퇴 후에도 그는 교육과 스토리텔링의 영역으로 활동을 확장하며 일관된 삶의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사후에도 그의 메시지는 여전히 팬들의 언어와 일상 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

그가 남긴 메시지는 특정한 구호라기보다 하나의 삶의 원칙에 가깝다. 그것은 기분이나 환경

코비 브라이언트, 실패 시 연습량 늘리고
성장 위해 매일 단련하는 태도, 정진 같아
다짐보다 실천으로 어제의 나를 넘어서길

에 흔들리지 않고, 매일 스스로를 단련하는 태도다. 그는 "동기는 오래가지 않지만 규율은 남는다"고 말하며, 지속적인 훈련과 태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 쉬운 길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했고, 결과보다 과정의 밀도를 중시했으며,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회피하지 않았다. 특히 그가 스스로에게 던졌다고 알려진 "오늘 하루, 단 1%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이러한 삶의 태도를 집약적으로 보여 준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이러한 태도는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정진(精進)의 개념을 자연스럽게 떠올린다. 정진은 일시적인 노력이나 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과 행위를 꾸준히 닦아 가는 지속적 실천을 의미한다. 또한 불교는 실패를 고통으로 규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통 그 자체를 수행의 재료이자 통찰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불편함을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수행의 조건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그의 삶의 태도와 불교 수행은 깊은 공명을 이룬다.

물론 두 세계의 지향점은 다르다. 한 농구선수의 삶의 태도가 세속적 영역에서의 완성을 향한다면, 불교 수행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인의 길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럼에도 스포츠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태도가 대중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는 사실이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세우지만, 그 다짐은 종종 오래가지 못한다. 거창한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실천이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무엇을 조금 더 닦았는가. 오늘의 삶은 어제보다 단 1%라도 나아졌는가. 스포츠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는 우리에게 새해 다짐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행 언어를 건네고 있다.

社 說

원력은 간절하게 결정은 신중하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천일기도가 1월 21일 1차 회향하고, 22일 2차 입재했다.

통일신라시대 8세기 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열암곡 마애부처님은 2007년 쓰러진 모습으로 발견됐다. 부처님 코끝과 바닥의 거리가 불과 5cm에 불과한 상태에서 상호가 온전히 보존돼 '5cm의 기적'으로 불린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37대 총무원 집행부 출범과 함께 '마애불 바로 모시기'를 핵심 종책 사업으로 삼고 천일기도와 모의실험 등을 진행해 왔다. 부처님을 바로 모시는 일이 곧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는 뜻에서다.

이러한 원력을 담은 천일기도는 2023년 4월 28일부터 전국 210여 개 사찰과 단체, 2만5000여 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1월 21일 회향했다. 혹서와 혹한에도 이어진 기도는 열암곡을 다시 한 번 살아 있는 수행 도량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곧이어 2차 기도에 입재해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모시기 위한 염원을 이어간다.

조계종 37대 집행부 핵심 사업으로 추진
올해 입불 여부 결정…안전한 보존 기원

그러나 이 불사가 순탄치만은 않다. 불상 무게는 약 70~80톤에 이르고, 과거 지진으로 최소 13개의 균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불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화유산 보존이라는 또 하나의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요구된다.

이 때문에 국가유산청과 경주시, 경상북도, 관련 연구기관들은 수년에 걸친 정밀 조사와 실대형 모의실험을 진행해 왔다. 110톤 규모의 모형을 제작해 30㎝ 양중에 성공한 최근의 실험은 '제자리에서 안전하게 들어 올릴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판단은 여전히 신중해야 한다. 진우 스님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입불이 목표이되 문화유산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정밀 조사 결과에서 입불이 불상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한 채 안전한 참배와 예경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결코 후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보를 대하는 불교의 책임 있는 태도이자, 미래 세대에 온전한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다.

불교는 언제나 '방편'의 종교였다. 열암곡 마애부처님을 바로 세우는 일이 물리적 입불로 실현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감동이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모시고 공경하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에 담긴 원력과 책임, 그리고 공동체적 합의다.

올해는 진우 스님의 임기 마지막 해이자 열암곡 마애부처님의 입불 여부가 결정되는 중대한 시기다. 천일기도가 다시 시작된 지금, 우리는 간절히 발원한다. 과학과 신앙, 행정과 수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가장 지혜로운 결론에 이르기를. 입불이 가능하다면 부처님을 온전히 바로 모실 수 있기를. 입불이 어렵다면 지금의 모습 그대로라도 천년, 이천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존엄하게 보존되기를.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스님 대표 겸 편집인 : 한명우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기사제보 (02)2004-8257
광고문의 (02)2004-8204
구독문의 (02)2004-8212
인터넷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대구경북지사 : 010-4152-4376
충 청 지 사 : 010-8341-0560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강 원 지 사 : 010-7339-8688
경기남부지사 : 010-8825-4367
경기북부지사 : 010-5323-0834
구독료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종 단 공 고

대한불교대승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 대승종은 1988년 도암선사께서 창종하였으며 (사)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원종단으로 총본산은 서울 종남산 흥도사이며 제6세 종정예하 법경 스님과 제14대 총무원장 일봉스님을 중심으로 전국 350여의 사찰과 750여명의 승려및 전법사들이 포교와 수행에 매진하고 있는 대승불교의 대표 종단입니다.

이에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의 대승불교 정신을 계승하고 중생교화에 뜻을 함께 할 도반을 모집합니다.

문의 : 010-5165-0108 교육원장 진산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대한불교대승종 교육원

재)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도 모집 안내

재단법인 대한불교 일붕선교종은 1988년 일붕 서경보 스님을 개조로 서울 일붕선원에서 창종된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재단법인으로서 일붕선교종은 국태안민과 남북 평화통일 기원 만등불사, 국군장병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사업, 종도단합 및 국운 융창기원법회 등 각종 법회와 사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함께 전할 종도를 모집합니다. 02-991-8175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혜일 스님

대한불교삼론종

종도 모집 안내

대한불교삼론종은 고구려 삼론종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불교 대표 종단입니다. 제6세 종정 혜승 스님과 제10대 총무원장 해불 스님을 중심으로 2023년 삼론불교대학을 개교하고 전법 포교에 나설 승단 양성에 역주하고 있으며, 중국 삼론종 발원지 및 사찰들과 결연을 맺고 자비실천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법 포교에 함께 나설 종도를 모집합니다.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대한불교삼론종 총무원장 남륜 스님

사)여래불교조계종

종도 모집 안내

사단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은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 모습을 정립하고자 공익법인 여래불교조계종을 창종하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불법홍포에 앞장설 전국 종도 스님을 모집하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인천지역 상주하시는 종무원장 스님과 종도 스님들을 모집합니다.

010-6219-4757, 010-5385-3658

불기 2570년(2026) 1월 28일

여래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덕평 스님

지구촌 생명살림 공동 캠페인 共生

캄보디아

세계는 한 꽃송이!

아이들의 잃어버린 웃음을 찾아주세요!!!

어른들의 분쟁 속에서 가장 먼저 희생되는 것은 아이들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깨끗한 물 한 잔, 마음 놓고 뛰어놀 운동장, 그리고 내일의 꿈을 적어 내려갈 공책 한 권이 이 아이들에게는 간절한 소망입니다.
총성 대신 노래가 퍼질 수 있도록 캄보디아의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분의 자비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소중한 후원금은 피난민과 마을 어린이들을 위해 이렇게 사용됩니다.

- 긴급 구호: 피난민 생필품, 영양식, 의료품 지원
- 교육 지원: 파손된 학교 보수 및 교복, 가방, 학용품

아이들이 다시 연필을 잡을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더해주세요!

- 후원계좌: 농협 053-01-269062 (현대불교신문) ※물품 지원 가능
- 현지방문: 2026년 3월
- 후원 동참 문의: 02)2004-8214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본부 (사)나누며 하나되기 로터스월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